

■ 정통과 이단 심포지엄 ■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신계훈 박사 지음

☐ 비평

박영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 교수

탁명환: 한국 종교문제 연구소장

국제 종교문제 연구소장

안토니 웨케마(Anthony A. Hoekema)

폴 주이트(Paul K. Jewett)

☐ 변증

신계훈: 삼육대학교 교수

☐ [목차로 바로가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롬 4:3; 갈 4:30>

김 경 선

찬송가 해설가/[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역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들과 섭리들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배도하고 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요즘 우리교계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사건들과 모순된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이탈하여 너무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명예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갖가지 부끄러운 일들, 성 스캔들, 가짜 박사학위, 무인가 신학교의 무자격 목사배출, 존속상해, 살인, 사기, 횡령 등 죄악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세속화 문제를 두고 매우 심각히 염려하며 성령의 지혜를 통한 철저한 회개와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낡은 책 한 권

나도 기독교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교계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만한 논문이나 책을 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료를 수집하던 중, 미국에 있는 큰 아들에게 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들을 몇 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세 권의 도서들이 왔다. 그런데 그 세 권의 책 중 아들이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책은 한 권이었다. 아들은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며 몇 권의 역서도 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선 그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읽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 묵숨까지 버리며 투쟁한 발도파, 존 위클리프, 후스와 제롬, 루터, 프랑스 신교도들의 눈물겨운 역사를 읽는 동안 가슴속에 맺히는 이슬이 온 몸을 적셔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안다고 하며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있다”는 구절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다. 사실, 오늘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죄를 물마시듯이 범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책자의 저자 엘렌 화잇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그렇게도 적나라하게 지적해 놓은 것이 너무나 놀라웠다. 저자는 온 교회가 성경 말씀의 원칙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투철한 성경 중심사상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씀은 나에게 큰 도전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 책을 다 읽은 후 나는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참된 신앙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나는 그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하였다.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번역에 착수하다.

분주한 생활 중에 틈틈히 번역을 하다보니 근 2년이 걸려서야 번역을 마치게 되었다. 식사를 하고 교정을 보았다. 그런데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교정을 보던 한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장로님, 이 책이 안식일교회 책 같은데 펴내셔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의 모든 감동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가? 일단 출판을 중단시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아본 결과, 그 책은 안식일 교회에서 발행하는 유명한 책 중의 하나이며 이미 오래전에 시조사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한때 장로교회 목사 한 분도 그 책을 번역하여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안식일교회의 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읽었을 때에 받은 그 감동, 이제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었다. 또한, 여러 교회들이 이단시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준 책을 무시해버린다고 생각하니, 인간의 편견이라는 것이 너무 간사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다시 안식일교회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책을 많이 집필하는 J대학의 C교수에게 물어보았다.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하다”는 애매한 대답을 한다. 다시 O교소에게 물었다. “그들은 성경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대답이었다. 이번에는 교계의 저명인사들에게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비평하는 책들을 낸 저자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K목사, T씨, P목사, 모두 교계에서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학문적인 배경도 든든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때로는 이권 문제에 얽혀서 비양심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국의 유수한 교단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전개해 놓은 이론에 근거하여 타교단을 이단시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분은 안식일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성경말씀대로 살아야한다며 오히려 우리를 이단시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물과 기름처럼 된 것이지요.”

안식일교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찾아

나는 교회사가들은 안식일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선 펠립샤프의 기독교회사를 위시하여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연구」 제넷 스타라투렐의 「교회사」 존 플레처 허스트박사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기독교문사에서 발행한 『기독교 대백과 사전』 등에서 선교열을 칭찬했을 뿐 이단이라고 규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포드 기독교회 사전」에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SEVENTH-DAY ADVENTIST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y are the staunchly Protestant body, believing that the Scriptures provide the unerring rule of faith and practice and that the return of christ is imminent, although they now set no date for that event. Emphasizing that the human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I Cor. 6:19), they require of the members a life of strict temperance; abstinence from alcohol and tobacco is mandatory and that from tea, coffee and meat is recommended. Members observe the Sabbath from sunset on Friday to sunset on Saturday. They are expected to pay tithe on their income in addition to freewill offerings. They are trinitarian in belief and adhere to the doctrine of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alone. They practice adult baptism by total immersion.”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서는 신앙과 행위의 무오(無誤)의 법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예정일을 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고 있는 충실한 개신교 조직체이다. 인간의 육신은 성령의 전(殿)임을 강조하며(고전 6:19), 그 교인들에게 금주와 금연은 필수사항이고 차(茶)와 커피와 육류까지도 가급적 삼가는 엄격한 절제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교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을 준수하며, 일반적인 현금 외에도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구원받는 교리를 고수한다. 그들은 몸을 완전히 물에 잠그는 침례예식을 행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여러 교회역사가들의 해석을 종합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할 수 없지 않은가? 나는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자 미국성서공회와 대영성서공회에 연락을 취해보았다. 편지도 보내고 여기저기 조사해본 결과 그들은 이단이라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목사도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197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빌리 그레이엄 대전도집회가 열렸을 때에는 제칠일 안식일 참여시키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내가 방송 계통에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한 미국인 선교사에게 안식일 교회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말을 해주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쌀밥이 주식이요 국이 부식이듯 우리 미국사람들에게는 육류가 주식이요 커피가 부식이다시피 되어있는데, 안식일 교회는 그것을 삼가하고 가급적 채식을 하라고 하니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인 교역자들 중에는 술과 담배를 종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음주, 흡연이 절대금지사항이니 좋아할 리가 없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니 꼭 그렇게 까지 해야 구원받느냐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 별나게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단으로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출판을 결심하다」

이와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칠일 안식일 대하여 알아본 결과, 그 교회의 내막을 잘 아는 지식층에서는 그 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나는 이제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책을 출판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어느날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짝 메우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백두산의 모양을 어떻게 말하는가? 동쪽에서 본 사람, 서쪽에서 본 사람, 남쪽에서 본 사람, 북쪽에서 본 사람의 주장이 각각 다를 것이고 저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가장 정확한 판단은 동서남북에서 보고 상공에서도 본 후 나오는 것이다. 어떤 교리적 주장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은 성경에 비추어 나오는 것이며, 인간의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간들은 때때로 성경 말씀이 자기의 양심에 가책을 주거나 자기의 현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돌려서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므

로 나는 결국 나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3개월간에 걸친 갈등과 고민을 끝내고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였다. 책의 원 제목은 「The Great Controversy」였다. 책이 출판되어 나가자 수십통의 전화가 몰려왔다. 격려의 전화도 많았지만 항의하는 전화도 있었다. “여운사 같은 교계 공인 출판사에서 그리고 찬송가 해설 집을 펴낸 장로가 그런 이단서적을 펴내면 어떻게 하느냐?”, “저자가 안식일 교회 창시자가 아니냐?” 등등의 전화였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어 출판한 것인데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 책 내용 중에 이단적인 요소들을 지적해 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용을 가지고 이단성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 그저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몇몇 분들이 내가 이 책을 펴내데 대하여 염려하고 충고하였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교회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대표적인 서적들을 구입해 읽으면서 그 교회의 목사들 몇 명과 접촉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들에 대한 생각에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안식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식일 교회에는 그들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기본 교리 27」이라는 책이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안식일교회를 교리적으로 비평하려면 어떤 개인들이 저술한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지 말고 그 책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 책의 내용은 안식일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성경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속사적 신관, 성서 중심의 신앙관, 성서적 종말사상, 도덕적인 실천신앙 등 대부분의 교리가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고 있었다. 기독교 신앙의 원 기둥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몇 가지 다른 점을 지적해 본다면 주일예배 대신에 주일중 일곱째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침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베푸는 것, 성만찬식을 할 때에 세족예식까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피차간 성경해석상의 차이일 뿐이지 상대를 이단시 할 만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 정도는, 장로교의 예정론이나 감리교의 자유 은혜, 성결교의 성결론, 침례교의 침례식 등의 차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전지 전능하여 모든 것을 다 알도록 영감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기에 장로교회의 창시자 칼빈도 예정교리에 입각하여 자기의 신정정치를 펴나가며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절대교리로 내세우는 알미니우스 교리주창자들을 투옥하고 처형하며 추방하는 등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던가? 또한 알미니우스 교리 주창자들은 영국에서 감리교회를 창설했고 부패한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영국을 구출하지 않았던가? 비록 성경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리는 절대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호보완하고 협력하여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들을 하늘로 높이 뻗은 거목이다. 그 거목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태양빛을 받을 잎새가 필요하고 잎새가 많이 붙어 있으려면 많은 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 장로교의 뿌리, 감리교나 성결교, 침례교나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뿐만 아니라 안식일교회의 뿌리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모든 뿌리들이 깊이깊이 내려져 양분을 많이 흡수하여 그 거목에 공급을 해야 나무는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다. 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빛이 양분을 부여받고, 한 성경의 같은 우물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기독교라는 나무의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같은 뿌리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식생활 습관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질감을 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교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급적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자는 주장을 이단시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편견일 것이다. 육식보다 채식이 인간의 신체에 유익하다는 것은 20세기 과학에 있어서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안식일교인이 일반인들보다 질병이 없고 장수한다는 것은 브리태니커사전(Medical & Health Encyclopedia in Britannica, 1978년판 P82)에까지 언급된 엄연한 사실이며, 그것을 문제시할 필요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일반인들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교리서는 결코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주장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율법주의자인 것이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안식일 교회의 성직자들은 사실 청교도 정신에 가깝게 살고 있다. 아무리 신도수가 많은 교회를 목양해도, 담임한 교회의 신도수가 아주 적어도 그들은 최소한의 생활비에 불과한 봉급을 일정한 비율로 받는다. 그러면서도 전 목회자는 60년대부터 철저하게 소득세를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사모는 직장이나 부업을 갖지 못하게 되어있다. 성직자는 성물(십일조)로 살아가며 부부가 함께 목회에 전념하라는 의미이다. 1994년 선교 90주년 행사에서는 4000명 이상이 집단헌혈을 하여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요란스럽게 광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펼치는 구호사업도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기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무인가 신학교는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단 본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무자격 목회자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이단으로 정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안식일 교회를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성경사상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지도 않는 채 이단으로 규정하여 고통을 주고 있다면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떤 상대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매우 심사숙고 해야한다. 역사를 보면 대개 소수집단이 다수 집단에 의하여 이단취급을 받게 된다. 이단에는 상대적 이단과 절대적 이단이 있을수 있다. 자신과는 신조를 달리하는 모든 상대를 이단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 이단이지 성경이 정하는 절대이단이 아니다. 성서적인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적어도 피차간에 자리를 함께하여 성경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때로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판단하여 이단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니다. 여기 한 복음교회(루터

교)신학자 파울 슈바르체나우 교수가 안식일교회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주목해보자.

“이 대화(제네바 대화, 1965~71)에서 양측은 피차 신뢰와 그리스도인 우의를 나누었으며 그 기초위에 많은 영역에서 신학적 일치를 볼 수 있었다. 이 대화에서 우리들, 즉 WCC 대표진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나의 분파가 아니라 한 교회인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루터교에 의하여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그릇 인식되어 왔는데 그것은 제네바 대화의 정신속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스페, 1970, 3판,P6>

순복음교회가 한창 발전해 나갈 때 일반 교독교계에서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엇이 변화된 것인가? 순복음교회의 교리나 그들의 신앙이 바뀐 것인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이단과 정통이 가려지는 것인가? “화합적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단과 정통의 기준은 이미 허물어진 것이다. 한 때 K목사의 귀신론을 문제삼아 이단으로 정죄하였으나 최근 모 교단의 C목사는 다시 그것을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모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고 한다. 첫째 이유는 성경에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사도신경 원문(현재 우리는 그것을 고쳐 사용하지만)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He descended into hell)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를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도시대에 가말리엘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행5:38,39)

천주교에서는 성경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화체설, 이콘 숭상, 마리아의 무원죄설, 마리아 승천설, 교황 무오류설, 십계명 변경 등 그야말로 이단적인 요소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단시하는 일은 삼가하고 있다. 오히려 안식일교회에서는 천주교의 오류를 과감하게 지적하여 그들의 오류성을 들추어내고 있다. 나는 결코 안식일교회를 두둔하여 그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좀 더 바르게 알자는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굳어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좀 더 깊이 파악하여 진실을 파헤쳐 보자는 것이다. 너무 일방적인 평가로 몰아세우지 말고 성서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내려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안식일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무엇인가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그렇게 되었다면, 무조건 안식일 교인들과 상종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내어 우리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있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서 성서적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취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책」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최근 안식일 교회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기독교계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단시하던 복음침례회는 사무착오로 들어온 것이라 일반 배제시켰지만, 안식일 교회는 유선방송 기독교 채널에 최초로 신청한 3개 업체 중의 하나로서 정부로부터 약속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배경과 내막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교계언론에서는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여 결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참여 시킬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계 여러 신문에서 안식일 교회 이단을 운운하며 배제시킬 것을 역설하는 기사를 큰 활자로 뽑아 공략하였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문에 그러한 기사를 작성한 편집인들에게 ‘안식일 교회의 어떤 점이 이단이나?’고 물으면, 교단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식일 교회에서는 함구하고 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들이 정말 이단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싸움이나 논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들의 속성 때문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 대답을 끝내놓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대답에 대하여 다시 어떤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이다. 안식일 교회는 1991년도에 삼육대학 교수인 신계훈 박사가 저술한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저서를 내놓고 우리문제에 대하여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명쾌한 변증을 제시하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은 지금 이 책이 진지한 성서중심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심각한 도전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안식일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성서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기독교 텔레비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 그들은 좀 더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본 도서출판 여운사에서 이 책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를 펴내게 되었다. 목회자들, 신학생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든 평신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고 안식일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면 “화합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성서 진리의 차원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용납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성서적으로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 번 선을 분명히 그어서 우리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계에 산재해 있는 300개 이상의 기독교 종파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를 점령하고 있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교단이나 교파의 편견을 떠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주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내 발의 등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다. 말씀에 조명하여 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삶을 소중하게 느끼고
진리를 귀중하게 여기며
양심을 두렵게 알고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머리말

유감과 부담을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곳에서 열린 성경 연구 집회에 나가면서 자주 가지게 되는 유감(遺憾)과 부담(負擔)이 있어 왔다. 집회 초청을 받거나 참석한 사람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말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라는데요” 미국 서부의 어느 교회 목사님도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을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하여 신자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중 하나를 들으면서 실색(失色)했다. 대낮처럼 밝은 이 정보시대에 이토록 왜곡된 비평이 어떻게 진실처럼 유포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풍토가 조성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 교계에 소개된 이 분야의 출판물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쉽사리 알게 되었다. 모처럼 국내의 비교종교학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상을 주고 있는 탁명환 씨가 지은 <기독교 이단연구>라는 책이며, 현재 큰 교단의 신학교 교수로 소개된 박영관 씨의 <이단종파 비판>을 읽으며 커다란 실망과 함께 깊은 충격을 받았다.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이해마저 결여한 입장에서 한 교단에 대하여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단 선언을 그토록 가볍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책들을 분별력 없이 읽음으로 받게 될 영향을 생각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앞선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한 비평은 일반 비평과는 다르다. 엄연히 판단의 절대기준인 성경이 있고, 그 위에 시비(是非)를 최종적으로 가려 주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관이나 편견에 치우친 비평은 크나큰 영적 손실을 초래하는 비방(誹謗)이나 형제에 대한 참소(讒訴)가 되고 만다. 더구나 이러한 왜곡된 비평 때문에 영혼이 잘못 인도되었을 경우 그 영적인 결과는 보상조차 불가능한 치명적인 것이다.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오도(誤導)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워지는 두려운 책임을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피차 통감해야 하겠다(계 22:18, 19; 겔 22:26~28).

그러므로 글이나 말로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진 우리 목사들이나 교계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하기에 앞서, 자신의 논증이 양심적으로 성경에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신함이 없이는 함부로 글과 말로 표현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사 8:20)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행 24:16) 할 것이다.

오랜 침묵을 깨고서

필자는 그동안 몇 인사들이 말이나 출판물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 속한 한 사람의 평범한 교역자이다. 그동안 몇 분들이 쓴 비평 서적을 읽으며,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덕성이 아니라는 강함 느낌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 하며...진리를 알게”(딤후 2:15, 16)하는 것이 서로의 유익이 된다는 확신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교회란 어느 교파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고 사는 자신의 집의 “기둥과 터”가 견고한 것인지 진리의 안전검사(安全檢査)를 거치는 것이 요긴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천재지변을 견디지만 인간 전통의 모래 위에 기초한 집은 폭풍이 일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마 7:27)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지금까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이단으로 비평해 온 몇 인사들과 지면을 통하여 담합(談合)하고자 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현실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그분들이 벌써 여러 차례 출판을 거듭하며 교계에 널리 소개한 책들을 펴놓고 거기에 직접 인용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한 지상(紙上) 심포지엄을 갖고자 한다. 그분들은 이미 저서들을 통하여 하고 싶은 비평의 말들을 모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할 차례이다. 비평에 대한 변증(辨證)이 또 다른 편파적인 비평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문헌으로 뒷받침했으므로 직접 참고하기 바란다.

그래서 현실에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돕고 성경을 곡해(曲解)한 결과이면 이를 밝혀 마침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딤후 2:4)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에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지면을 통하여 대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빌 1:6, 공동번역).

미국 앤드루스 대학교 교정에서

신 계 훈

목 차

머리말	2
-----------	---

I. 정통과 이단 비평 개요

1. 적절한 인정신문(人定訊問)	2
2. 정통과 이단의 역사	3
3. 이단 판별(判別)의 기준	7

II. 사도신경과 정통교회

III. 안식일 제도와 일요일 준수

1. 안식일 제도의 성경적 근거	19
2. 안식일 준수와 율법주의	26
3. 안식일과 칠일 중 하루	31
4. 일요일에 관한 성경의 진술	34
5. 안식일과 초기 교부 문서	40
6. 안식일과 장래 일의 그림자	43
7. 안식일과 개인의 확정	55
8.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	59
9. 사도시대 이후의 안식일 준수	72
10. 일요일 준수와 진정한 예배	82

IV. 부활 신앙과 영혼 불멸 사상

1. 인간의 본성과 불멸	106
2. 죄의 결과와 죽음의 진상	113
3. 오해되고 있는 성경의 표현 해석	122
4.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128
5. 장사되신 삼일 동안의 그리스도	135
6. 영혼불멸과 영원 지옥 사상의 전말	141
7. 조건적 불멸과 악인의 소멸 신앙의 전말	150
8.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	163

V. 칼빈주의 예정론과 이단 신조

1. 아르미니우스와 그의 가르침	173
2. 칼빈주의 예정론의 역사적 배경	178
3. 칼빈주의 예정론의 허실	181
4.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	185

VI. 성서적 재림과 비밀 휴거

1. 정통 종말론과 휴거설	193
2. 비밀 휴거설의 역사적 기원	195

3. 비밀 휴거설의 성경적 근거	200
4.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207
5. 성서적 재림신앙의 위상	208
VII.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기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기	215
VIII. 성소제도와 구속의 계획	
1. 성소의 목적과 역사	220
2. 성소의 구성과 기능	223
3. 성소봉사와 구속(救贖)의 과정	228
4. 지성소 봉사와 조사심판	231
5. 재림과 조사심판	239
6. 2300주야와 성소의 정결	246
7. 2,300주야 예언의 성취와 결과	260

IX.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

X. 교파의 기원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파의 기원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277
1. 교파의 역사와 정통성	278
2. 배도의 시작과 중세 교회의 성립	280
3. 중세기의 시작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립	283
4. 종교개혁의 전주	285
5. 종교개혁의 발발과 개신교의 시작	287
6. 청교도 운동과 개혁의 진전	293
7. 종교개혁의 진전과 안식일의 회복	297
8. 17,18세기 종교개혁의 진전	299
9. 19세기 종교개혁의 진전	302
10.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형성과 신조	310
11. 요약과 결론	319

I. 정통과 이단 비평 개요

1. 적절한 인정신문
2. 정통과 이단의 역사
3. 이단 판별의 기준



1. 적절한 인정신문(人定訊問)

재판과정의 첫 단계는 대상의 신원(身元)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다. 만약 대상을 잘못된 이름으로 칭한다면 그것은 오판(誤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름은 법적인 신원은 물론, 개인이나 단체의 성격과 인상을 전달하는 예민한 문화수단이기 때문에 부르거나 쓸 때에 정확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말과 글로 본 교회를 비평하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잘못된 이름으로 칭하여, “안식교”(安息敎)로 통용하고 있다.

본교회의 공식 명칭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Seventh-day Adventist)이다. 이 명칭 속에는 개신교인 본교회가 일반 개신교회들과 대부분의 기본 신조를 같이하고 있지만, 특징이면서 다른 점이기도 한 성경 진리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제칠일 안식일 준수가 그것이다.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 대신, 신구약 성경에 명시된 일곱째 날인 오늘날의 토요일을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 언급된 진정한 안식일로 준수하고 있다. 그것을 유대교가 준수하던 율법주의적인 안식일로서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救贖)의 기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오늘의 참 안식과(마 11:28) 장차 경험할 영원한 안식의 예표(豫表)로, 예수께서 그 주인(Lord)이라고 선언하신 (막 2:28, 마 12:8) 성경상의 “주의 날”을 안식일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재림교회란, 이 죄된 세상 역사의 종결이요, 구원의 완성인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강조하며, 그 임박함을 선포하고 준비시키는 사명을 힘써 이행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존재할 것으로 예언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계 12:17)의 입장을 상기시킨다. 아울러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6~12)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自覺)하게 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후자에 관심을 두어 재림신자(Adventist), 혹은 재림교회(Adventist Church)로 약칭하고, 한국에서는 전자를 강조하여 안식일교인, 혹은 안식일교회로 통칭하고 있다. 유기화학에서는 안식향산(安息香酸)을 안식산(安息酸)으로 줄여서 부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안식일교회를 안식교로 부를 수가 없다.

위에 말한 비평 서적들에는 이름 이외에도 본교회의 역사나 신조 설명에 너무나 많은 오전(誤傳)이 있어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으나 본서에서는 관련사항에 접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지적할 것이다.

2. 정통과 이단의 역사

최대의 오판

연전에 이스라엘 법원에는 특별한 관심을 끈 재판이 신청되었다. 내용인즉 19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의 사형판결은 로마제국의 총독빌라도의 오판(誤判)에 의한 것이므로 현 이스라엘 법원이 이를 다시 재판하여 바로 잡음으로써 유대인의 얼룩진 명예를 회복하자는 예수 사형판결 재심청구소송이었다.

물론 적법성이 없어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성과 양심을 일깨워준 사례였다. 맞는 말이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독선(獨善)과 편견(偏見)에 사로잡힌 종교지도자들의 거짓된 고소와, 명예에 눈이 어두워 양심과 공의를 저버린 한 총독의 오판에 의해 돌아가신 것이다. 참으로 결과가 끔찍한 최대의 오판이었다.

최초의 이단 소송

그런데 우리는 흡사한 소송사건을 사도행전에서 거둬 대하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처음 순교자인 스테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거짓된 송사로 돌에 맞아 죽었으며 (사도행전 7장), 곧 이어 사도 바울이 같은 자리에 선다. 원고(原告)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제기한 고소내용이 다음에 적혀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식 수 있나이다” (행 24:5~9).

기소된 죄목은 “이단”(異端)이었다. 이단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본래 “선택”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하이레스시스”(hairesis-영어의 heresy)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통적인 것을 벗어나 남과 다른 것을 택하여 믿고 가르치는 종파나 학파를 가리켰다.¹ 이와 반대되는 “정통”(正統-영어의 orthodoxy)은 옳고 바른 것을 뜻하는 헬라어 “오르도스”(orthos)에서 연원하여 본래의 학설이나 교의(敎義)를 올바르게 계승한 주류를 가리켰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고수해 온 인간적인 전통을 거부하고 그들과 다르게 믿고 가르치는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고 당당히 고소한 것이다. 이렇게 막을 연 정통과 이단의 시비(是非)는 역사가 흐르면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서 교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들을 남겼다.

정통과 이단 이야기

4, 5세기를 어지럽게 한 그리스도의 본성 [基督論]에 관한 정통 논쟁이나 중세기와 종교개혁을 둘러싼 로마 가톨릭교회의 살벌했던 이단 박해의 역사를 모두 접어 두고서라도, 우리는 빛나간 역사의 전철(前轍)을 거둬 밟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쉽사리 보게 된다. 다음의 일례를 통하여 역사에 비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일별해 보자.

종교개혁과 함께 로마 가톨릭교회가 고수해온 전통(傳統)은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가진다는 트론티 종교회의(Council of Trent • 1545~1563)의 결정에 어긋나게 가르친 루터나 칼빈 등 개혁자들은 즉시 저주받을 이단으로 정죄되고²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였다. 이러한 역경 중에서도 중세 교회에 의하여 유린된 진리의 회복을 위하여 이들이 치룬 희생과 교회사에 끼친 공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본서의 말미(末尾)에서 이 점을 언급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시간에 속하여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제한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부분을 밝힘으로 오늘을 위한 교훈을 찾고자 한다.

개혁 초기부터 이단으로 몰린 칼빈은 모국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피하여 제네바에 정착했다. 거기서 칼빈은 같은 프랑스인이며 로마 가톨릭 수도승으로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개혁신앙으로 전향한 의사 볼섹(Jerome Bolsec)이 자신의 예정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를 시정부의 재판에 회부하여 1551년 제네바로부터 영구히 추방하였으며, 볼섹은 결국 그의 옛 교회로 돌아가고 말았다.³

또 다시 칼빈은 영아세례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조에 대해 이설(異說)을 주장한 또 다른 의사 세르베트(Michael Servetus)를 재판에 회부한 후 1553년 불살라 죽였다.⁴ 또한 같은 때에,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고, 영아세례를 반대하며, 사람이 죽은 후 부활 때까지는 잠자는 상태에 머문다고 가르치는 재세례파(Anabaptists)를 “걸도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가차 없이 취급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칼빈의 제네바 신정(神政) 기간의 일부인 1542년부터 4년간, 58명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처형되었으며 76명이 제네바로부터 추방되었다.⁵ 19세기를 대표하는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Philip Schaff • 1819~1893)는 이러한 과오가 칼빈 자신보다는 중세 가톨릭교회의 그릇된 신정(神政)의 전통을 미처 벗어나지 못한 칼빈의 신정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⁶

미국의 정통 파동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는 개신교의 신천지 미국 땅에서도 반복 되었다. 로마교황이나 국왕이 교회의 머리수장〔首長〕이 된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이단자로 정죄되어 살 곳을 찾지 못한 회중과 청교도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신대륙인 미국의 동부에 정착했다. 거기서 그들은 과거를 까맣게 잊은 채, 오히려 정교(政敎) 일치, 신앙의 일치를 내세우면서, 이에 반대하는 침례교도와 웨이키교도들을 추방하거나 이단으로 정죄한 후 목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1662년, 도리어 영국의 국왕〔Charles II〕이 이를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계속했다.⁷

이러한 모순들에 대해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이렇게 개탄했다.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과 다른 것은 단지 이단의 정의(定義)이며, 그 형벌이 훨씬 온건했다는 것뿐이다.”⁸ 오늘날도 그러한 본을 좇아 자기중심적인 교리를 기준으로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개신교계는 과거의 역사에 빠져버린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탁한 역사는 20세기에든 계속되었다.

19세기 후반부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신학이 20세기와 함께 미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1세기 동안 칼빈주의 보수신학의 보루였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여기에 휩쓸리고 만다. 이에 보수신학을 대표하는 메이첸(J. G. Machen)은 자유주의신학을 이교적(異敎的)이요, 로마 가톨릭교회보다 더 심각한 배도(背道)라고 선언하고⁹ 1929년 그리로 기울어진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새로운 정통 보수신학의 요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분립시키기에 이른다. 때를 맞춰 자유주의 신학에 휩쓸린 복장로교를 탈퇴한 상당수의 목사들이 정통장로교(正統長老敎) 창립에 나섰으나 10년을 못 넘기고 또 다른 신학논쟁으로 분열되어 신앙신학교파와 성경장로교파로 갈라서고 말았다.¹⁰

이보다 앞선 1919년 스위스의 한 작은 교회 목사였던 칼 바르트(Karl Barth)에 의하여 시작된 새로운 신학은 당시 편만하던 자유주의신학을 압도하고 신정통주의(新正統主義)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30여 년간이나 신학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신학의 약효(藥效)가 채 입증되기도 전에 이를 과다(過多)하게 복용한 국내외 신학계는 증상조차 가리기 어려운 각종 신학병(神學病)에 시달리게 되었다. 1967년 미국 연합장로교는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영향을 받아, 1647년 이래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고백이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크게 상반되는 수정(修正) 신앙고백을 채택함으로써 일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¹¹

한국으로 옮겨진 정통 파동

바다 건너 미국에서 소용돌이친 자체 교단 내의 정통 파동은 그대로 바다이편의 한국교회에 파급되어 험난한 정통 파란이 재연되었다. 같은 교파이면서도 격렬한 정통 논쟁으로 신학적 공존이 더 이상 어렵게 되어 결국 한국 기독교장로회와 대한 예수교 장로회로 양분되고, 미국의 경우처럼 각각 별도의 신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 후로도 정통파동은 계속되어 통합(統合), 합동(合同)주류, 합동 비주류, 합동 지리, 고신(高神) 고신 법통(法統), 호헌(護憲), 성경 장로회, 한국 기독교장로회 등을 거듭 세분되어 이제는 정통의 계보마저 가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1980년 문공부 집계에 의하면, “장로교의 교파 수는 그 당시에 29개 교단”이라고 밝히고 있다.¹²

이토록 지루하고 어두운 이야기는 동일한 신조를 표방하는 같은 교파 안에서 겪고 있는 정통 시비의 부분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섭섭하게도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적인 뚜렷한 기준도 없이 나름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구내외의 인사들이 거의 모두 이상과 같이 자체 안의 정통 파란을 겪고 있는 칼빈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 지도자들인데 대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다. 교회사의 상식을 가진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기준에 따라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평하는 정통 시비에 지쳤고 식상(食傷)해 있음을 차제에 알리고 싶다.

선교 역사 한 세기를 넘어선 한국교회도 이제는 사도행전의 베뢰야교회 신자들처럼,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행 17:22, 23)아지는 성숙한 교회의 진면목(眞面目)을 드러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1. William Barday, The Apostles' Creed for Everyman(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7), 272.
2. Henry Bettenson,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261~263.
3. Philip Schaff, The Creed of Christendom, Vol. I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7), Vol. I, 474.
4.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서울 : 한국 신학대학 출판부, 1984).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 27권, 48~55. Schaff, 464.
5. L. E. Froom, The Conditionalist Faith of Our Fathers(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65), 115.
6. Schaff, 464, 465.
7. W.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9), 433, 473.
8. Schaff, 465.
9.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vialism(New York: The Macmillan Co., 1926), 52.
10. 김의환, 도전받는 보수 신학(서울 : 서광문화사, 1973), 99, 100.
11. Ibid., 209~214.
12. 기독교 대백과사전(서울 : 기독교문사, 1985), 13, 611.

3. 이단 판별(判別)의 기준

“—론(論)”과 “—관(觀)”의 판별기준

모든 판정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운동경기에는 경기규칙이 있고, 법정의 재판은 법률에 의하며, 선악 간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고 성경은 언급한다(약 2:9, 12). 그렇다면 정통과 이단을 판별(判別)하는 데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탁명환 씨의 말대로,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통적 진리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하고 “정통의 기준에서 위배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¹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탁명환 씨는 이 정통의 기준으로 성경관, 신론, 메시아론, 성령론, 속죄론, 재림론 등 열 가지 항목을 나열했다.²

그런데 문제는 이 “론(論)”이라는 것이 누가 말하는 “론”이며, 이 “관(觀)”이라는 것이 누가 보는 “관”이라는 것이다.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를 들면 탁명환 씨가 정통의 기준으로 제시한 재림론(再臨論)은 전혀 비성서적인 세대주의(世代主義) 재림론이다.³ 이것은 성경에 전적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루터, 칼빈, 웨슬리 등 어느 개혁자도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어 결국이단이 되는 것은 안식일교회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의 창시자들이 모두 이단이 된 셈이다.

성경을 바로 아는 일이 이단의 기준을 세우는 일보다 앞서지 않으면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 인한 논리적인 자괴(自愧)에 이르게 된다. 탁명환 씨는 사도신경, 니케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을 열거한 뒤, 이단이란 “공인된 신앙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을 의미한다.”⁴고 했다.

박영관 씨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도르트(Dort) 종교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삼았다.⁵ 그리고 그의 책 서두에서도 자신이 규정한 이단들을 열거한 뒤, “그들의 역사와 원리 및 현황과 전망을 역사적 칼빈주의 입장에서 비판했다”⁶고 전제했다. 한 마디로, 칼빈사상에 어긋나면 이단이 된다는 결론이다. 교황이나 그들의 종교회의 결정에 어긋나면 이단이 되는 중세적인 로마 가톨릭의 기준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기준이다.

1967년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내용을 바꿈으로써 집안을 다스리는 일에도 권위를 상실한 3백여 년 전의 웨스트민스터 회의(Westminster Assembly) 신조나,⁷ 처음부터 강압적이고 편파적이어서 그 당시 집안 교회들도 대부분 따르지 않았던 도르트 종교회의(Synod of Dort · 1618~19) 결정을⁸ 지금의 집 밖의 교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중세교회가 강요한 모든 전통(傳統)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sola scripture)만이 신앙의 규범임을 부르짖으며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의 개신교 정신에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비록 교파는 다를지라도 모든 교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회전(回轉)해야지, 어떻게 칼빈을 중심으로 돌아가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마치 교황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세교회가,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천동설(天動說)을 뒷받침했던 과오를 또 다시 신학적으로 반복하는 칼빈주의 천동설이 아니겠는가?

박영관 씨는 자신이 설정한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이단 판별기준에 따라 안식일교회를 “교회와 사회에서 노략질하는 이리”, “하나님의 교회에 미지불(未支拂)된 잔고”, “현대 바벨탑을 쌓는 집단”, “제2의 인본주의 그룹”,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단”⁹ 등의 표현으로 혹평하고 있음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이단종파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르틴(Walter Martin)이 지적한 대로,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상기한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아르미니우스(Arminius)의 예지예정설(豫知豫定說)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믿고 있는 감리교를 비롯하여, 성공회, 감독교, 루터교, 일부 침례교, 오순절교회도 모두 이단이 되고 만다.¹⁰ “너희 유전 [傳統]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마 15:6)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주님의 경고를 우리 모두는 늘 기억해야 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사 8:20)한다는 명백한 말씀을 함께 상기해야 한다. 정통이든 이단이든 성경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임을 못 박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참고로 루터와 칼빈을 저주받을 이단으로 정죄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이단 판정기준을 교리 문답서에서 인용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이단의 판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공감하기 바란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단이란 가톨릭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고집을 가지고 이에 반대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세 받은 신자이다.”¹¹

정통 신앙고백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교의 공식적인 이단소송의 첫 번째 피고인, “이단의 괴수(魁首)”로 기소된 사도 바울의 정통 신앙고백을 들어보자.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異端)이라 하는 도(道)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가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행 24:13~16).

정통 신앙의 기수(旗手)인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고백을 자신의 편지서 들에 나타난 신조를 배경으로 종합해 본다.

- 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시된 신격(神格)의 삼위(三位)이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구속사적인 신관).
- ②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곧 모든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것을 신앙의 완전한 규범으로 삼는다(성서 주의적 신앙).
- ③ 성경의 목적이요 중심이신 구주에 관한 약속이, 나사렛 예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구원과 부활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믿는다. 그런데 장차 있을 이 육신의 부활은 의인이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과 악인이 참여하는 심판의 부활이 따로 있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질 것을 믿는다(성서적 종말신앙).
- ④ 이토록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생애를 살고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도덕적 실천신앙).

참으로 일목요연한 정통 신앙고백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부인하거나, 육신으로 오신 것 [成肉身] 을 믿지 않는 것을 적(敵)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규정했다(요일 4:1~3). 또한 참 신앙의 합당한 열매인 올바른 행실을 산출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신앙,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신앙을 모두 같은 범주에 넣었다(마 7:15~23; 갈 1:7~9; 살후 2:3, 4).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미시간 주 이웃 도시인 그랜드래피즈에 소재한 칼빈신학교 교수였던 웨케마

(Anthony Hoekema)씨는 그의 저서에서 칼빈주의 기준에 따라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어리둥절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우리는 재림신자 [안식일교인] 들이 성경의 무오성(無誤性)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그들이 창조와 섭리에 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부활, 그리고 거듭나야 할 절대적인 필요와 성령에 의한 성화(聖化),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재림하심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¹²

훼케마 씨 자신도 인정한 안식일교회의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앞에서 인용된 사도 바울의 정통 신앙고백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훼케마 씨의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태도에 대해 종파 연구의 권위자로 그리스도교 연구소장이었던 마르틴(Walter Martin)씨는 이렇게 비평하고 있다.

“비기독교적인 이단종파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 내게 있어서, 훼케마박사 자신도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가 그것들을 고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위에 열거된 것과 같은 성경적으로 앞뒤가 맞는 그러한 교리들을 엄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비기독교적인 종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¹³

불행하게도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어 안식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된 책들이 거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인 훼케마 씨의 저서에 영향을 받은 것들인데, 박영관 씨의 저서도 훼케마 씨의 것을 대본(臺本)으로 삼았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¹⁴ 훼케마 씨는 같은 칼빈신학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벌코프(Louis Berkhof)와도 여러 상충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등 극단적인 칼빈주의 기수임을 부연해 둔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독자들은 전개되는 비평과 변증을 편견 없이 지켜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심과 이성의 지시를 따라 성경에 입각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결정과 선택 앞에서는 언제나 연약해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과 세상의 운명이 걸린 엄숙한 선택을 위해 보름스(Worms) 국회에 소환되었던 루터가 교황의 사절과 제후들 앞에서 고백한 다음의 역사적인 신앙양심 선언은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것이다.

“나는 나의 믿음을 교황이나 [종교] 회의들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빈번히 잘못들을 범해왔으며, 상충(相衝)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성의 뚜렷한 논증에 의하여 확신되지 않고서나, 내가 인용한 구절들에 의하여 내가 설득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매인 나의 양심을 풀어놓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양심에 어긋나게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으며, 아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¹⁵

참고문헌

1. 탁명환, 기독교 이단연구(서울 : 도서출판 연구사, 1987), 16, 17.
2. Ibid., 42~73.
3. Ibid., 63, 64.
4. Ibid., 43~75.
5. 박영관, 이단 종파 비판(Ⅰ)(서울 :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6), 21, 249.
박영관, 이단 종파 비판(Ⅱ)(서울 : 예수교 문서선교회, 1984), 21.
6. 박영관, 이단 종파 비판(Ⅰ), 머리말.
7. 김의환, 209~219.
8. Schaff, 514.
9. 박영관, 13.
10. Walter Martin, The Kingdom of the Cults(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1985), 436.
11. M. Muller, In "Familiar Explanation of Catholic Doctrine," No IX 1888 ed., 170.
12. Anthony Hoekema, The Four Major Cults(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 1963), 403.
13. Martin, 424.
14. 박영관, 머리말 둘째 쪽.
15. J. H. Merle D' 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k. 7, ch. 8.

Ⅱ. 사도신경과 정통교회

사도들의 신경이 아닌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

애매한 내용

사언이 있는 표현

의심스러운 말 뜻

사도신경을 가장 옹호하는 교회



사도신경과 정통 교회

비평 탁명환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분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 소개한다. 첫째,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여부를 가지고 이단 여부를 판별(判別)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그 많은 교파에도 불구하고 모두다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전 교인이 외운다. 그러나... 안식교 등 모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¹

해설

탁명환 씨가 그의 저서인 「기독교 이단연구」에서 설정한 이단 판별의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이 공중예배시 신앙고백으로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使徒信經)의 사용 여부이다.

먼저 밝혀둘 것은, 안식일교회는 비록 사도신경을 예배시 공중을 위한 신앙고백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반 교회에서의 사용을 비평하거나 그 일반적인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모든 다른 신앙고백들처럼 사도신경도 그것을 정통 신조의 기준으로 삼아 신앙고백 형식을 취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사도신경을 이단 판별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전에, 오늘날 교회들이 쓰고 있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상(眞相)과 허실(虛實)을 바로 아는 일이 앞서야 하겠다. 먼저 사도신경이 제정된 역사적 배경과 그것이 지닌 신학적인 문제점을 밝힌 후에,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공중 신앙고백으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밝히고자 한다.

사도들의 신경이 아닌 사도신경

첫째, 사도신경 곧 사도들의 신조(the Apostles' Creed)는 그 이름과는 달리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신조도 아니고, 사도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도 아니다.² 그러므로 권위나 정통성에 있어서 십계명이나 주의 기도무과는 차원이 다르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의 말처럼 사도신경은, “일찍이 만들어진 것 가운데 그렇게 짙막한 것으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최선의 대중적인 요약”이기는 하지만, “이 신조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증가된 단계를 위한 공식적인 교리의 기준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³

만약 사도신경이 각 시대의 정통신앙의 기준이 될 만 했다면 그 후에 니케아신조(325년)나 칼케돈(451년) 신조가 다시 나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 교파들이 저마다 신조를 만들어 30개도 넘는 신조가 양산(量産)되어 이전 것을 대신하거나 보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기의 신조들을 방편으로 현대 교회들의 일치된 정통성을 이룩하려는 시도의 부당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평가가 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조 등을 기초로 교파들을 연합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 자란 성숙한 어른을 아이들 상태로 돌아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⁴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

둘째, 염두에 깊이 두어야 할 일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이다. 복음서에 기

록된 신앙고백(마 16:16; 28:29)을 기초로 한 단편적인 신조가 2세기 초중반부터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사도신경의 모체가 된 것은 서기 400년경의 라틴어로 된 「로마교회 구 신조」(the Old Roman Creed)임이 밝혀졌다.⁵

그러나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회나 개신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이와 같은 「로마교회 구 신조」가 아니고, 그 이후 300여 년 동안 서방의 여러 교회들이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신조에 맞게 내용을 수식한 것으로서⁶ 서기 700년경 비로소 지금의 것과 같은 내용을 갖추게 된 개정 신조이다.⁷

서기 900년경이 되어서야 이 사도신경이 동방을 제외한 모든 교회들에서 공식적으로 쓰여졌다. 동방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사도신경을 결코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한 바가 없었고, 그 대신 동서방교회가 함께 그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니케아 신조(325년)를 택하여 썼다.⁸ 뒤에 설명되겠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사도신경 대신 니케아 신조를 신앙고백으로 택한 동방교회는 앞에 제시된 이단 판별기준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단이 되고 만다. 논증에는 논리가 서야 하고 기준에는 보편성(普遍性)이 있어야 하겠다.

애매한 내용 —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셋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신학적으로 석연치 않은 째름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지금의 사도신경은 서기 700년 이후 갈리아 [프랑스] 지방에서 형성된 것을 당시의 로마교회가 최종적으로 수용(受容)한 것이다.⁹ 그런데 이 8세기 신조에는 그 전의 구 신조에는 없던 여러 마디의 수식어가 첨가되어,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애매(曖昧)하게 하고 있다.

첨가된 10여 가지 표현 가운데, 특히 신학적으로 주목이 되는 두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구 신조에는 없던 구절, 곧 “지옥(hell)에 내려가셨다가(hedescended into hell)”라는 삽입구가 첨가되었다.

이러한 표현대로라면,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 계셨던 삼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된다. 이 문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이단이 된 아리우스파의 신조에 처음으로 나타났는데(359년), 점차 퍼져나가다가 결국 8세기에 개정된 사도신경에 정식으로 삽입된 것이다.¹⁰

이 곳의 “지옥”(hell)은 본래 헬라어의 “하데스”(hadēs)나 히브리어의 “스올”(sheol)로서 후에는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무덤 곧 음부(陰府)이다(창 37:35; 시 16:10, 88:3 등).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사도신경 해설에도 이 말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단어 [지옥] 는 악인들이 형벌 받는 곳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 영어 지옥(hell)은 성경의 용어 ‘스올’이나 ‘하데스’와는 다른 뜻이며 또 사도신경에도 적당치 않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때에 그는 분명히 지옥을 h가시지 않았다.”¹¹

이러한 비성서적인 표현은 영혼불멸을 주장해 온 로마 가톨릭교회의 연옥설(煉獄說)과 상통(相通)하고 있음을 교리사(敎理史)에서도 쉽사리 찾게 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 음부 곧 ‘하데스’를 일종의 연옥으로 보고,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삼일 동안에 그의 영혼이 연옥의 한 부분인 림보(Limbus)에 내려가 구약시대의 의인의 영혼들을 구속(救贖)했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에 이용하고 있다.¹²

이러한 비성서적인 표현은 개신교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문맥을 무시한 채 인용된 성경의 다른 표현들(벧전 3:19; 벧후 2:9; 눅 16:23)과 어울려, 개신교의 연옥에 해당되는 중간상태(中間狀態)

라는 엉뚱한 교리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했다.

이 중간상태란 사라이 죽은 후 부활 때까지 영혼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물론 칼빈주의 기본신조에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헤케마(Anthony Hoekema)씨는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동원하여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다수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¹³ 국내에서 번역되어 발간한 또 다른 「사도신경 강해」에도 이 사실이 아래와 같이 드러나 있다.

“주께서 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사도신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쟁거리를 일으켰다. 사실상 어떤 신조에서는 이 표현을 임의대로 수정하든지 혹은 아예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써, …“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옥에 옮겨 놓으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원의 소식을 거지 나사로와 또는 누우친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에게 가져다 준 것임을 암시해주는 것이다.¹⁴

바로 이것이 무제이다. 성경의 어느 곳, 어느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계시던 3일간 거지 나사로와 회개한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가? 앞서의 영혼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또 하나의 개신교 연옥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신학적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러한 혼란 때문에 미국의 감독교회는 1789년에 제정한 기도서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아예 삭제하거나 다른 표현을 쓰게 했다가, 1892년에는 이를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자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영적인 의도로도 해석하지만 모두 궁색한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역사적 배경과 본문의 의도에 빗나간 것이다.

오늘날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거의 모두가 “지옥에 내려가셨다”(He descended into hell)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들이 쓰고 있는 사도신경도 물론 8세기에 개정된 것이면서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삭제한 채 적당히 통용하고 있어 교리적인 혼란은 모면하고 있지만, 문서의 역사적인 정확성과 신학적인 정직성은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신학적으로 깊이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사언이 있는 표현—“거룩한 공회”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삽입구는 교회에 관한 것인데, 5세기의 「로마교회구 신조」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교회(the Holy Church)를 믿사오며”로 되어 있다.¹⁷ 그러나 8세기 개정신조에는 거기에 “가톨릭”(Catholic)을 첨가하여, “거룩한 가톨릭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를 믿사오며”로 표현했다.¹⁸ “가톨릭”(Catholic)의 뜻은 본래 “보편적” 혹은 “세계적”(universal)이란 뜻이어서 일반적으로 쓸 경우에는 구태여 로마가톨릭교회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신경에 쓰여진 배경은 그 역사 때문에 전혀 다르다. 그 당시 이미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공언하고 나선 로마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교회의 머리로서 땅 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말의 뉘앙스〔音調〕가 다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에 서방의 로마교회와 지상권(至上權)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던 동방의 회랍교회가 자신을 “거룩하고, 정통적이며, 세계적 [가톨릭 • catholic] 인 사도직의 동방교회”로¹⁹ 부르고 있던 때라, 서방의 로마교회가 이 “가톨릭”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하자 자기 이름을 도적맞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리하여 동방교회는 로마교회의 권위주의적인 독선(獨善)을 드러낸 사도신경을 배척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동방교회의 영역에서 제정된 유서 깊은 니케아신조(the Nicene Creed)를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고집한 이유를 알게 된다.²⁰ 아울러, 역사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교회가 사도신경을 굳이 사도들의 직접적인 작품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깨닫게 된다.²¹

한국교회들이 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거룩한 가톨릭교회”의 표현을 그쳐, “거룩한 공회(公會)”라고 했는데, 이 “공회”란 말은 본문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애매한 뜻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난관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한영 찬송가」에 함께 쓰여진 영문 사도신경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써서 그것이 8세기의 개정 신조임을 드러내고 있다.²²

의심스러운 말 뜻—“성도가 교통하는 것”

또 다른 문제의 삽입구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the communion of saints)이다.²³ 이곳의 “교통”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나 인간과의 교제를 나타낼 수 있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koinōnia)인데, 여기서는 그 문법적인 성격을 보아 성만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제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²⁴ 그런데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교제”를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성자숭배(聖者崇拜)와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리적 근거로 오용(誤用)하고 있다.²⁵

물론 성경적인 의미의 성자(聖者)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인 “성도”(聖徒・saints)를 가리키지만(고전 1:2), 로마 가톨릭의 성자는 죽은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야 특별한 심의를 거쳐 서품(敍品)되는 비성서적인 개념이다. 또한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은 사단의 속임수로(삼상 28:8~19), 성경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사 8:20; 신 18:11, 12).

사도신경을 가장 옹호하는 교회—로마 가톨릭교

이러한 교리적인 이유와 역사적 배경 때문에라도 사도신경을 가장 옹호하고 두둔하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임을 다음에 인용하는 교리해설서에서도 일별할 수 있다.

증언 가톨릭

“성 레오(St. Leo)는 아무도 이 [사도] 신경에 대해 무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막시 무스(St. Maximus)는 이 신경(信經)에 무지한 영세 받은 신자들은 그의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최대의 적(敵)으로 간주했으며, 오늘날에는 자신들의 교리를 모르는 가톨릭 신자들을 이유 없이 믿음의 최대의 적들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성 토마스(St. Thomas)는 이 신경에 대하여 고의로 무지하게 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로 간주했다.”²⁶

한 마디로 사도신경에 무지(無知)하면, 신앙의 최대의 적, 곧 이단이 되고, 동시에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대의 적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탁명한 씨가 설정한 이단 판별의 기준은 중세적(中世的)인 로마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힘 있게 대변(代辯)한 데 불과하다. 사도신경에 대한 충성 여부를 정통과 이단의 판별 기준으로 삼는다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최선의 정통이 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확인된 개신교의 정신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만이 신앙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는 1546년 4월 6일, 개회 중이던 트론티 종교회의의(1545~63) 제 4회기 동안, “성경과 전통(傳統)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용납되어야 한다.”²⁷ 치명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참 신앙의 뿌리를 찾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식(良識)이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이러한 비성서적인 기준을 가지고 형제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정죄해서야 되겠는가 자문해 보라.

결론

서두에서 밝힌 대로 안식일교회는 사도신경의 일반적인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공중예배시의 신앙고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죄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제정한 모든 신조가 그렇듯이 사도신경 역시 그 역사적 배경이나 성경적인 빛으로 볼 때에 그것을 예배시의 공적인 신앙고백으로 무조건 택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사도신경 해설」을 저술한 도날드 콜(C. Donald Cole)의 솔직한 고백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와 같은 찌찌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²⁸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공중예배의 신앙고백으로 택하기를 꺼리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의 목적이 양심적으로 의심 없이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도신경을 정통과 이단을 가리는 판별 기준으로 삼아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은 명백히 성경의 원칙과 그리스도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傳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마 15:3)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교훈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사도신경 사용 여부로 형제의 신앙을 비평하는 일은 성서 신앙에 철저히 어긋남을 일러두고 싶다.

판단

지금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관한 이상의 비평과 변증을 지면을 통하여 참여한 독자는 어떠한 이해에 이르렀는가? 교과에 관계없이 모두의 신앙의 기초를 오직 성경에만 두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지 않은가? 인간이 제정한 신조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전통(傳統)이 되어 그릇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위험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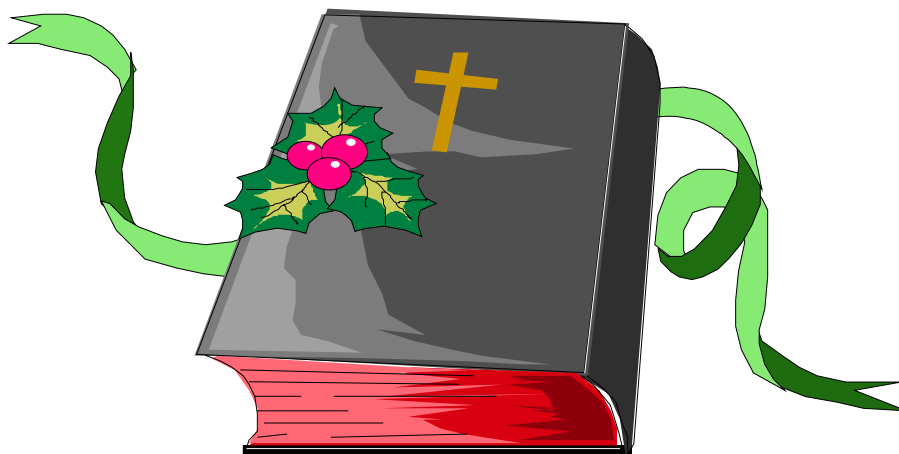
사도 바울의 신조처럼, 성경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딤후 3:15~17)게 하는 유일한 정통 신조임을 재확인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자문자답(自問自答)해 보자.

참고문헌

1. 탁명환, 75.
2. Schaff, 14.
3. Ibid., 15.
4. J. L. Neve, Churches and Sects of Christendom(Burlington, Iowa: The Lutheran Literary Board, 1940), 29.
5. Seven Members of the Faculty of the Episcopal Theological School, Creeds and Loyalty(New York: The MacMillan Co., 1924), 3. Schaff, 19.
6. Schaff, 19.
7. Daniel Lamont, The Church and the Creeds(London: James Clarke & Co., Ltd., 1923), 30.
8.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968.
9. Schaff, 19.
10. Ibid., 21.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395.
11. 도날드 콜, 오창윤 역, 사도신경 해설(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4), 75, 76.
1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6), 687.
13. Ibid., 679~681.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 Co., 1979), 101, 102.
14. 부르스 로커비, 문석호 역, 사도신경 강해(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77), 58.
15. 앞서 취급된 「부활 신앙과 영혼불멸 사상」에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23장 42절의 십자가 강도에 관한 비평과 논증을 참조할 것.
16. Greeds and Royalty, 12.
17. Schaff, 21, 22.
18. 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out the Centuries(Grand Rapids: Zondervan Publ. House, 1981), 159.
19.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1014.
20. Schaff, 16, 23, 28.
21. Authur Devine, Creed Explained(New York: Benziger Brothers, 1892), 43~48.
22. 한국 찬송가 공회 편지, 한영 찬송가(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4), 표지안쪽.
23. Schaff, 21.
24. Jan Milic Lochman, The Faith We Confess(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209.
25. Stephen Benko, The Meaning of Sanctorum Communio(Naperville: Alec R. Allenson Inc., 1964), 118.
26. Divine, 47.
27.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1388, 1389.
28. 도날드 콜, 80.

Ⅲ. 안식일 제도와 일요일 준수

1. 안식일 제도의 성경적 근거
2. 안식일 준수와 율법주의
3. 안식일과 칠일 중 하루
4. 일요일에 관한 성경의 진술
5. 안식일과 초기 교부 문서
6. 안식일과 장래 일의 그림자
7. 안식일과 개인의 확정
8.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
9. 사도시대 이후의 안식일 준수
10. 일요일 준수와 진정한 예배



1. 안식일 제도의 성경적 근거

비평 박영관

“안식교는 한 마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수하는 것은 성경해석의 잘못에서 왔고, 더욱이 환상적 신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교의 토요일 예배는 역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¹

해설

비평에 의하면, 안식일교회가 이단인 으뜸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반 신, 구교에서 성일로 준수하는 일요일 대신에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되는 일곱째날을 안식일로 성별하여 지키는 것이다. 박영관 씨에 의하면, 이와 같은 안식일 준수는 성경에 근거도 없고, 역사적 증거도 없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것으로, 안식일교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유대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라는 비평이다. 안식일에 관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신앙은 아래와 같다.

“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칠일에 안식하셨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제칠일 안식일을 휴식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主)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실천에 일치하는 봉사의 날로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 피차의 즐거운 교제를 위한 날이다.

이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속(救贖)의 상징이요,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됨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경험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영속적인 표징(sign)이다. 일몰로 시작되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의 이 거룩한 시간을 즐거움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축하하는 것이다.”²

안식일에 관한 이러한 성서적 신앙이 참으로 정죄 받아야 할 이단의 신조인가?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박영관 씨의 비평은 성경에 일치하는 정통신앙의 신조가 될 만한 것인가?

변증

성경을 단 한번 만이라도 차분히 읽고나면 자명(自明)해지는 대답이다. 우선 신, 구약 성경을 기초로 안식일의 기원과 역사 및 의의(意義)를 간단히 밝힌 후에 항목별로 비평에 답하고자 한다.

창조의 이상—행복의 시간과 공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히 3:4)이시다. 집마다 준공일이 있고 제품마다 제조일이 있듯이 지구도 창조가 마쳐진 날이 있음에 틀림없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시니라”(창 2:1~3).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안식일의 역사적 기원이며 성경적인 근거이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결혼제도와 더불어 창조와 동시에 분명한 목적과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바로 결혼시키셔서, 생명이 태어나는 요람이요, 행복을 경험하는 안식의 공간(空間)인 가정이라는 안식처(安息處)를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해가 지면서 시작된 제철일을 안식의 시간(時間)으로 성별하심으로써, 거룩한 시간과 행복의 공간이 서로 만나 이루어지는 숭고한 창조의 기념관에서 인류 창조의 영원한 이상을 실현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창조의 처음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허니문[蜜月]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역사는 안식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주권과 예배의 근거인 창조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식을 낳았다[出產]는 데 있고, 자녀들로부터 합당한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도 역시 그들을 낳았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은 창조(創造)에 있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주권(主權)의 근거도, 인간에게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까닭도 창조에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 4:11).

그러므로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창조하지 않았으면서도 경배를 받으려는 신은 거짓 신이요, 우상(偶像)인 것이다(사 40:18~25). 그러므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것이다(출 31:13; 겔 20:12). 그것이 넷째 계명에 명시된 바, 사람이 안식일을 기념해야 할 이유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제 2의 창조인 구속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理想)은 깨어지고, 주권은 침해를 당하였고 인간은 불행과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자식에 대한 드높은 이상을 실현하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염원이듯,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고, 짓밟힌 주권을 회복하고 빼앗긴 인간의 행복을 되찾아 주시려는 열렬한 소원으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다(창 3:15). 이 계획이 구약의 역사에서 실증(實證)된 것이 출애굽 사건이요, 신약에서 성취된 것이 십자가인 것이다. 그것이 제 2의 창조인 구속(救贖)인 것임을 다음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신 5:15)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이리하여 본래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출애굽을 통하여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救贖]의 기념일로서 새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것은 마치 광복절로 기념되는 해방이 없이는, 개천절로 기념되는 개국(開國)도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즉 본래 지구 창조의 기념일[개천절]이었던 안식일이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광복절]로서의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창조 당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창 2:1)는 창조 선언이 있었듯이, “안식일이 거의 되었”(눅 23:54)던 같은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후, “다 이루었다”(요 19:30)는 구속(救贖)의 선언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구약의 역사적인 구속(救贖)인 출애굽은 성력 1월 14일인 유월절, 곧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양을 죽여 피를 바름으로 이루어졌다(출 12:1~11).

그 후 신약에서 같은 유월절이며, 동시에 제칠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같은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심으로써(요 19:31),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救贖)을 함께 성취시킨 역사적인 기념일임을 확증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주일에,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눅 23:56)는 기록은 십자가 때문에 안식일이 결코 단절(斷絶)되지 않았음을 확신시키려는 복음서의 의도인 것이다.

순종의 시금석(試金石)

출애굽의 목적은 구속(救贖) 곧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었으며, 해방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분인 예배에 있었다(출 4:22, 23, 5:1, 3, 8:27, 10:8, 9, 25, 26). 이 목적은 출애굽과 동시에 실현되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속량(贖良)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사람의 본분인 예배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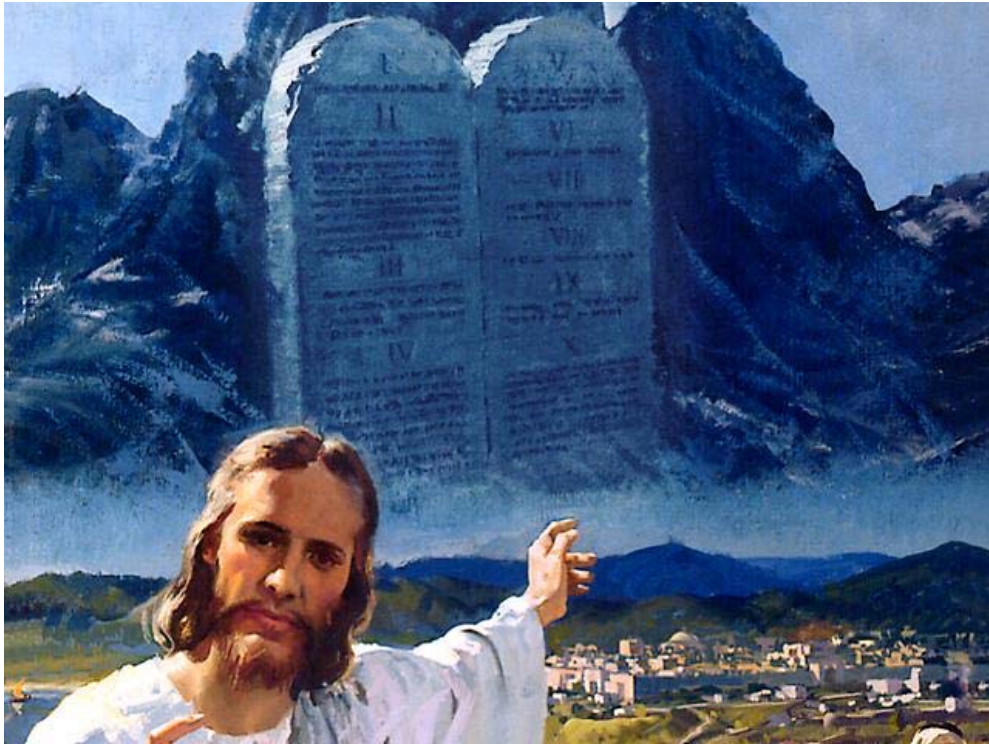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실 때 제 6일에는 두 배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안식일에는 애굽에서처럼 먹고 사는데 엽매인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치셨다(출 16:23~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거두러 나간 백성들을 견책하시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 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출 16:28, 29)임을 밝히셨다.

이와 같이 십계명이 있기 전부터,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심을 시험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되었다.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진 후에도, 안식일 준수의 의미는 더욱 강화되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表徵)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출 31:13)고 재확인하셨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안식일 준수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구약시대의 안식일

이러한 안식일 제도의 중요성은 그 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단히 강조되었다(사 56:6, 7, 58:1, 3, 14, 66:23; 렘 17:19~27).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또한 후에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 되어 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무시하고 고의로 더럽힘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겔 20:10~13, 16:24; 렘 17:27; 느 9:13~17).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구속주가 되셨으며, 십계명의 입법자로서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일

약속된 메시야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시작된 신약시대는 안식일 제도에 어떠한 변화나 새로운 의의(意義)를 가져 왔는가? 예수께서는 친히, “인자(人子)는 안식일의 주인”(막 2:28; 마 12:8) 곧, “안식일의 주(主)”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구약에서 거듭거듭 “여호와와 안식일”, “나의 안식일”(출 20:10; 신 5:14; 사 58:13)이라고 선언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자신과 동일시하셨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안식일의 주(lord)”라는 말씀으로, 안식일에 관한 당신의 주권을 강조하심으로써, 당신의 권위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임을 천명하신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을 주목하여 보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同等)으로 삼으심이러라”(요 5:18).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고발된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까지도 정죄한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약 학자인 전경연 씨도 이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예수는 안식일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사회에서 안식일을 까다롭게 만든 율법 학자들의 궤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³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최고의 주권자로서 안식일의 본래 목적대로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

고,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창조주의 능력을 주로 안식일에 드러내셨다(마 12:11~13; 눅 13:10~17, 14:1~6). 이와 같이 예수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안식일에 대한 당신의 주권(主權)을 주장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창조주로서의 신분을 밝히신 것 이상으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오해하여, 마치 예수께서 안식일을 무시하여 고의로 범하신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곡해(曲解)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일요일을 주일로 옹호하고 있는 현대 신학자인 주이트(Paul K. Jewett)도,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대한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한 것뿐이었다.”⁴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을 폐지하지 아니하셨다”⁵고 시인하고 있다.

증언 주이트

“사도들과 초대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이 예수는 구약을 성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안식일을 최고의 윤리 법전인 십계명에다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⁶

예수께서는 인간의 전통에 짓밟혀 본래의 의의를 상실한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불사(不辭)하셨다.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 누가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일을 하겠는가? 또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눅 4:16)시는 등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셨음을 뚜렷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안식일의 존속(存續)을 결코 단절(斷切)시키지 않았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이방인을 위해 쓰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 안식일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눅 23:56)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예언과 안식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식일 제도가 약화되는 대신 더욱 강화되었음은 그것이 창조의 기념에서 구속(救贖)의 기념으로 증폭(增幅)되었음과 더불어 확고해졌음이 다음의 사실로도 확인된다. 서기 31년 십자가에 달리시던 마지막 주간에 감람산에서 행하신 고별설교에서, 당신을 거절한 예루살렘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마 24:20, 21)고 예고하셨다. 예고된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가피할지라도(단 9:26), 그리스도인들이 찬 비가 내리는 음산한 팔레스틴의 겨울에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 피난하는 어려움과 함께, 거룩한 안식일에 피난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기도드리라는 간곡한 말씀이다.

과연 예언 그대로 서기 70년 9월 로마군에 의한 오랜 포위 끝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100여만 명이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대파멸을 겪었다.⁷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고하신 말씀을 따라 사전에 요단강을 건너 펠라(Pella)지방으로 피난하여 멸망에서 벗어났다. 십자가 이후 거의 40년 만인 서기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대파멸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안식일임이 주님께 의하여 확인되었다면 그 이상의 논증이 필요 없지 않은가?

사도시대의 안식일

서기 49년경에 열렸던 그리스도교 제 1차 세계총회 격인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사도들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야기된 교리적인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 때에 유대인들에

게만 해당되는 의식적인 율법인 할례문제는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행 15:7)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행 15:19~21).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안식일 준수 여부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거론되지 아니한 이유와 같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정(既定) 사실은 아예 취급하려 하지도 않은 것이다(행 15:5~11).

이와 같이 사도시대 동안도 제칠일 안식일이 변함없이 준수되었음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행적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주님의 본을 따라 이방 땅에서도, “자기의 규례대로 저회에게로 들어가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행 17:2)하였고, 또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여(행 18:1~4, 11, 13:14, 42~44, 16:12, 13), 사도행전에만 84회의 안식일 준수가 함축되어 있다.⁸

만약 안식일이 이방인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의식적인 율법이었다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제칠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사실을 분명히 밝혔을 것이다. 그러나,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행 20:27)고 고백한 바울은, 의식적인 율법인 할례는 한사코 반대했으면서도 안식일은 자신이 먼저 준수하여 숭선수범했다(행 21:20~24).

마지막 때와 안식일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요, 탄원인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에는 안식일과 직접 관련된 중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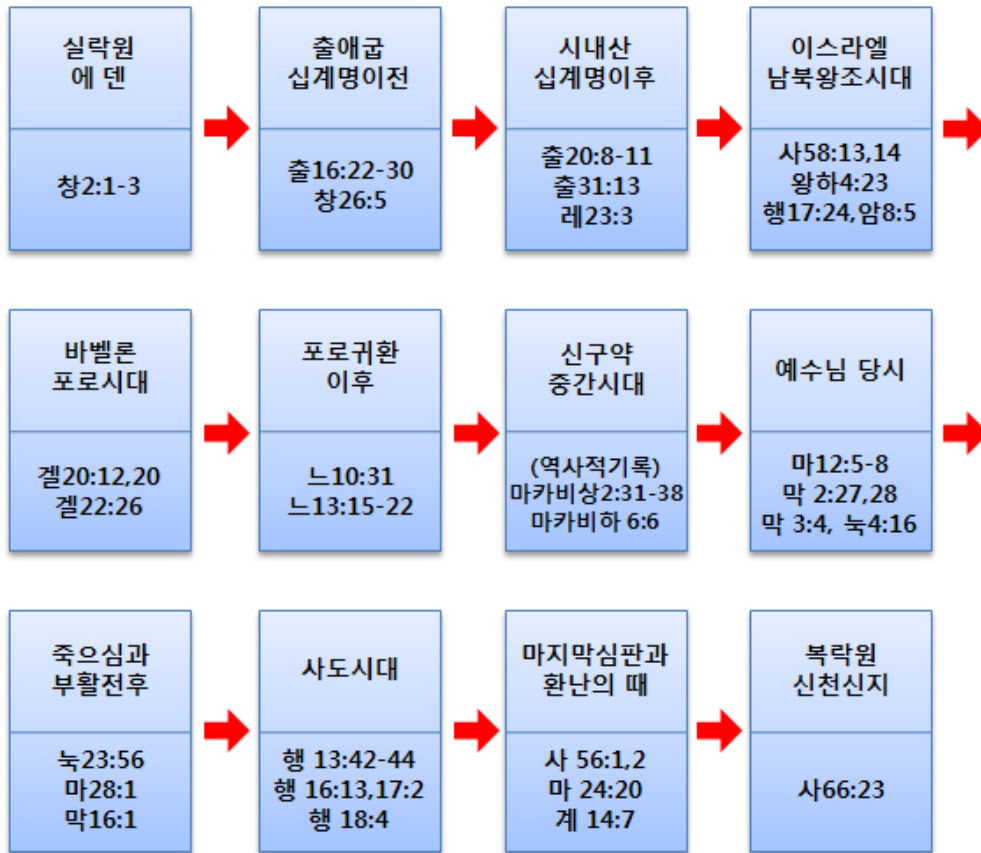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창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창조주로서 합당한 경배를 받으신다(사 43:7).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일은 사람의 본분이요, 이에 대하여 각 사람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안식일의 목적이 바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출 20:11)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러한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로 특징지워져 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안식일이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할 것이다(사 56:1, 2).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일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록에도 나타난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사 66:23)고 기록했다. 또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業)으로 기르리라”(사 58:13, 14)는 영원한 축복을, “여호와의 입의 말”(사 58:14)임을 단서로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죄로 잃어버린 실낙원(失樂園)에서 구속으로 다시 회복될 복락원(復樂園)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의 역사적 일관성(一貫性)은 아래와 같이 성경 전체에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다.



이제까지 복습을 겸하여, 신, 구약 성경을 기초로 안식일의 역사적인 기원과 성경적인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토록 분명한 성경의 증거를 확인하면서, 제칠일 안식일 곧 오늘날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수하는 것은 성경해석의 잘못에서 왔고…안식교의 토요일 예배는 역사적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라고 비평한 박영관 씨의 비평이야말로 참으로 역사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도 없는 허구(虛構)한 논증임을 안타까움을 느끼며 지적할 수밖에 없다.

2. 안식일 준수와 율법주의

비평 박영관

“안식교는 한 마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수하는 것은 성경해석의 잘못에서 왔다.”⁹

안식일의 역사적 기원과 성경적 근거는 앞서 밝혔거니와, 안식일을 준수 하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라는 비평을 따로 떼어 변증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

변증

이상과 같은 비평은,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일요일은 그리스도인의 성일 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안식일은 창조와 동시에 제정되어, 아담 때부터 존속된 제도이므로, 범죄와 상관이 없고, 유대인과의 상관이 없고, 의식적인 율법이나 십계명과의 시대적으로 상관이 없어, 안식일을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 국한 시키려는 시도는 비성서적이다.

“안식일에도 주인”(막 2:28)이신 예수께서도, 안식일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막 2:27)이라고 천명하셨다. 창조와 동시에 안식일과 함께 제정된 결혼제도가 (창 2:21~24) 유대인 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과 같다. 결혼제도가 안식의 공간(空間)인 가정을, 제칠일이 안식의 시간(時間)인 안식일을 제공함으로 이 시간과 공간의 만남 속에서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람끼리 함께 사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신 창조의 기본 질서인 것이다(출 20:8~11).

이미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만민의 안식일, 이방인의 안식일, 심지어 육신적인 미래가 없는 불구자 [鼓子]의 안식일등으로 규정하여 안식일의 시대성이나 민족적 제한을 철폐하였다(사 56:3~7).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사 56:2).

그리하여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만을 위한 의식법(儀式法)인 할례는 폐지시켜 결코 요구되지 않았지만, 안식일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의 없이 공유(公有)했음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

박영관 씨의 비평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이 지킨 안식일을 준수한 사람은 모두 율법주의자가 되는 셈이다. 그 가운데는 어린시절부터 돌아가시기까지 평생을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 예수님(눅 4:16)을 비롯하여, 역시 유대교 모태교인으로 “자기의 규례대로”(행 17:2) 평생 안식일을 지킨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이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강조한 모든 노독들과 선지자들도 모두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빗나간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단정은, 두 개의 전제(前提)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논법인 삼단논법(三段論法)을 잘못 적용한 착각의 결과일 수 있다. 즉,

대전제 :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 주의자였다.

소전제 : 바리새인들은 모두 철저한 안식일 준수자였다.

결론 : 그러므로 오늘날도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이다.

만약 이와 같은 잘못된 논리 전개가 사실이라면 견잡을 수 없는 엉뚱한 결론들이 속출하게 된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이외에도 십일조, 헌금, 구제, 금식기도 등에도 철저한 사람들이었다(눅 18:11, 12).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까?

대전제 :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다.

소전제 :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십일조와 헌금, 구제, 금식기도를 실천했다.

결론 : 그러므로 오늘날도 십일조와 헌금 및 구제와 금식기도에 철저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이다.

십일조와 헌금, 구제와 기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추리(推理)의 착각(錯覺)이다. 안식일이나 십일조, 헌금, 구제가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다. 곧,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더 중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진상이 뚜렷해졌다. 십일조와 헌금, 안식일 등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게 됨으로 결국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되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지만, 의의 표준인 율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범하는 사람들은 “무법한 자”(벧후 2:7, 3:17), 혹은 “불법을 행하는 자”(마 7:23, 13:41; 딤후 1:8, 9)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편견 때문에 판단의 논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비평 탁명환

“안식교는 토요 안식일 성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개신교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과 관련지어 율법적인 토요 안식일 대신에 안식 후 첫 날 예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것이다.”¹⁰

탁명환 씨는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제칠일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인 안식일로 규정하고, 안식일교회가 안식일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고 비평하고 있다. 그리고 일요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일(主日)로 옹호하고 있다.

율법주의와 무법주의

변증

“앞에서 밝힌 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섯째 계명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여덟째 계명대로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둘째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목숨까지 빼앗긴 순교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넷째 계명에 따라 성경적인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만 율법주의자가 되는가?

율법주의자란 율법을 지킨 자신의 선행을 의로 삼아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만큼이나, “무법(無法)한 자”나 “불법(不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 역시 율법주의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마 7:23; 벧후 3:17; 살후 2:3, 7, 8).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행위도 결국 율법을

준수하려는 일임에는 마찬가지로 아닌가?

안식일 준수와 구원

안식일 주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비평 역시 옳지 않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가? 이러한 질문은 구태여 안식일에만 국한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구원을 얻는가?”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구원을 얻는가?” 모두 같은 성질의 질문이다.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어도 구원받지 못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를 망설인다. 마찬가지로 무법(無法)한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갈 5:19~20; 딤후 3:2~5)임을 명시한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꺼린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고 대답은 무엇인가?

앞에서 밝힌 대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개천절과 광복절의 의미가 포개진 경우이다(신 5:12~15).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광복절을 지켜야 해방되는가?”라는 질문과 같아진다.

논리적으로 틀린 질문에는 바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다. 태어난 사람에게는 생일이 있고, 해방된 민족에게는 광복절이 있듯이 창조와 구속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안식일의 존재와 필요가 절실히 있다.

창조 때부터 존재한 안식일이 실제로 도덕의 법칙인 십계명과 함께 성문화(成文化)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인 시내산에서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이 구원의 근거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 구원의 근거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십자가이다(고전 5:7).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출 20:2)고 전제하신 후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지키도록 명하셨다. 안식일의 경우는 이 사실이 더욱 강조되었다(신 5:15).

구원의 결과인 안식일

분명해졌듯이, 십계명이나 안식일 준수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명시되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바 구원을 보존하고 경험하는 방편이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독립기념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미국에 영주 이민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았어도 미국이 호의로 발급한 사증(査證・비자)을 근거로 이민 자격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엡 2:8, 9).

그러나 일단 자격을 얻어 이민하면, 미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민(移民)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시민(市民)의 자격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고도 고의로 법을 범하거나 무시하면 추방되거나 시민의 권리를 법에 따라 제한 당한다. 천국 시민의 특성과 자격을 선포한 산상 설교에서 예수께서도 십계명의 중요성과 의의를 확대하셨음을 주목할 것이다(마 5:7~48, 7:12~27).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도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그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노독들이 일부다처(一夫多妻)의 관습을 따랐음을 본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축첩(蓄妾)이 죄가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이혼 등 이러한 도덕적 표준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 세대의 완악함과 어두움을 지적하신 후 성경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3~10)고 단언하셨다.

성경은 각 시대의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받은 빛이나 특권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마

11:20~24, 25:24~28; 요 9:39~41; 롬 2:12~23).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이제는 어디든지”라는 표현을 통하여 심판의 시의성(時宜性)을 강조했다(행 17:30, 31). 그것이 또한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며(계 14:6~12), 로마서에 제시된 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을 강조한 심판의 문화적 배경이기도 하다(롬 2:1~11).

심판의 표준인 십계명

여하튼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로 거저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믿음의 진실한 여부를 드러내는 열매, 곧 행실(마 7:16~21)을 심판하는 표준임에는 틀림없다(약 2:8~13). 십계명의 기능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롬 3:20),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을 죄로부터 보존하여 거룩하게 하는 성화(聖潔)의 방편이요, 표준이 된다(롬 7:7, 13). 특별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인줄 알게 하려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겔 20:12)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에서(계 14:6~11), 의롭게 서게 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라고 명시된 것도 그 까닭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믿음의 결과인 행실(行實)을 판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마 16:27; 계 22:12).

그러므로 안식일을 비롯한 십계명의 권위를 비평하려 할 때는, “자유의 율법 [십계명] 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 2:12)는 권면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약 2:9)는 기능과 불변의 권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롬 3:31)운다는 사실을 복음의 구조에서 이해해야 한다.

부활의 기념과 일요일

비평에 나타난 대로,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제칠일 안식일 대신 첫째 날인 일요일을 준수하는 이유로 부활의 기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으로 지키는데 대한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가?

가. 실제의 날짜는 아니지만,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지키고, 부활절은 부활을 기념하여 지킨다. 일년에 한번씩 부활절로 부활을 기념한다면 왜 또 일요일을 지켜 부활을 이중으로 기념하는가? 창조는 옛세 동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칠일마다 안식일을 지켜 창조를 기념하는 것은 기념일로서 논리가 서지만, 부활이 일요일에 있었다고 매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일로 삼는 것은 논리가 부당하다. 만약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월요일이라 해서, 성탄절과 함께 매 월요일을 탄생기념일로 지킨다면 얼마나 이상한 기념방법이 되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킨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돌아가신 여섯째 날인 금요일도 기념할 만한 날이 아닌가?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 사건(史實)이므로 기념해야 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사건을 기념하는 특별한 방법을 친히 제정하시고 준수하도록 명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의식이 성만찬 예식이다(고전 11:23, 24; 마 26:26~29). 돌아가신 여섯째 날인 금요일이나, 성력 1월 14일 유월절을 날짜로 기념하라고 아니하시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고전 11:25, 26). 십자가에 죽으심을 언제나 어디서나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 기념하게 된다.

다. 부활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물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침례]
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벧전 3:21).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니…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
합한 자가 되리라”(롬 6:4, 5).

예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 모본을 보이신 침례가(마 3:13~17) 곧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 된 것이
다.

라. 그런데 중생과 부활의 기념인 침례를 성만찬처럼 자주 기념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예
수께서 성만찬을 집전하시기 전, 이미 침례를 받음으로 “중생의 씻음”(딤후 3:5; 행 22:16; 히 10:22)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요
13:10)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침례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洗足)예식으로 대신하신 후, “내가 주
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
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요 13:14, 15)고 하셨다. 이처럼 세족예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할뿐더러 행하도록 모본까지 보이시며 명하셨는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예식을 등
한히 하면서, 명하시지도 않은 일요일 준수로 중생과 부활을 기념하려고 하는가?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만찬으로, 부활과 중생은 침례와 세족예식으로 기념하도록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준수하도록 명하셨다. 이리하여 세족예식을 겸한 성만찬과 침례는 그리스도교 신
앙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두 성례전(聖禮典)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
는 것이다. 부활의 기념으로 일요일을 성수(聖守)하는 것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논리에
도 맞지 않는 일이다. 시간 곧 날짜와 연관시켜 기념하도록 명하신 것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제
칠일 안식일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3. 안식일과 칠일 중 하루

비평 박영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과 관련하여, 적극적이며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서 하나님은 특별히 칠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출 20:8, 10, 11; 사 56:2, 4, 7).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일의 마지막 날로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¹¹

박영관 씨는 17세기 (1646~47)에 채택된 장로교의 기본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안식일은 굳이 일곱째 날일 필요가 없고, 칠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일 수 있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그 하루가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었으나, 부활 이후에는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거듭 강조한다.

제칠일과 칠일 중 하루

변증

고정된 제칠일이 아니라, 칠일 중 아무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도록 명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아무 데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궤변이다. 그것은 1643년 영국의 의회가 소집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제정하고 1648년 의회가 이를 인준한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근거하고 있다.¹² 종교회의의 결의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존중하면, “너희 유전(遺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마 15:7, 9) 것으로 간주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에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도시대 이후 소집된 모든 대회나 총회는 세계적이든 지역적이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회의들이 이 오류를 범해 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신앙이나 실천의 규준이 될 수 없으며, 다만 보조적인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¹³ 여하한 종교회의의 결의사항이라도 성경을 대신하여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의 조직신학자로 자신이 주일 성수론자인 주이트(Paul K. Jewett)도 박영관 씨가 일요일 준수의 근거로 인용한 상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아래와 같이 노골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증언 주이트

“이 고백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 안에는 거짓된 신학적 기교가 들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라고 한 이 부분을 분석하면 그러한 점이 똑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 부분의 논증은 유지될 수 없다. 칠일 중 한 날을 택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이란 없기 때문이다. 제 4계명은 명백히 칠일 중 하루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레 되는 날’을 지정하였을 뿐이다.”¹⁴

아무 날이나 될 수 없는 기념일

위에 인용된 비평에 적힌 안식일 계명 조항인 출애굽기 20장 8절의 문맥을 자세히 읽어만 보아도 비평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된다.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후에 세칙을 설명하는 9절에서는, 다른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부칙을 설명한다. 그리고

10절에서는, 8절의 “안식일”(히브리어 욥 하 • 쇠바트)에 덧붙여, “제칠일은 안식일이니”(욥 하 • 쉼비이 쇠바트-영문으로는, the seventh day is a sabbath)라고 문법적으로 밝혀 놓았다. “제칠일”을 제외한 다른 여섯 날은 안식일이 될 수 없는 힘써 일해야 하는 날들임을 강조했음도 주목해야 한다.

안식일 제도의 기원이 명시된 창세기 2장 2, 3절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명칭 대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밝히고, “일곱째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어 칠일 중 아무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하칠 일곱째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창 2:1)신 것이다.

본래 기념일이란 그 날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진다. 누가 광복절을 8월 15일이 아닌 일년 356일 중 하루를 정하여 지키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느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을 일년 중 아무 날로 정하여 기념하겠는가?

칼빈주의 개혁신교회도 받아들인 헬베티아 신앙고백(Helveric Confession)에도 일요일은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는 것이 겨로 아니라고 인정했다.¹⁵ 기념일을 옮기거나, 아무 날이나 기념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지구가 존속하는 한 창조가 기념될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에 근거한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권위로 그것을 속(俗)되게 할 수 없다. 안식일을 속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아래의 말씀에서 확인하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겔 22:26).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종교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무시하고 유린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불경(不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교회들이 받아들인 헬베티아 신앙고백(Helveric Confession)에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비평 신조

“우리는 한 날이 모든 날보다 더 거룩하다거나 그 날에 휴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우리 주의 부활일인 일요일을 준수한다.”¹⁶

앞에서의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말이다. 남의 것을 주인의 승낙 없이 가져가거나 없애 버리면 잘못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막 2:28)인데, 예수님의 명령이나 승낙 없이 안식일을 없애거나 다른 날로 바꾸는 일은 분명히 크게 잘못된 일이다. 누가 안식일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권리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에 대한 두려운 도전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성일로 준수하면 어떠한 모순에 빠지는가? 영국 회중교회 지도자 데일(R. W. Dale)의 논증이다.

증언 데일

“우리가 아무리 엄격하거나 경건하게 일요일을 지킨다 해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안식일은 특별히 주어진 거룩한 명령에 기초된 것이다. 우리는 일요일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그러나 명령에 호소할 수가 없다.…신약 성경에는 일요일의 거룩함을 범할 때 어떤 책벌이 이른다는 것을 제안하는 하나의 구절도 없다.”¹⁷

칼빈도 그의 「그리스도교 강요」에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지니고 있는 권위나 준수 의무를 일요일과 같은 특정일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일요일에 모이는 까닭도, “믿음이 시들거나 쇠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외적인 방편”¹⁸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일요일을 성일로 준수해야 할 성경상의 근거나 이유를 일체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일(主日) 옹호론자인 주이트(Jewett)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인용하고 있다.

증언 주이트

“그러므로 주일 첫날을 어느 날보다 더 잘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나 그 날이 가진 무슨 거룩함에 대하여 넷째 계명이나 기타 다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¹⁹

“날은 어느 날이나 꼭 같은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매주 이 의무를 위해 모일 수 있는 어느 한 날을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에 모이는 관습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²⁰

결국 위의 모든 진술들은, 제칠일 안식일과는 달리 일요일은,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 날도 아니고, 축복이 약속된 날도 아니며, 따라서 준수해야 할 성경적인 근거나 의무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인간 전통(傳統)에 불과한 날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런 정도의 의의라면, 굳이 일요일을 주일(主日)로 주장할 까닭도 없고, 준수를 요구해야 할 근거도 없음이 자명해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장로들의 유전(遺傳)”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처신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3, 8, 9).

4. 일요일에 관한 성경의 진술

비평 박영관

“더욱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첫째 날로 지킨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중 첫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이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다.”²¹

변증

박영관 씨는 부활 이후 제칠일 안식일이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뀐 증거가 요한복음 20장 1절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있다고 말한다. 신약 성경 여러 곳이란 다음에 인용되는 여덟 군데인데 일일이 찾아보며 그 말이 참된 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주장은, 성경 어디에서나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찾을 길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부연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처음으로 무덤에 온 이 여인들은,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눅 23:55, 56)였던 바로 그 여인들이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시신(屍身)에 바르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막 16:1, 2) 무덤에 갔을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마가복음 16장 1, 2절

역시 마태복음의 기사처럼, “안식일이 지나매,” 위에 언급한 여인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 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무덤으로 간” 이야기이다.

마가복음 16장 9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앞 이야기의 반복에 불과하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같은 누가복음 23장 55, 56절에 언급된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인데, 예비일인 금요일에 “향품과 향유를 예비”한 후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던 여인들이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증거이지 첫째 날인 일요일을 성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역시 위에 언급된 여인들이 무덤에 왔다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보고했다는 기사이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뒤늦은 서기 90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부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인데도, 안식일은 여전히 안식일로, 일요일은 여전히 “안식 후 첫날”로 부르고 있어, 1세기가 다할 무렵까지 일요일을 주일(主日)이라거나, 부활

을 기념하는 성일의 의미가 일체 부여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기사이다. 이 곳의 저녁은 헬라어 “오프시오스”(opsios)로 “늦은”(late)이란 뜻인데 해가 지기 전인지 후인지는 문맥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²² 그러나 위의 성경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해지기 전후의 저녁임을 알게 된다. 이 때에 제자들이 모인 것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그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데 모여 있었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요일 성수(聖守)와는 상관없는 기록이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 중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사실을 들어 박영관 씨는 당시 일요일이 정기적으로 거룩히 지켜진 증거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비평 박영관

“드로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중 첫날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다.…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먹고 기념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²³

변증

가. 정확한 역사가로 정평을 받고 있는 이방인 누가는 부활 후 30여년이 지난 서기 63년경까지의 사도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적어도 84회 이상 안식일이 준수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첫째 날인 일요일에 관한 언급은 이 곳 한 군데 밖에는 없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규례대로”(행 17:3) 드로아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난 “안식후” 첫날, 그것도 낮에 열린 정규 집회가 아니라, 밤 시간에 모였다. 그 까닭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특별히 모인 성만찬을 겸한 송별을 위한 집회였다.

나. 그런데 이 집회가, “안식 후 첫날”로 밝혀져 안식일이 지났음을 분명히 했으나, 앞서의 요한복음 20장의 기사와는 달리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그저 한 밤중까지 계속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 밤중(midnight) 집회가 실제로 어느 날에 속한 집회인가? 표현이 불분명한 때에는 문맥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으로는 오늘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요(레 23:32), 토요일 해질 때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가 첫째 날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표현은 토요일 밤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 밤이 될 수도 있다.

다. 그런데 박영관 씨는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로마인의 시간 계산을 따랐으므로 그것은 일요일 밤이라고 단정하고 있다.²⁴ 그러나 그러한 단정(斷定)에는 무리(無理)가 있음을 알게 된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인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을,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눅 23:54)는 표현을 씌으로써 자신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을 썼음을 드러낸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도 “때가 제 31”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오늘날의 오전 9시로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이다.²⁵ 그러므로 누가가 로마인의 시간 계산을 따랐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우리 말 새 번역 성경에는 아예 “토요일 밤”으로 번역한 까닭도 문맥이 요구하는 당연한 이유 때문이다

다. 설사 그 시간이 일요일 밤이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첫째 날의 성수(聖守)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성경 어디에 그러한 방법으로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그것도 한 밤 중에...

라. “떡을 떼려하여 모였”다는 것이 꼭 정기적인 예배와 연관된 성만찬이 아님을 같은 사도행전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대 교회는 실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초기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행 2:46). 이것은 대개의 경우 교제의 식사인 애찬(愛餐 · love feast)을 겸한 성만찬이었다(고전 11:20~22).²⁶ 이러한 모임이 꼭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첫째 날에만 행해졌다는 근거를 성경에서는 한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성만찬과 침례는 처음부터 시간에 관련하여 주신 예식이 아니다(고전 11:23~26).

마. 사도 바울은 당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에 따라 급히 여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 빌립보에서 뱃길로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거기서 7일간 머물면서 안식일까지 지냈다(행 20: 6, 7).
- “안식 후,” 곧 토요일 밤에 다시 모여 성만찬을 겸한 애찬을 나누며, 사도의 말씀을 자정(子正)이 넘도록 들었는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모인 까닭은 이튿날 날이 새면 바울이 떠나기 때문에 특별집회로 모인 것이었다(행 20:7, 8).
- 그 다음 날 사도는 육로로 80리 길을 걸어서 앗소로 가서, 뱃길로 먼지가 기다리던 누가 일행을 만나 여행을 계속하여, 미둘레네→사모→밀레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르렀다. 거기서 사도는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특별집회를 가져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했다(행 20:14~38).

바. 이와 같은 문맥을 이해할 때, 급한 여행길의 사도는 안식일에는 겨로 길을 떠나지 않고, 자기 규례대로 신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곧, “안식 후...이튿날 떠나고자 하여”(20:7) 밤중까지 특별집회를 가졌고, 밀레도에서는 주중인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었는 데도 다시 에베소의 장로들을 위해 특별집회를 가진 것이다.

이 두집회 모두가 그렇게 촉박하고 간절했던 이유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으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행 20:37, 38). 그러므로, 문맥에서 분명해진 대로,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도 철저히 지킨 날은 안식일이며,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은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날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자신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탁월한 교회사가인 네안더(Augustus Neander)도 위에 적은 사도행전 20장의 사건이 일요일을 성수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이 성경구절은 전적인 확증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의 촉박한 출발이 이 작은 교회로 하여금 형제애가 넘치는 송별식사를 위해 모이게 했을 것이고, 이 경우 일요일의 특별한 축제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는 이 때에 그의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였을 것이다.”²⁷

고린도전도 16장 2절

비평 박영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단 한번 나오는 첫째 날에 관한 기사이다. 박영관 씨는 이 기사를 근거로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한 바울의 지시를 따라,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헌금을 드린 것”²⁸ 이므로 이것이 일요일을 준수한 증거”라고 한다.

변증

가. 위의 표현을 자칫 곡해(曲解)하여 “헌금은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에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본문에 크게 어긋난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라고 하였지, 어디에, 헌금을 교회로 가져와 드리라고 했는가? 헬라어 본문에 충실한 여러 번역에서도 분명해지는 내용이다.

현대어 신약 : “각 사람은 자기 집에서 한 쪽에 따로 두어 저축하게 하라.”

새 아메리카 성경(NAB) : “각 사람은 저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따로 떼어 놓으라”

시리아-페시토 역 : “각 사람으로 따로 떼어 저축하게 하라.”

본문의 뜻이 분명하다. 요사이처럼 매 일요일 교회에 가서 헌금하라는 뜻이 전혀 없다. 명목도 일반 정규 헌금(獻金)이 아니라, 당시 이방 교회들이 대거 참여했던 예루살렘 모교회(母教會)를 위한 기근 구제 의연금(義捐金)이었다(롬 15:25~27, 행 24:17).

나. 왜 매 주일 첫날에 따로 떼어 저축하라고 했을까? 이 특별헌금 계획은 “일년 전에”(고후 8:10) 이미 시작한 것이었다. 바울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고후 9:5)했는데, 이유는 자신이 갈 때에 한꺼번에 힘겨운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주일의 수입에서 얼마씩 정기적으로 따로 떼어 집에 저축함으로 넉넉하고 성의 있는 연보를 드리게 한 것이다.

제 칠일 안식일을 준수했던 사도시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한 주일 수입을 대개 안식일이 지난 후 첫 날에 정리한 배경을 엿볼 수 있다.²⁹ 성공회 성직자들이 편찬하여 캠브리지 대학이 출판한 성경 주석에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첫째 날 모였다는 증거를 “이 구절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한 후, 참 뜻은 “스스로 저축하라. 즉, 공중집회에서가 아니라...집에 쌓아 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³⁰

자체 증언들

이상으로 신약 성경에 언급된 첫째 날에 관한 여덟 곳의 기사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단 한 군데도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을 성수(聖守)하라거나 그렇게 했다는 일체의 증거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리덴 토리스트 대학(Redemptorist College)학장을 역임한 엔라이트(T. Enright) 신부는, “누구든지 성경만을 가지고 일요일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구속력(拘束力)을 지닌 날임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0 불을 주겠다”³¹ 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그 상금을 찾아가는 이가 없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십만불이나 백만불의 현상을 건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자신도 일요일을 지키는 루터교 신자인 교회사의 대가 네안더(Augustus Neander)도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증언 네안더

“일요일 축제도 다른 축제일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제정한 의식이며,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켜 거룩한 계명을 삼으려는 의도는 전혀, 전혀 없었다.”³²

「교부들의 신앙」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추기경 기본스(James Gibbons)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

증언 기본스

“당신이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지라도, 일요일을 거룩하다고 인정한 단 한

구절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토요일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한 적이 없다.”³³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어느 종교 지도자라도 신자들에게 일요일을 주일(主日)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명령을 인간의 전통을 따라 하는 것이다. 루터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선임교수 카알스타트(Carlstadt)도, “일요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임을 염두에 두게 되면 불안해진다”³⁴고 썼다. 참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준수를 합리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아래의 몇 비평들에서 다시 일별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주의 날”

비평 박영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다. 여기서의 ‘주의날’(en tē kuriakē hēmera)은 주께 속한 날을 의미한다.…초대 기독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였다.”³⁵

변증

사도행전 등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 그리스도교회가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인 적이 없음은 이미 앞에서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 곳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이 박영관 씨의 말대로 정말 오늘날 관습에 따라 주일(主日)로 통용하는 일요일인지를 확인하려 한다.

가. 비평에서처럼 서기 96년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이 일요일이었다면 거의 같은 때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왜 “주의 날”이란 표현을 한번도 쓰지 않고 여전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본래의 표현을 썼을까?(요 20:1, 19). 게다가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편지인데(계 1:11), 요한이 그 당시 신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용어(用語)를 씀으로 혼란을 일으키려 했을까?

용어는 공인(公認)을 요하는 일종의 문화계약(文化契約)인데, 요한이 혼자만 아는 용어를 썼을 리가 없다. 일요일을 주의 날(Lord's Day)로 부른 기록은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나중인 2세기 후반에 그것마저도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쓴 신약 위경(僞經)인 베드로의 복음서(Gospel According to Peter)에 처음 나타난다.³⁶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Clement · c.160~215)와 라틴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 · c.155~225)도 쓴 기록이 있다.³⁷ 그러므로 요한이 자신의 규례를 깨고 남들이 모르는 용어를 써서 일요일을 주일로 불렀을 리가 없다.

나. 요한 자신은 물론 독자들에게도 익숙했을 “주의 날”의 개념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여호와와 안식일”로 불리웠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여호와”(Yahweh)이신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쓰거나 부르지 아니하려는 보다 경외(敬畏)하는 방편으로 “아도나이”(Adonai), 즉 “주(主 · Lord)라는 칭호를 대신하여 썼다. 그리하여 구약의 안식일은 실제로 “주(主)의 안식일”(영어로는 Sabbath of the Lord 혹은 Sabbath to the Lord), “주(主)의 성일”(the holy day of the Lord)이었으며 (출 20:10; 사 58:13),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안식일”로 불리웠다(출 31:13; 겔 20:20; 사 56:4).

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Lord of the Sabbath · kurios tou sabbatou)라고 자칭(自稱)하심으로써(마 12:8; 막 2:28), 구약의 “여호와와 안식일”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라. 요한이 계시록에서 “주의 날”이란 표현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 당시의 로마 황제 도미시안(Domician)은 자신을 신격화(神格化)하여 황제예배를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

임을 당하거나, 요한처럼 유배를 당하였다. 도미시안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주와 하나님”(Lord and God)으로 칭하도록 했다.³⁸ 그리고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날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동시에 황제 예배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주의 날”(imperial day)에 맞서는 표현으로 이해되었다.³⁹

마.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은 창조와 구속으로 자신의 주(Lord)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안식일에, 당시에 통용되던 그러한 표현을 빌어, 황제 예배가 아닌 창조주 예배를 강조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가능성은 그가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면서, 우상숭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13:9~11),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敬拜)하라”(14:7)는 단도직입적인 호소를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에서 직접 인용한 사실과 연관짓게 된다(출 20:11).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두 특징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거듭 강조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12:17; 14:12). 이곳의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여전히 자리 잡은 언약궤 속의 옛 십계명임을 계시로 확인한 요한이(계 11:19), 느닷없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제쳐 놓고 일요일을 주일로 불렀을 리는 만무하다. 저명한 주석학자 밀리건(William Milligan)도 그 당시 “주일 중 첫째 날이 ‘주의 날’이라는 명칭을 아직 받았었는지의 증거가 결핍돼 있다”⁴¹고 시인하고 있다.

5. 안식일과 초기 교부 문서

비평 박영관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은 주후 95년경에 기록하였고, 주후 107년에 기록된 이그나티우스(Ignatius)의 서식 「마그네시아인들에게」(To the Magnesians) 제 9항[장]에서, ‘그러면 만일 구습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는 새로운 소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을 통하여 새로워진 것이다’라고 했다.”⁴²

해설

박영관 씨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이 일요일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보다 15년 쯤 뒤인 서기 115년경⁴³ 안디옥의 감동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잡혀가는 길에 서머나에서 마그네시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 참으로 이러한 성경 밖의 기록들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요일 준수를 정당하게 해 줄 수 있을까?

변증

가. 로마 황제 트라야(Trajan · A. D. 98~117) 당시 안디옥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앞두고 쓴 것으로 알려진 일곱 개의 편지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여러 개의 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이 바르게 보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대부분 4세기 이후에 가필(加筆)한 것들이다. 그 외에도 가짜 편지[僞簡]도 여럿이 있어, 상당수의 학자들은 아예 모든 편지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⁴⁴

편지들의 골자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여 분열을 막으라는 것과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당시의 이단인 가현설(假顯說 · Docetism)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또한 골로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그리스도를 제쳐 놓고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룬 선행의 의(義)로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논박했다.

나. 이러한 배경에서 비평에 인용된 구절의 참 뜻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바로 앞의 문장인 8장의 내용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유대교 신앙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선지자들은 예수그리스도와 일치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핍박을 받았다...”⁴⁵

그리고 다음 장인 9장에서는, 이토록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서도 계시된 말씀의 빛을 따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거룩한 생애를 살았던 옛 선지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이그나티우스 당시의 유대주의 자들처럼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영적인 원체에 따라 살았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을 본받도록 마그네시아 교회 신자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9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박영관 씨가 인용한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서의 그 “구습을 따르던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거룩한 생애를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들(the divine prophets lived according to Jesus Christ)인 것이다.

다. 비평에 인용된 9장의 다음 장인 10장에서도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복음을 저버리고 육신적인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유대 주의적 신앙을 아래와 같이 계속 논박하고 있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도 유대 주의적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괴이(怪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대교 신앙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이 그리스도교에 기초했기 때문이다...”⁴⁶

이와 같이 비평에 인용된 편지의 앞뒤 문맥을 이해할 때,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라. 그런데 박영관 씨가 인용한 것과 같이 “주의 날”(the Lord’s Day)에서 “날”이란 말이 가장 근본적이고 잘 보존된 헬라어 원문 사본들에는 없다. 그것이 일요일을 가리키는 “주님의 날”이 되자면, 여성명사인 “날”(hēmera)의 대격[目的格]을 삽입해야 하거나, 그것이 문법에서 동족목적어(同族目的語) 구문에 함축돼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의 모든 편지들에는 이런 구문을 쓴 예가 한 번도 없다.⁴⁷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본들의 모체가 되는 가장 오래 된 헬라어 사본[Codex Mediceus Laurentinus] 등에는⁴⁸ “주님의 생명”(Lord’s Life)이라고 쓰여 있어, 여성명사[생명 · zoē]를 필요로 하는 문법에도 맞고, 같은 문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thanatos)을 대조시킨 문맥에도 적절히 어울린다.⁴⁹

마. 또한 비평에서 인용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에서도 안식일은 명사가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분사를 써서 뜻을 달리하고 있다. 영어로는 “no longer sabbatizing”으로 번역되는데, 이 뜻은 실제로 문맥에도 나타났듯이 유대교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빗나간 율법주의를 경계한 것임이 다음의 문헌에서도 분명해진다. 즉, 같은 편지를 4세기에 가필(加筆)하여 확대 설명한 사본의 같은 9장에 아래와 같은 해설이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적인 방식을 따라(after the Jewish manner)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나태한 날들을 즐기지 말자.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방식을 따라(after a spiritual manner)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곧 육체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율법을 명상하는 일을 즐기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찬양하며, 전 날에 준비한 것들을 먹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일들을 하지 말 것이며, 제한된 지역만 걸거나 아무 뜻도 없는 춤이나 박수갈채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라.”⁵⁰

바. 마지막으로, 박영관 씨의 비평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단서가 있다. 즉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날을 지키”게 된 것으로 표현된, 그 “구습을 따르던 사람들”이란 앞에서 본문 문맥을 가지고 지적했듯이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거룩한[구약의] 선지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제 안식일 준수를 그만 두고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을 지킨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문맥을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하고, 주어(主語)로 쓰인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당시의 마그네시아 교회 신자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져 안식일의 영적 의미는 상실한 채, 전 날에 준비한 음식이나 먹으면서 게으름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역겨운 유대교 방식의 안식일 준수를 논박하고, 구약의 옛 선지자들을 본받아 말씀을 통하여 미리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훈을 따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일 중 첫 날이 아니라, 일곱째날을 준수한 것을 확

실히 알았다. 그렇다면, 이곳의 대조(對照)는 [일곱째 날과 첫째 날과 같은] 그러한 날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방식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상징된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⁵¹

그러므로 비평에서 인용된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편지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될 만한 아무 근거가 될 수 없음이 편지 사본의 원문(原文)만 편견 없이 읽어 보아도 자명(自明)해진다. 원문에도 없는 “날”을 삽입하여 편지의 본 뜻을 크게 왜곡시킨 신학적 편견은 위험한 것이다. 문장을 문법과 문맥에 맞추어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본 뜻을 바르게 깨닫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6. 안식일과 장래 일의 그림자

비평 칼빈

“의식적(儀式的)인 속성을 가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하여 의심 없이 폐지되었다. 그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임재로써 모든 상징들은 사라졌다. 그는 안식일의 참된 성취라고 나는 말한다. ‘안식일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 17)고 사도는 말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으로 날들을 준수하는 모든 일에서 떠나야 한다.”⁵²

해설

칼빈은 「그리스도교 강요」에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인용하여, 안식일은 그림자와 같은 의식적인 법이므로 초림과 함께 폐지되었다고 강조하고, 넷째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미신적(迷信的)인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칼빈의 이러한 성경 해석은 옳은 것인가? 도덕의 법칙인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만이 유독(惟獨) 의식적인 법인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이 미신적인 행위인가? 아래에 기록된 본문을 다시 읽으며 대답을 찾아보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貶論)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 17).

골로새 이단과 골로새서

변증

위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왜 이러한 권면이 하필이면 골로새교회에 주어졌는지 그 배경과 앞뒤 문맥을 아는 일이 필수적이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무렵(A. D. 62년경). 소아시아의 골로새교회는 “골로새 이단”(The Colossian Heresy)으로 알려진 특별한 이단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⁵³ 골로새서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표현들,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2:8),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2:8, 20),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2:8), “자의적 숭배와 몸을 괴롭게”(2:23)함 등은 그 이단의 내용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페르샤와 헬라의 이원론(二元論)에 기초를 두고 동양의 신비사상을 혼합한 일종의 종교철학으로 영지주의(靈知主義 · Gnosticism)로 불리운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 일찍이 유대교에 침투했음을 사해사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었고 후에는 그리스도교에도 파고들어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 이단”으로 나타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⁵⁵

이러한 이단에 맞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유일한 중보이심을 확신시키고 있다(1:16, 18, 20).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고(2:9), 십자가로 말미암는 속죄의 완전함을 논증하고 있다(2:11, 12).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칼빈이 안식일 폐지의 근거로 인용한 본문(2:16, 17)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바로 앞의 문맥을 살펴보자.

의문에 쓴 증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儀文)에 쓴 증서(証書)를 도

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3, 14).

위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영지주의와 같은 종교철학이 아니요, 할례와 같은 의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속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할례인 침례와 “의문에 쓴 증서”의 실례를 들고 있다(2:11~14).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의문에 쓴 증서”는 무엇인가? “의문”(倚門)은 헬라어로 “도그마”(dogma)인데 고시된 일반 법규나 종교적인 제도나 규정으로 모두 법적인 책임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⁵⁶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의식적인 법규들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이 쓰였다(엡 2:15).

그런데 “증서”(証書)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이 곳에 한번 밖에 쓰여지지 않은 특별한 용어인데 고대문서 연구를 통해 근년에야 그 참 뜻이 밝혀졌다. 이 “증서”가 헬라어로는 “케이로그라폰”(cheirographon)인데 “손으로 쓴 것”(handwriting)을 뜻하고, 실제로 쓰일 때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직접 날인(捺印)한 “빚 문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다.⁵⁷

그러므로 14절의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의 참 뜻은 흔히 해석하는 대로,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개정역 성경에 바로 번역되었듯이, “법적인 요구를 가지고 우리를 맞췄던 법적인[죄의] 채무증서를 끄집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폐기하셨다”⁵⁸ 는 본 뜻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채무증서가 폐기된 것이다.

불의한 율법이 아니라면, 율법을 없앴으로 죄인을 무죄하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의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불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리가 없다(롬 3:25, 26). 오히려 죄인을 대신하여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채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빚진 기록을 말소하신 것이다(롬 3:23; 뱀전 2:24). 14절의 이와 같은 설명이 문맥에도 맞는 것은, 13절의 끝말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로 되어 있어, 14절에서는 빚 문서를 예증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의 완전한 용서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처럼 복음이 나오면 논법상 의례히 등장하게 마련인 율법이란 말이 골로새서에는 한 마디도 없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제가 율법문제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⁵⁹ 2장 20절에 쓰여진 “의문에 순종하느냐”는 말의 참 뜻도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쉽사리 알게 된다. 동사형으로 쓰여진 20절의 의문(儀文)이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금욕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적인 유대교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한 것이다(2:22, 23).⁶⁰

펼쳐지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염두에 둘 때, 16절의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말씀의 내용이 분명해진다. 즉,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용서로 죄의 빚을 청산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확실한 길이 마련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좇음으로 왜 십자가의 의의(意義)와 효력을 저상(沮喪)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인간의 노력을 내세우는 “자의적 숭배”(will worship ` 골 2:23)와 금욕을 실천하는 영지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이 16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그릇된 준수 방법을 부과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골 2:23) 가르침으로써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⁶¹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거짓 교사들] [16절에 언급된 행사들에 관하여] 너희 [골로새

교회 신자]를 [함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다 저렇다] 폄론[판단]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⁶² 사도는 지금 절기 자체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의미와 준수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짓된 교사들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다.⁶³

그런 다음에 그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실체]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말로 그러한 제도의 참 뜻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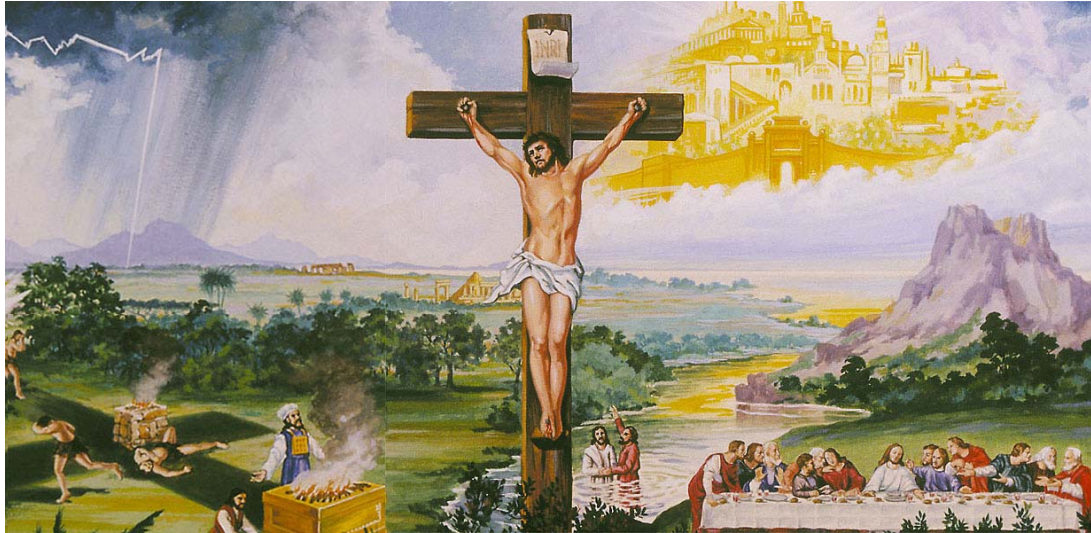


그림 7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와 절기들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실체가 되신다.

장래 일의 그림자

그렇다면 이 곳의 “장래 일의 그림자”는 무엇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곳의 평행절을 찾아 그 답을 찾는 것이 성경이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해석이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써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히 20:1, 4).

골로새서(2:17)의 “장래일의 그림자”가 무엇임을 히브리서는 같은 헬라어인 “그림자”(skia)와 “장래일”(tōn mellontōn)을 써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 문맥에 나타난 대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제사제도인 것이다.

그것을 보통 구약(舊約 · old covenant)이라고 부르는데, “첫 언약”(first covenant · 히 9:1), 혹은 “첫 것”(히 10:9)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사가 성소의 규정에 따라 드려졌기 때문에 구약의 성소제도와 같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히 8, 9장). 그러므로 “장래 일의 그림자”(골 2:17)는 구약에 나타난 표상적인 제사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장래 일”은 무엇이고,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몸”(soma)은 무엇인가? 같은 평행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5~10).

대답이 모두 주어졌다. 예비된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장래 일”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구속(救贖)과 그 결과인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type)한 그림자(shadow)였던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것의 원형(antitype)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몸”(body) 곧 실체(reality)를 만난 것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히 10:7). 위의 설명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골로새 2장 17절의 확실한 뜻인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

히브리서(8, 9, 10장)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하는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제사제도는, 성소[제도와 현장]-제물[실체]-제사장[봉사]-절기[특정된 제물을 드리도록 지정된 때]로 이루어졌다. 성소 자체도 성육신(成肉身)하실 그리스도를 가리켰고(요 2:21), 제물은 물론(히 10:5),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가리켰다(히 9:11, 12). 그런데 골로새서에 언급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2:16)은 어떻게 몸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소에 드린 제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피흘림이 있는 희생제물(sacrifice)과 피 흘림이 없는 예물(offering)이었다(단 9:27). 피흘림이 없는 제사에는 곡식[가루나 빵]을 기름, 소금, 향과 함께 드린 소제(素祭 · meal offering)가 포함되었다(레 2:2~7).⁶⁴ 누룩이나 꿀을 섞지 않은 곡식의 가루, 빵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양식(요 6:5)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부는 제사장이 먹었다(레 2:3, 10).

또한 소제처럼 번제(燔提)와 함께 드린 예물은 포도주를 드린 전제(奠祭 · drink offering)인데(민 15:4~11), 이것은 성만찬의 포도즙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마 26:27, 28).⁶⁵ 골로새서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소제와 전제를 가리켰음이, 같은 내용인 “예물과 제사”를 언급한 히브리서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9:9, 10)는 말씀에서 확실해진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골로새서의 말씀을 오해하여,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에(레 11장; 신 14장) 언급한 건강에 해로운 식품도 이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월삭과 절기들

다음으로,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은 어떻게 구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장래 일의 그림자”가 되는가? 골로새서(2:16)의 절기(節期)는 레위기 23장에 준수하도록 명시된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등 일곱 절기(feast)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절기들과 연관되어 제칠일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국경일과 같은 일곱 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었다(레 23장).

이 절기에 의미를 준 것은 절기가 지켜지는 정한 시간에, 예정된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성취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표상하는 제물과 예물이었다. 유월절인 1월 14일 해질 때에 잡은 양은 그 시간에 돌아가실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1월 15일 무교절 안식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먹게 되는 누룩 없는 떡[무교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1월 16일인 요제절에 바친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은 유월절 이후 삼일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실 그리스도를 놀랍도록 정확히 예표한 것이다.

제물이 없는 절기는 신랑이 없는 잔치처럼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장래일의 그림자”였던 이러한 절기들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구속의 핵심으로 가장 적절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러한 상용구(常用句)의 기본이 되고 있는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제물과 예물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⁶⁶

골로새서의 안식일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함께 “장래 일의 그림자”가 된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가? 그리고 그것은 칼빈의 주장처럼, 실체[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림자처럼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 곳의 안식일은 헬라어로 복수형(속격 · sabbatō)이어서 제칠일 안식일이 아니고 구약의 일곱 절기 안식일들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구어(口語)였던 아람어의 안식일(단수 · shabbetha)을 헬라어로 음역(音譯)한 것(sabbata)이 공교롭게도 헬라어의 안식일(sabbaton)의 복수형(sabbata)과 같아지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다. 즉 아람어의 단수 안식일이 헬라어의 복수 안식일과 같은 철자(綴字)를 가지게 되어, 골로새서에서도 비록 그것이 헬라어 복수(속격)이기는 하지만 아람어의 단수 안식일을 잘못 변형시켰을 수도 있다는⁶⁷ 가능성이다.

한편 골로새서(2:16)의 “절기”(heortē)와 “월삭”(neomēnia)이 실제의 내용은 모두 복수인데도 표현을 단수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비록 단수로 쓰여졌다 해도 실제로는 복수일 수 있는 문법상의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⁶⁸ 그런데 민수기(28:9~29:38)등 여러 곳에서 실제로 제칠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⁶⁹ 골로새서의 안식일에도 제칠일 안식일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칠일 안식일에도 절기 안식일의 경우처럼 지정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물 목록에 안식일이 포함된 것이다(민 28:9, 10; 대하 8:13; 레 24:8). 제물로 상징된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기가 성립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제물을 드린 것이다.

옛언약과 새언약

문제는 골로새서(2:16)의 안식일이 제칠일 안식일인가, 절기 안식일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장래 일의 그림자”(골 2:17; 히 10:1)인 절기를 포함한 구약의 제사제도가 몸[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1, 12).

옛언약[그림자]

새언약[실체]

성 소 :	지상 성소	→	하늘 성소(히 8:5; 9:11)
제사장 :	인간 제사장	→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히 8:1, 2)
제 물 :	짐승의 피	→	예수 그리스도의 피(히 9:12)
십계명 :	돌비에 새김	→	마음에 기록함(히 8:8~11)

예시한 대로 “장래 일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제도가 실체[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외형적인 그림자는 없어졌으나 실제로는 더욱 완전해졌음을 알게 된다. 그림자인 옛 언약의 지상 성소제도에서는 돌판에 새겨져 법궤에 보관되었던 언약의 조문인 십계명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신 후 어떻게 되었는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 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 8:8, 10).

돌판 대신 마음에 기록되고, 법궤 대신 생각 속에 보관된 인간의 표준 도덕규범인 십계명 가운데, 언약의 인(印)인 안식일(출 31:16, 17)만 그림자처럼 없어졌다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함이라”(출 31:13)는 선언이야말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 8:10)는 새언약의 진수인 것이다.

비평 주이트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 17).…아무도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그 [바울]을 판단할 수 없었다.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⁰

변증

구속의 역사를 예표(豫表)하는 지정된 시간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성립되는 “장래 일의 그림자”인 절기는 실체[몸]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칼빈의 말처럼, “의심 없이 폐지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가? 그리하여 안식일 준수조차도 미신적인 일이 되어서, 비평에 인용된 주이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되었는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없어져야 한다는 뜻인가?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

실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림자인 절기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앞에서 언급한 세 절기를 예증으로 하여 대답을 찾아보자.

유월절(1월 14일) :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는 같은 시간에 유월절 양처럼 뼈도 꺾이지 않은 채(출 12:5~8, 46)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림자는 몸[실체]으로 바뀌었다(마 27:45~).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고전 5:7) 당신의 이러한 희생을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도록 성만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다(마 26:26~29; 고전 11:23).

뿐만 아니라 성만찬의 절정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마 26:29)인 하늘에서의 “어린양의 혼인잔치”(계 19:7)를 약속하셨다. 그리하여 구원의 첫 단계인 십자가로 말미암는 칭의(稱義)를 드러내는(롬 3:23~26) 이 사건은 유월절→십자가→성만찬→어린양의 혼인잔치로 절정에 이른다.

무교절 안식일(1월 15일) :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생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은, 동시에 첫 번째 절기 안식일이기도 했다(레 23:6~8). 이 날부터 한 주간 먹게 된 누룩 없는 빵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전 5:7, 8)는 성화(聖化)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稱義] 사람은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할 요청을 받고 있다(롬 6:17~19; 벰전 1:14~16). 그런데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안식일 준수였다(출 16:23~29).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겔 20:12)기 위하여 출애굽 즉시 안식일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겔 20:10). 안식일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로 의롭게 된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다(출 31:13).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월절은 여섯째 날, 곧 예비일이었으며, 다음 날인 무교절 절기 안식일은 동시에 제칠일 안식일이어서 두 안식일이 포개짐으로써 “그 안식일이 큰 날”(요 19:31)이 된 것이다.

여섯째날 오후 세시경 “다 이루었다”(요 19:30)는 선언과 함께 운명하심으로써 구속(救贖)을 끝내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을 무덤에서 쉬신 것은, 여섯째 날 오후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니라”(창 2:1)는 기록과 함께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창 2:2)신 창조의 완성과 일치하는 사건이다. 이리하여 유월절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聖化)의 표상인 무교절을 대신한 안식일을 통하여 성별(聖別)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토록 제칠일 안식일과 무교절의 일치한 관계는 안식일에 누룩 없는 빵[무교병]을 드린 성소봉사에서 확인하게 된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빵]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니라”(레 24:8). 십자가를 상징한 번제단이 있는 성소의 뜰은 칭의(稱義)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 촛대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떡과, 중보의 기도를 상징한 향단이 차려진 성소의 첫째 칸은 성화(聖化)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말씀을 상징한(요 6:51, 63) 누룩 없는 빵 열 두 덩이가 안식일마다 새것으로 구어져(대상 9:32),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삼”(레 24:7)도록 상 위에 진설되었다. 그리고 일주일간 진설되었던 무교병은 제사장들이 성소 뜰에서 먹음으로써 “지극히 거룩함”(레 24:9)에 참여하게 하셨다.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는 무교절의 영적 의미이다.

이 빵이 누룩 없는 것[무교병]이었음은 그것이 화제(火祭)에 포함된 소제(素祭)의 예물이기 때문이다(레 2:5, 11; 5:14~18). 이와 같이 성화의 보증이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무교절 안식일→무덤에서 쉬신 안식일→제칠일 안식일→신천신지의 영원한 안식일(사 66:22, 23)로 이어져 극치에 이르고 있

다.

요제절(1월 16일) : 여섯째날인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제칠일인 안식일을 무덤에서 안식하셨다.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인 1월 16일 아침에는 처음 익은 보리단을 흔들며 예물을 삼았는데, 바로 이 “안식일 이튿날”(레 23:11)인 1월 16일 요제절 아침, 곧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요 20:1)에 예수께서 땅과 무덤을 힘 있게 흔드신 후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심으로써(고전 15:20) 그림자는 실체를 만난 것이다.

이러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친히 참여하신 침례와 세족예식(洗足禮式)에 의하여 기념되고 있으며(롬 6:5; 벰전 3:21; 요 13:9, 10; 딤후 3:5),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이 참여할 첫째 부활로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전 15:22, 23). 이와 같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고전 15:42~44) 영화(榮化)의 경험은 칭의와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릴 최고의 경험인 것이다. 이리하여 요제절→부활→침례 · 세족→첫째 부활에 이르러 요제절의 표상은 극치에 이르게 된다.

없어진 것과 남아 있는 것

이상과 같이 구속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세 절기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예시해 보자.

구속의 그림자인 기본 절기와 십자가로 성취된 실상

	유월절 (1월 14일)	무교절 안식일 (1월 15일)	요제절 (1월 16일)
[상징]	어린양의 피 (출 12:6, 7)	누룩없는 빵 (레 23:6, 7)	처음 익은 열매 (레 23:10, 11)
[성취]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죽으심 (마 26:2; 눅 23:54)	제칠일 안식일과 일치되어 안식하심 (요 19:31)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심 (레 23:11; 눅 24:1)
[기념]	성만찬 (고전 11:23~26)	안식일 (레 24:8; 눅 23:56)	침례(세족예식) (벰전 3:21; 요 13:10~15)
[의미]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칭의) (롬 3:23~25)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성화) (고전 5:6~8)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영화) (롬 6:3, 4)
[극치]	어린양의 혼인잔치 (계 19:7)	신천신지의 안식일 (사 66:22, 23; 히 4:3, 4)	의인의 첫째 부활 (고전 15:22, 23)

이리하여 “장래 일의 그림자”(골 2:17)였던 유월절은 실체[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됨으로써 없어졌지만 성만찬으로 기념되고 있으며, 요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됨으로써 없어졌지만

침례로 기념되고 있다. 무교절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이 안식일에 드러진 누룩없는 빵이 되어서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으로 성취되었지만, 무교절 안식일이 제칠일 안식일과 포개짐으로서 무교절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본래 창조의 기념일이었던 제칠일 안식일은 성별의 체험과 함께[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의 기념일로 확증된 것이다(신 5:15).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두 성례(聖禮)인 성만찬과 침례로 확정되었고, 한 가운데는 안식일이 확립(確立)되어, 창조와 구속의 주체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주인”(막 2:28; 마 12:8)으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으로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예수그리스도	부활로 보증된 새 생명
성 만 찬	안 식 일	침 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		

이와 같이 구속(救贖)의 그림자인 유월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도 필요 없게 되었는가? 부활의 그림자인 요제절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 졌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침례도 필요 없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안식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것을 기념하고 경험하는 안식일이 필요 없게 되었는가?



그림 8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별하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다.

다른 절기나 절기 안식일은 제물과 연관되어 제물을 근거로 존재하게 되었지만, 제칠일 안식일의 경우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제도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구속의 그림자인 제사제도와 관계없이, 창조 당시에 제정되었고 십계명에 포함되어 도덕의 법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한,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한, 안식일은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상식(常識)에 속하는 일로, 자신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성경 주석학자들인 감리교의 클라크(Adam Clarke), 장로교의 반스(Albert Barnes), 그리고 대중적인 개신교 성경주석(Jamieson, Fausset, Brown)에도 다음과 같은 증언들이 있다.

증언 클라크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리스도교가 소개됨으로써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안식일의 도덕적

인 적용이 다른 것과 바뀌어졌다는 위협이 없다.”⁷¹

증언 반스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 인간을 구속(拘束)하는 일을 그쳤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최소한의 이유도 없이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 거룩한 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가르친 증거가 없다.…도덕률의 어떤 부분, 십계명의 어느 하나도 ‘장래 일의 그림자’로 불리울 수가 없다. 이 계명들은 도덕률의 속성에 따라 영원한 것이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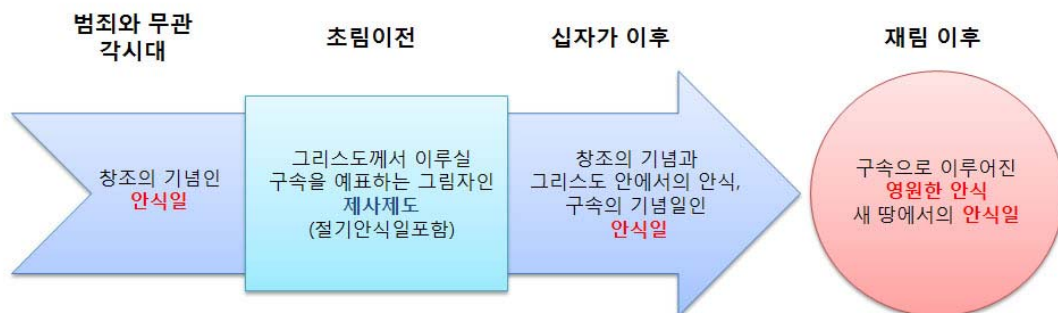
증언 주석

“제칠일 안식일은 옛세 동안 천지창조가 마쳐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에덴 낙원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보다 영속적인 기초 위에 서 있다.”⁷³

영원한 안식의 약속

아래의 도표에서 설명되듯 안식일이 범죄 이후, 특히 성소제도와 절기가 설정된 이후부터 십자가 전까지, 구속을 예표한 제사제도의 그림자 속을 잠시 통과하였으나, 십자가와 함께 그림자 속을 지나 구속의 기념을 덧입은 후 다시 고유한 안식일의 실체를 드러냈으며,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는 새 언약의 보증으로 남아 있다.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따른 안식일의 특성



지금까지 성경적인 표상 연구의 원칙에 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림자였던 제사제도와 거기에 포함된 절기의 깊은 뜻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래 일의 그림자”인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골 2:16)이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폐지된 것은 없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형태를 입고 완전해지기 위함이었음을 확인했다. 더군다나 창조와 구속의 기념이요, 성화의 보증인 안식일을 그 사라져버린 그림자 속에 포함시켜 일소(一掃)하려 한 것은 심대(甚大)한 과오이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2:16, 17)에서 뜻한 바가, 칼빈의 생각처럼 그림자의 시효(時效) 만기에 의한 안식일 무효선언이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는가? 십계명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의식인 할례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고 가르친 것 때문에 일어났던 소동을 생각해 보라. 결국 예루살렘 총회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렀고(행 15:1, 2),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행 21:21, 30~34).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행 21:20)였던 당대의 분위기에서, 만약 바울이 감히 안식일을 할례처럼 무효라고 가르쳤더라면 과연 어떤 소동이나 반응이 일어

났겠는가? 바울에 대한 수많은 비난이나 고소 가운데, 그가 안식일을 무시했다거나 폐한 것으로 가르쳤다는 내용은 일체 없었다.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내용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며 안식일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기정사실로 문제조차 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7. 안식일과 개인의 확정

비평 일반교회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시대에는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5, 6절에서 언급하고 있다.”⁷⁴...

해설

제칠일 안식일 준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굳이 제칠일로 고정하여 지켜야 할 이유가 없고 주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구별하면 되는 것이므로 첫째 날인 일요일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러한 근거로 아래의 로마서를 인용하고 있다.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 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यो,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 14:5, 6).

비평 주이트

주이트(Paul E. Jewett)는 이상의 성경구절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 두었던 것”⁷⁵ 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주이트의 말처럼, 참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제칠일 안식일 준수가 십자가와 함께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인가? 신약시대에는 성별(聖別)된 하루가 일요일 등 아무 날이나 도리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말씀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변증

비평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는 확연히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1장~11장)에서는 구원의 기본 진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인간의 죄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등 교리적인 면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12장~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그랬듯이 앞서 깨달은 진리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이 속해 있는 14장의 성격은 어떠한 교리를 새롭게 정립(定立)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깨달은 진리의 실천 방안에 속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본문인 14장 5, 6절은 동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된 문맥의 연속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해석 원칙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롬 14:1~3).

이렇게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작된 14장은 5, 6절에서 어떤 날에 관한 문제를 잠시 언급한 후, 끝

절까지 계속하여 음식문제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주제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가 된 음식에 관한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일이, 날에 관한 문제의 해답을 얻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와 포도주 등(21절) 모든 것을 먹는다는 1절의 뜻이 무엇인가? 육식가(肉食家)와 음주가는 믿음이 있고 채식가(菜食家)는 믿음이 없다는 뜻일까?

먼저 이 음식 문제가 구약성경(레 11장; 신 14장)에 기록된 식품위생에 관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음식법칙은 육식 가운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했지(레 11:2, 9, 13, 29) 육식과 채소를 구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레위기에 자주 쓰여진 “부정”(不淨 : impure)이라는 말은 로마서(14:14)의 “속(俗)되다”는 뜻의 헬라어(koinos)도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롬 14:14)는 말씀을 적용하여, 이제는 구약 성경에 명시된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다는 해석은 상식에 벗어날뿐더러 문맥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성경은 육식이나 채식을 나누어 정죄한 기록이 없음으로 로마서의 음식문제가 성경에 관련된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식(菜食)을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육식(肉食)을 한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로마서 14장의 육식과 채식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곳인 고린도교회에도(롬 16:23, 1) 비슷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서보다 몇 개월 전에 쓴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같은 문제에 대해 같은 교훈을 같은 표현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음식 곧 육식(肉食)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었다(고전 8:1).

당시 로마제국 전역에 편만했던 이교적(異教的)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거기에 드러졌던 제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서 시민들의 피할 수 없는 식품이 된 것이다.⁷⁶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제물도 음식이므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개방적인 신자가 있는가 하면(고전 8:4~6),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전 8:7)는 보수적인 신자들도 있어서 피차의 양심을 판단하는 경우가 된 것이다(고전 10:29).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불신자의 집에 차려진 것이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지 여부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권면을 한다(고전 10:25~27).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것이 밝혀지거든 피차의 신앙양심을 위해 먹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가르친다(고전 10:28, 29; 8:9). 사도 바울 자신은 약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전 8:13)리라고 입장을 밝힌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는 로마서(14:21)의 권면과, “너희가 주의 잔[포도주]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포도주]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성찬의 빵]과 귀신의 상[우상의 제물]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는 고린도전서(10:21)의 권면은 같은 배경일 수 있다.

단지 로마서에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서 그것이 당시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금욕적인 유대교의 분파의 가르침[Essenism]이 침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⁷⁷ 어느 경우이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도 아니고 정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도 아닌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 날

이처럼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에 물의가 된 음식문제에 결들여 잠깐 스치고 지나간 “이날저

날”(14:5, 6)에 관한 참 뜻은 무엇인가? 로마서가 쓰여진 서기 57년경,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고했던 분위기 속에서, 남의 판단에 따를 것 없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 지니라”(롬 14:5)는 권면에 해당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 그 날에 대한 이해가 안식일처럼 공적인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개인적인 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신하라는 권면을 받은 날이고 보면 개인 신앙에 연관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이러한 특성을 지닌 날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1세기 전후에 초대교회를 위한 교회요람으로 알려진 디다케(the Didache)라는 문서를 살펴보면 어떤 단서를 찾을 만하다. 유대교 신앙에 기초를 두고서 복음서의 내용을 인용한 이 교훈집에는 성만찬과 물에 잠기는 침례(浸禮)와 함께 금식과 기도에 관한 교훈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금식일을 유대인처럼 월요일이나 목요일로 하지 말고, 수요일과 금요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⁷⁸ “이레에 두 번씩 금식”(눅 18:11)했던 유대인의 전통이 초대교회에 전승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금식과 같은 개인적인 신앙 실천문제에 대하여 외적인 규정보다는 개별적인 판단에 맡기는 일은 합당한 일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금식과 같은 신앙 관습을 부정하는 대신 각자가 자유를 가지고 처신하되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를 용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⁷⁹

이상과 같은 금식일과 연관되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준수해온 절기에 관한 날들이 이상의 문제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러한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골 2:16)로 선언했지만, “할례처럼”정죄하는 대신 위의 경우와 같이, “누구든지 너희를 꾀론 [krinō ·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고 권고한 바 있다.

자신도 후에 이러한 절기행사에 참여한 예도 있다(행 20:16). 이러한 절기들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민속(民俗) 명절이었기 때문에 표상은 십자가로 성취되었지만,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된 것이다.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림자처럼 없어지게 될 이러한 문제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평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권면할 수 있다.⁸⁰

상식과 침묵을 통한 확증

이상과 같은 로마서 14장의 현실을 종합해 볼 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 하라는 날이 안식일이나 일요일 날짜에 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 당시 그러한 문제는 있지도 않았다. 자신도 철저한 안식일 준수자였던 바울이(행 17:12), 당시의 분위기에서 할례 이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제철일 안식일 준수를 무시하고, 아무 날이나 상관없으니 개의치 말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여 준수하라는 원칙을 제시하였을 리는 만무하다.⁸¹ 그것은 장차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마 24:20).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 대해 아무 소동도 일어나지 않은 까닭은 그것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침묵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금식이나 우상의 제물 등 다른 사람의 신앙양심을 존중해야 하는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문맥에 넣어 간단히 언급한 데 불과하다. 잘 알려진 개신교의 주석에는 로마서 14장 5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증언 주석

“안식일이 확실히 유대교보다 더 오래된 제도라면, 안식일이 유대교 아래서도 십계명의 영원한 준엄 가운데 지켜졌던 것이라면, 유대교의 어떤 부분도 언급된 바 없는 시내산의 두려움 속에서 안식일이 [하나님께 의하여] 언급되었다면, 입법자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8)고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에서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없애 버린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안식일을 포함시키도록 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⁸²

8.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

증언 주이트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다. ...모든 학자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첫날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부활의 기념일로 축하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사건에다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발생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옛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관습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⁸³

일요일을 주일(主日)로 옹호하는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인 주이트(Jewett)자신이, 자신이 주일(主日)로 옹호하고 있는 일요일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주일(主日)이 되고 예배일이 되었는지 근거와 기원을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정직한 증언이다. 그러나 참으로 그의 말대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모르면서 지키고, 모르면서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거의 온 세상 사람이 일을 쉬거나 예배하는 일요일이 까닭 없이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다. 다음에 그 이유와 과정을 성경과 역사에서 살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부당한 부활의 기념

주이트가 제시한 공색한 이유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요일 예배의 근거라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것은 성경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논증이다. 그 이유를 복습을 겸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요약해 본다.⁸⁴

가. 신약 성경에는 매주[일요일] 혹은 매년[부활절] 단위로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일체 없다. 새로운 제도인 성만찬, 침례, 세족예식에 관하여 명백한 명령이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나. 신약 성경에는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고 부른 적이 결코 없고, 언제나 “안식후 첫날” 혹은 “매주일 첫날”(고전 16:2)로 불렀다. 그리스도교 문서에서 일요일이 “부활의 날”로 명명(命名)된 것은 3세기 뒤의 일로서 매주 일요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정착시키는 일이 부자연스러웠음을 알려준다.⁸⁵

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를 끝낸 사건이 아니었다.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10)는 선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봉사의 끝을 알리셨다. 또한 하늘에서의 봉사 시작은 오순절로서 부활하신 당일이 아니었다. 성경은 부활을 날짜로 기념해야 할 아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두 와서 함께 예배하자”는 말씀이 아니었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마 28:10)는 활동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일체 예배나 거룩함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다.

마. 부활을 성만찬과 연관하여 일요일의 의의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일요일에 성만찬을 거행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도 없고, 시작부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마 26:20~29; 고전 11:18~23). 성만찬은 부활의 기념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고전 11:26)이다.

바. 부활절-일요일의 발단이 된 유월절도 본래는 부활하신 일요일에 기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1월[Nisan] 14일이 해당되는 어느 날이나 준수 했다. 그것은 본래 그리스도의 수난(受難)의 기념이었

지 부활을 기념한 것이 아니었다.⁸⁶

사. 일요일 준수에 관한 초기의 기록들인 서기 135년경의 바나바 서신이나 서기 150년경의 저스틴 마티어(Justin Martyr)의 기록에 보면, 일요일이 부활의 기념이기보다는, “여덟째 날”로 “또 다른 세상의 시작”⁸⁷을 대표한 창조의 첫날⁸⁸임에 의의를 두었음을 보게 된다.

아.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만찬으로 기념하듯(고전 11:26), 부활은 침례로 기념하도록 성경에 명시되었다(벧전 3:21; 롬 6:5).

이상의 몇 이유들을 보더라도 일요일 준수가 부활에 기초했다는 논증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것도 아니며 논리적인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 그 근거와 기초가 있는 것인가? 주지(周知)된 대로 성경에는 그 근거나 기원이 없으므로 성경 밖의 역사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그 기원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일요일 예배 외에도 성탄절로 일컬어지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기원(起原)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총회(서기 49년경) 당시

사도 바울의 이방선교로 야기된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제 1차 그리스도교 세계 총회적인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사항을 살펴보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장애가 된 할례 등의 의식들은 폐지하기로 결의했어도 안식일 준수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로도 거론되지 않았다(행 15장). 같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같은 안식일에 같은 성경[구약]을 사용하여 예배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차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부와 침례, 성만찬 등 의식 외에는 두드러진 것이 없었다.

안식일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구별하는 조건이 결코 아니었다. 총회 의장이었고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예루살렘교회 장로들은 훨씬 후인 서기 58년경,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중에 “수만명이 … 율법에 열심있는자라”(행 21:20)고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식일 대신 일요일 준수에 앞장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⁸⁹

예루살렘 멸망(서기 70년) 이후

구약(단 9:26, 27)과 복음서(마 24:15, 16)에 다같이 예언된 예루살렘의 대파멸이 참으로 안식일을 폐지하고 일요일을 준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마 24:20)는 예수님의 권고에 따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요단 동편 펠라(Pella) 지방에 정착했다는 사실이 4세기 역사가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 315~40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들은 “본래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직계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오랫동안 안식일을 비롯하여 할례까지 준수했음을 보아, 예루살렘 멸망이 안식일 준수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확인 시켜준다.⁹⁰ 예루살렘 멸망 후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Vespasian · 69~79)은 산헤드린 의회와 대제사장 제도는 폐지하고 성전에서의 예배는 금했으나,⁹¹ 안식일 준수 자체를 법으로 금하지는 않았다.

바르—코케바 반란(A. D. 132~135) 이후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여 안식일에 예배한 사실과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회당의 기도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문구까지 첨가한 실례가 있다.⁹² 그러나 서기 132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안(Hadrian · A. D. 117~138)이 예루살렘에 로마의 주신인 주피터(Jupiter)의 신전을 건립하려는 계획에 항거하여,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하는 지도자 바르—코케바

(Simeon Bar-Kokeba)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은 안식일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일개 군단의 전멸 등 로마군의 막대한 손실과 함께 유대인만도 58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내면서⁹³ 135년까지 3년간 계속된 이 반란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폐허가 되었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축출되어 출입조차 금해졌다.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증오는 극에 달하였으며, 유대교를 불법화하고 그들의 종교의식 자체를 사형을 벌칙으로⁹⁴ 엄금하였음을 유대인의 고전[탈무드]에서 찾을 수 있다.

“로마 정부는 칙령을 발하여 그들이 토라[모세 오경 등 구약 성경]를 연구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했고, 안식일을 모독하도록 했다.”⁹⁵

로마 정부는 서기 70년의 반란 이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과세(課稅)를 부과했고,⁹⁶ 반유대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으며,⁹⁷ 특별히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와 할례를 미신 행위로 간주하고 혹평했다.⁹⁸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려져 온 초기의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 오인(誤認)되어, 무고한 증오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바르 코케바 반란사건으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이러한 여건에서 그리스도교가 취할 수 있었던 자구책(自救策)은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변증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의식하고 나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지식인들이 2세기에 대량으로 출현한 그리스도교 변증교부(辨證敎父)들인 것이다. 그들은 로마제국에 그리스도교를 변호하는 변증서를 써서 상신하는 한편,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를 경멸하고, 안식일과 할례를 정죄하는 활발한 활동과 변론을 계속했다.⁹⁹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폐지한 할례는 물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의심없이 준수해 온 안식일까지도 유대교의 관습으로 돌려 거기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회당 참석을 금지했고, 그들은 모함하고 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대 행위가 증가되었다.¹⁰⁰

로마교회와 일요일의 기원

유대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증오가 더욱 피부로 느껴진 곳은 역시 수도인 로마였다. 동시에 이방인 신자가 다수였던 로마의 그리스도교회는¹⁰¹ 핍박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하여는 유대교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강박감(強迫感)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두 사람이 비슷한 때 로마교회에 등장했다. 하나는 순교자로 알려진 교부 저스틴(Justin Martyr · c. 100~165)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靈知主義) 이단자로 낙인찍힌 마르시온(Marcion · d. 160)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도덕한 과거 때문에 구약과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과 안식일을 증오했다.

유대인을 미워하던 당시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그의 이단적인 가르침 가운데는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날에 금식”¹⁰²하라는 강조도 있었다. 로마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출교시키기는 했지만, 그의 가르침에 일치하게, 본래 즐겁게 잔치하던 안식일을 슬프게 금식하는 날로 정하여 역대의 감독[교황]들은 이를 법으로 강행했다.¹⁰³ 아무리 엄격한 유대 종파들도 안식일에는 절대 금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좋은 음식을 넉넉히 장만하여 잔치를 즐겼었다.¹⁰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즐겁게 잔치하는 날로 보냈으며, 실제로 안식일에 금식을 강요한 로마 교회의 처사에 대해 동방의 교회들과 암브로스(Ambrose · d. 397) 감독,

당시의 밀라노(Milan) 교회 등 서방의 중요한 교회들도 이를 적극 반대했다.¹⁰⁵ 안식일을 금식일로 만든 로마 교회는 그 날에 행하던 성만찬이 금식을 깨뜨린다는 명목으로 그것마저 금함과 동시에 종교적인 모임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¹⁰⁶

“잔칫날이요 기쁨의 날이며, 종교적인 축제일이었던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슬퍼하는 날이요, 종교적인 아무 집회도 없는 날로 바꾸어버린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대한 숭경심(崇敬心)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위해 로마 교회가 취한 구체적인 방편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실천사항은 안식일의 금식이 지난 후에 일요일을 기쁨과 축제의 날로 드높여지게 했다.”¹⁰⁷

19세기 루터교의 교회사가인 네안더(Augustus Neander)는, “동방 교회에 서는 안식일에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었다”¹⁰⁸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 교회의 여러 교회들 특히 로마 교회와 스페인 교회는 유대인과 유대주의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로 지키도록 이끌어 나갔다.”¹⁰⁹ 로마교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식일은 점점 어두운 그늘 속에 가려지고 일요일은 가광을 받는 축제일로 부각된 것이다.

그리스도교와 태양의 날

주이트(Jewett)의 말처럼 2세기의 교부 저스틴(Justin Martyr)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지로라도 그의 군주인 황제(Antonius Pius)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¹¹⁰ 로마제국이 혹성신(惑星神)들 가운데 최고신으로 높이기 시간한 태양을 위해, “태양의 날”[일요일 · the day of the Sun]이라는 명칭을 그의 변증서에서¹¹¹ 제일 먼저 사용한 그리스도교 저자¹¹²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작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부정하고 경멸하는 한편 일요일을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격상(擊賞)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다.¹¹³ 아래에 인용된 일요일 성수론자 주이트(Jewett)의 설명은, 그전까지 이교도의 숭배 대상이었던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중심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Sunday)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자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 말이 빛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창조 기사를 설명하는 데도 일요일이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일 첫날에 빛을 만들었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던 것이다. 찬란한 영광 중에 승천한 후 그리스도는 지금 그의 진리로 우리를 비추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일요일에 재림한다는 전통이 세워지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에 서서 기도를 하되 동쪽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했다.…기원 4세기 이래 일요일이란 명칭은 그리스도교의 용어가 되어 있었다.”¹¹⁴

이러한 주이트의 설명은, “밤의 어두움을 쫓는…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기도들이 드러진다”¹¹⁵는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Clement · A. D. 150~215)의 진술로 뒷받침된다. 그리고 “해 뜰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기도하고…해 질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도할 것”¹¹⁶을 권면한 3세기 칼다고의 감독 키프리안(Cyprian · d. A. D. 258)의 기록과도 잘 어울린다. 일반 자연신교(自然神敎)에서 태양을 숭상하게된 과정과 흡사한 우상숭배적인 예배 현상이다.

로마 교회와 부활절—일요일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력(聖歷) 1월[니산 · Nisan] 14일, 곧 유월절(逾越節) · Passover)을 그리스도의 수난(受難) 기념과 무교절의 영적 의미를(고전 5:6~8) 새 언약에 연관시켜 오랫동안 준수해 왔다(고전 11:23~26). 그러나 유대인의 제 1차 반란(A. D. 70)과 제 2차 반란(A. D. 132~135)이후, 유대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증오가 심각해지고 마침내는 유대교가 불법 종교가 되자, 안식일 준수와 함께 이와 같은 유월절 수난기념도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으로 오해시키는 구실이 되어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안식일 대신 일요일 준수에 앞장선 것이 로마 교회였듯이, 유월절 수난행사 대신 부활절을 확립시키는 일에도 로마 교회가 앞장을 섰다. 그리하여 2세기 중엽에 이르러 1월 14일 유월절 수난기념일 대신에 유월절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일요일(Easter—Sunday)로 날짜를 바꾸어 준수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자 이를 반대하는 동방의 교회와 큰 충돌을 빚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부활절—일요일 논쟁(Easter—Sunday Controversy)이다.¹¹⁷

부활절—일요일을 반대한 편은 주로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봉사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로서 요한의 제자로 순교자가 된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르프(Polycarp · A. D. 155)를¹¹⁸ 비롯하여 에베소의 이름난 감독 폴리크라테스(Polycrates · A. D. 130~196) 등이 있었다. 이에 맞선 로마교회의 감독은 식스투스(Sixtus · 116~126)를 시작으로,¹¹⁹ 아니케투스(Anicetus · 154~165), 빅토르 1세(Victor I · 189~199)로¹²⁰ 이어졌다.

논쟁은 계속되었으나 유대인에 대한 로마인들의 증오심 때문에 시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로마 교회는 오랫동안 준수되어 온 안식일과 유월절 수난 기념일 대신 매주 일요일과 매년 부활절—일요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과 명절로 확립시키는 일을 쉽사리 수행 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321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Constantine)의 주재로 개최된 역사적인 니케아 종교회의(the Council of Nicaea) 칙령(勅令)에 포함된 감독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동방에 있는 교회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지 말고, 로마 교회와 같은 날을 부활절로 기념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오랜 부활절—일요일 논쟁에서 로마 교회가 승리했음을 공인했다.¹²¹ 이러한 일련의 배경 때문에 부활절을, “로마 교회—부활절”(Roman—Easter)이라고 부르기에 이른 것이다.¹²²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교의 최대 명절이 된 부활절[Easter—Sunday]의 진상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스터”(Easter), 독일어로는 “오스틴”(Ostern)으로 불리는 이 명절은 그 근원을 전혀 성경에 두고 있지 않음을 교부들의 기록과 부활절—일요일 논쟁 역사를 살펴보면 당장에 알 수 있다. 다음은 5세기의 교회사가 소크라테스(Socrates · d. 450)의 증언이다.

“이스터[부활절] 축제가 준수되었다는 지적이 신약 성경이나 사도 교부들의 기록 어디에도 없다.…주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이것[부활절]이나 다른 축제를 명하신 적이 없다. 이스터[부활절]도 많은 다른 관습이 그렇게 수립된 것처럼 교회가 [이교]의 옛 용도를 바꾸어 영구하게 한 것으로 돌려진다.”¹²³

고대 앵글로 · 색슨족들이 섬겨온 봄의 여신“오스타라”[Ostara 혹은 Eostre]를 위하여 베풀어졌던 다산(多産)을 비는 봄의 축제(祝祭)가 “이스터”이다. “동쪽(Ost)에서 태어나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오는 봄의 태양”¹²⁴을 상징하기도한 이 여신은 “부활절 달걀”이나 “부활절 토끼”가 드러내듯 왕성한 생식(生殖)과 다산(多産)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 봄의 여신 “오스타라”[혹은 Eostre]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가나안의 다산(多産)의 여신 아스다롯(Astarte)¹²⁵과 흡사한 비종교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삿 2:13; 10:6; 삼상 7:3, 4;

왕상 11:5, 33).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은 고대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사랑과 다산의 여신인 “이슈타(Ishtar)와 같은 존재임이 밝혀졌다.¹²⁶ “여하튼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의 경우처럼, 고대 이교의 축제를 대신한 것임이 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¹²⁷

로마 교회와 크리스마스

부활절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최대 명절이 된 크리스마스 역시 앞서의 일요일이나 부활절-일요일처럼 태양 숭배와 연관된 이교의 축제일이었음이 이교의 고대 문헌에서 확인된다. 크리스마스의 근원이 된 이교의 절기는 라틴어로, “디에스 나탈리스 솔리스 인비크티”(dies natalis solis invicti)였는데 그 뜻은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이었다.¹²⁸

“동지(冬至)가 지난 후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정복할 수 없는 항성[태양]이 다시 흑암을 이길 때인 ‘새로운 태양’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축하하도록 매우 일반적인 준수가 요청되었다.”¹²⁹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거듭 확인되듯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선택한 것은 이교의 행사였던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축제가 그 당시 대단히 화려하게 축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이 점차적으로 확실해졌다.”¹³⁰ 그리하여 4세기의 달력[Philocalian Calendar · A. D. 354]에는 12월 25일이 아예 “정복할 수 없는 자의 생일”로 명명(命名)되어 있었으며, “로마 가톨릭교회는 [페르샤의 태양신 교인]미트라 종교(Mithraism)와 겨룰 목적으로 12월 25일을 택한 것으로 믿는다”¹³¹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축하한 것이 로마 교회였음을 밝히는 달력도 발견되었고,¹³² 로마 가톨릭교회 의식(儀式) 학자에 의해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증언 가톨릭

“평화가 이룩된 후 로마 교회는 이교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이교의 축제에서 돌아서도록, 흑암의 정복자인 ‘무적(無敵)의 태양’ 미트라(Mithras)를 영광스럽게 하는 같은 날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임시적인 생일로 제정하는 것이 편리한 것을 발견했다.”¹³³

로마제국과 태양 숭배

일정한 종교가 없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태양은 자연숭배의 대상으로 걸맞았다. 「옥스포드 교회사 사전」에 의하면, 로마에서 공식적인 태양숭배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67년 페르샤의 태양신인 “미트라”(Mithras)가 소개되면서부터였으며, 2세기 말에는 콤모두스(Commodus · A. D. 180~192) 황제에 의하여 황실의 종교가 되기 이르렀다.

그런데 “아버지”(father)로 불리우는 제사장들에 의해 집행되는 태양신교(Sun Cult)의 의식이 그리스도교의 성례전들과 너무도 흡사하여, 당시의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은, 사단이 그리스도교의 성례전을 그들이 모방하도록 미리 알려줬다고 할 정도였다.¹³⁴

이토록 2세기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황제들과 군인 및 고관들의 사적(私的)인 종교가 된 페르샤의 태양신은 “무적(無敵)의 미트라 태양”(Sol Invictus Mithra)으로 불리우며 로마제국의 국교로 발돋움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공적(公的)으로는 엘라가발루스(Elagabalus · 218~222) 황제가 국교의 대상으로 드높인 태양신(Sol Invictus Elagabal)을 장엄한 신전들에서 숭배하고 있었다.¹³⁵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로마는 이미 혹성신(惑星神)의 이름을 딴 오늘날의 요일 명칭을 쓰고 있었음이 고대 문서들에 의해 밝혀졌다.¹³⁶ 2세기에 이르러 이 혹성 요일의 명칭은 더욱 확산되었고, 당

시는 혹성에 포함되어¹³⁷ 토성일[토요일 · the day of Saturn] 다음인 둘째 날에 배정되었던 “태양의 날” 곧 일요일(the day of the Sun)이 2세기 초엽¹³⁸ 토성일을 제치고 첫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¹³⁹ 태양숭배가 고조되던 시대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교도들은 일요일에 공식적인 태양 숭배의 식은 행치 않았지만 목욕을 금하고 휴식하고 잔치하는 날로 보냈음을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 · 160~225)의 기록에서 찾게 된다.¹⁴⁰

2세기 중엽에는 이미 태양의 날[日曜日]을 첫째날로 하는 오늘과 같은 일[태양], 월[달], 화[화성], 수[수성], 목[목성], 금[금성], 토[토성] 등 혹성요일이 확립되어 있었다.¹⁴¹ 그래서 로마의 초기 교부였던 저스틴(Justin Martyr)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기 155년 경 로마 황제(Pius)에게 변증서를 올리면서, 세 번씩이나 “태양의 날”을 거론하면서 이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모여 집회하는 습관에 관한 말을 하여 태양을 숭배하던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한 배경을 알게 된다.¹⁴²

로마 교회와 일요일 준수와 태양 숭배

이상과 같은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확실하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즉 서기 135년에 끝난 바르-코케바(Bar-Kokeba)의 반란을 계기로 유대교가 하드리안 황제에 의하여 불법 종교가 되고 구약 성경[토라] 연구와 할례와 안식일 준수가 금지되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구별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했다. 특히 로마 교회는 이 일에 앞장을 서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일을 시도했다.

-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그 때까지 함께 준수해온 안식일을 로마 사람들이 선호(選好)한 “태양의 날”[일요일]인 첫째 날로 옮기기 위해 동방교회들의 반대를 외면하고 안식일에 금식을 강요하고 성만찬을 금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¹⁴³
- 초기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유월절 수난과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켰던 1월[니산] 14일 대신 날짜를 무시한 채, 유월절 이후의 첫 “태양의 날”[일요일]을 부활절-일요일로 제정하고 동방교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관철시켰다. 일요일과 함께 부활절[이스터] 자체가 태양과 관련된 이교도의 축제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 당시에 이미 민속신앙이 된 “무적의 태양”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일컫는 크리스마스와 일치시켜 태양신이 누리고 있던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전환시키는 계기를 삼았다.

이토록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일요일 준수가 이교의 태양숭배와는 전적으로 무관(無關)하다는 아래와 같은 주이트(Jewett)의 변명은 어떤 면에서도 진실하지 않다.

증언 주이트

“태양숭배는 먼 태고로부터 있었던 일이며 그리스도교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유대인의 일주일 중 첫날이 태양숭배하는 이교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이 일요일에 예배드릴 때 그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¹⁴⁴

변증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태양을 향해 기도하는 등 그리스도인의 각종 종교 의식이 태양숭배와 직접 관련되자,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숭배자(Sun-worshiper)라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2세기말의 서방 라틴교부 터툴리안(Tertullian)은 이에 대해 변명을 해야 했으며,¹⁴⁵ 5세기 초의 로마 교황 레오 1세(Leo I · d. 461)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에 공격을 가하기에 이르렀다.¹⁴⁶ 또한 6세기 초의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유세비우스(Eusebius ·

c. 500)도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럼 10 일찍이 하나님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된 태양숭배는(신 4:19; 17:3) 인류의 역사만큼 오랜 우상숭배이다. 고대 셈족들은 “샤마슈”(Shamash)라는 신으로, 이집트 사람은 “라”(Ra), 또는 “아톤”(Aton)신으로, 페르샤 사람은 “미트라”(Mithras)로, 헬라와 로마 사람은 “아폴로”(Apollo) 신의 이름으로 섬겼다. 일요일, 크리스마스 등 그리스도교의 축일들도 태양숭배와 연관된 관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진은 아톤신을 경배하는 이집트의 아켄-아톤(Akh-en-Aton) 왕과 왕후.

증언 교회사

“나는 태양을 숭배하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해가 뜰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한다. 이런 일을 태양숭배자나 이교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떠나서 이교도들과 어울려 이 일을 한다.”¹⁴⁷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A. D. 321)

앞에서 언급한대로 2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인들의 태양숭배열이 높아지고, 혹성요일의 둘째 자리에 있던 “태양의 날”[일요일 · dies Solis]이 “토성의 날”[토요일 · dies Saturni]을 제치고 첫째 날이 되는 등¹⁴⁸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었다. 바로 같은 때에 유대인의 제 2차 반란으로 로마 제국에 의하여 불법종교가 된 유대교와 구별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던 그리스도교, 특히 로마 교회가 앞장 선 서방 교회는 동방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로마의 태양숭배 분위기를 수용(受容)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확인했다.

때마침 동서로 나뉘었던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콘스탄틴(Constantine · d. 337)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the Edict of Milan)을 내려 종교자유를 허용하는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잇달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온갖 특전을 제공하는 일련의 정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더할 나위 없는 환심을 사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황제는 321년 3월 7일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칙령을 내렸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관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 준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재배함에 있어 그토록 적합한 때가 없는 수가 있으므로 적기(適期)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날에 완전히 자유롭게 농경(農耕)에 종사하도록 하라.”¹⁴⁹

콘스탄틴 황제가 휴업하도록 명령한 날의 대상인 “존경스러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제 자신을 포함한 로마인들이 섬겨온 “무적(無敵)의 태양” 곧 “미드라”(Mithras) 태양신이었다.¹⁵⁰ 국내에서 발간된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도 이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증언 대백과

“그리스도교 시대 초기에 로마 제국에서, 특히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수많은 동방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페르샤로부터 수입된 미드라 종교[Mithraism]였다. 미드라는 태양신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드라 종교는 일요일을 성일로 간주했다. 이러한 이교적인 종교의 추종자들이 이 날을 숭배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제국의 휴일로 선정하는 데 공헌하였다.”¹⁵¹

「대영 백과사전」에도 일요일이 세계적인 휴일이 된 데 대해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증언 대백과

“유세비우스[Eusebius · 260~340]에 의하면 일요일을 함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콘스탄틴인데, 그는 전 로마 제국이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하하도록 명령하였다.”¹⁵²

“서기 321년 그 [콘스탄틴]가 일요일을 일반적인 공휴일로 선포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를 함께 마음에 두었다.”¹⁵³ “태양의 날은 이교도 추종자들에 의하여 숭배를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영광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상충하는 관계를 연합시킨 것이 황제의 정책이었다.”¹⁵⁴

“[콘스탄틴] 황제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이교도들은 그들의 태양신을 섬기는데, 두 조교의 예배의 대상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었다.”¹⁵⁵

콘스탄틴의 정책과 일요일 휴업령의 진상

콘스탄틴의 개종(改宗)은 명목적(名目的)이었으며, 그는 평생 태양숭배자였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도 고대 회랍과 로마의 태양신인 아폴로(Apollo)를 높이기 위해 주화(鑄貨)를 만들어냈으며 죽기까지 이교[태양신]의 대제사장의 칭호[Pontifex Maximus]를 썼다. 그는 그리스도교와 이교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정책을 썼다.¹⁵⁶ 이러한 콘스탄틴 황제가 휴업하도록 명령한 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성일(聖日 · holy day)이 아니라, 운동경기나 오락을 즐기는 세속적인 휴일(休日 · holiday)에 불과했다.



그림 11 콘스탄틴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대신 종교 자유를 베푸는 등(313년) 관용책을 써서 그리스도교를 통일된 제국을 유지하려는 그의 정책에 이용했다. 321년 3월 7일에 선포한 최초의 일요일 휴업법은 그리스도교를 이교와 화합시키려는 그의 성공적인 정책의 본보기이다. 사진은 이교도였던 그가 공중에 나타난 십자가를 힘입어 그의 적수였던 막센티우스(Maxentius)를 물리쳤다는 밀비안 다리(Milvian Bridge) 전투 광경이며, 사진 (상)은 로마에 있는 그의 거대한 조각상의 얼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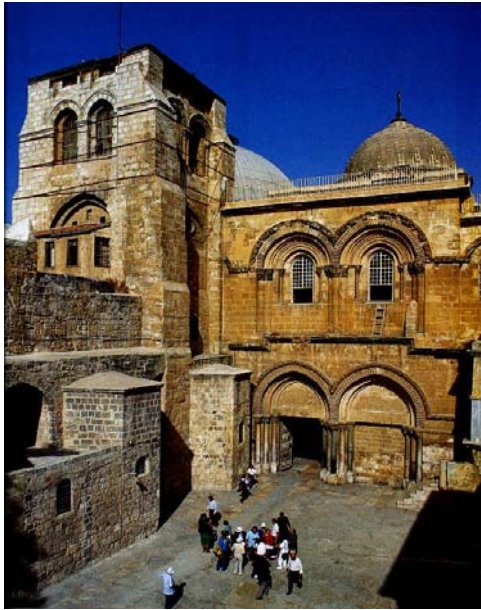


그림 12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께서 장사된 무덤으로 생각되는 곳에 짓도록 한(335년) 예루살렘의 성 분묘 교회이다.

태양의 이름으로 휴식을 명령한 이교적인 정책을 교회지도자들이 오히려 추진하고 환영한 까닭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불법 종교가 된 유대교와 구별되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저의(底意)였다. 그러나 313년 밀라노 칙령에 따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고, 명목적인 개종을 거친 콘스탄틴 황제는 성직자들에게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고 사법상의 특혜, 하사금 지급 등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고, 교회의 사유재산과 유증(遺贈)까지도 허락하는 등 정치적 배려가 깊어지자 그리스도교는 금세 현실에 눈이 어두워진 퇴폐적인 정치 종교로 탈바꿈하고 말았다.¹⁵⁷ 성직 매매가 시작되고, 성직 쟁탈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 동원되어 366년 로마교회 감독 다마스스(Damasus)를 선출할 때는 폭력배들이 동원되었고, 415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직에 나섰던 히파티아(Hypatia)가 폭력배에게 맞아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¹⁵⁸

일요일의 주일(主日)로 옹호하는 주이트(Jewett)도,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은 여기 [일요일]에 대한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기술적으로 결합”시킨 것임을 인정하고, “그의 칙령은 주일(主日) 성수의 발달과정에서만 획기적인 사건이 되지 않고, 그의 정치적 영특성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될 수 있”¹⁵⁹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참으로 주일(主日) 성수(聖守)의 발달과정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는 하나님의 명령은 외면하고, 속(俗)된 휴일로 지정한 콘스탄틴의 명령에 따라 일요일의 성수(聖守)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일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제 1차 세계 총회인 니케아 종교회의(A. D. 325)도 콘스탄틴 황제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화려하게 열렸고 황제 자신이 임석하여 개회사를 하기에 이르렀다.¹⁶⁰ 그리고 동서교회가 부활절-일요일의 날짜 문제로 이견을 보이자 황제는 즉시 로마 교회를 편들어, 모든 감독들로 하여금,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교회”의 관습을 따르도록 명령하는 등¹⁶¹ 세속의 황제가 교회 우에 군림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결국 200년 이상 계속된 로마 제국의 핍박을 “죽도록 충성”(계 2:10)함으로써 이긴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온갖 호의를 베풀면서 타협을 시도한 콘스탄틴 황제의 정책에 쉽사리 넘어간 것이다. 이것이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하게 된 역사적 반증이다.

“콘스탄틴은 이 때에 옛 신앙과 새 신앙의 예배자들을 한 종교로 연합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의 모든 법령들과 고안들은 두 종교의 혼합을 촉진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순화된 이교와 온건한 그리스도교를 함께 녹이려 했다.···‘태양의 날’이 일반적인 휴일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명령은 그의 입장을 대표한 것이다.···그리스도교와 이교를 뒤섞고 혼합한 그의 일을 가장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인 것이다”¹⁶²

오늘날처럼 거의 온 세상이 일요일에 쉬게 된 것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휴식하며 예배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일요일 성수론자인 주이트(Jewett)는, “일요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쉴 것을 제일 처음으로 분명히 언급한 저자는 [2세기 말의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 · 서기 200년경)이”라고 밝힌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증언 주이트

“이야기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콘스탄틴의 칙령과 함께 시작된다. 그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일요일]의 꽤 많은 시간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알았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게으름이란 과중한 노동과 같이 정신적 수양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3 북아프리카의 칼다고 출신 교부인 터툴리안(Tertullian, d. 240)은 신자들에게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고 가르친 최초의 교부이다. 성경에는 일요일에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는 말씀이 일체 없으므로, 그 근거를 인간의 전통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의식적인 행위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 구약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금령들을 빙자하여 쉬라는 요구에다 종교적 열성과 의무를 지우려 하였다. 그치고 일요일의 휴식에 대한 이 법은 시민법의 지지까지 호소하였다.¹⁶³

그리스도교회의 공식적인 일요일 준수

주이트의 솔직한 증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콘스탄틴의 일요일 휴업령 때문이며, 쉬는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그 때 그 때 이런 저런 종교 행사를 덧붙여 온 것이 오늘날의 일요일 예배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한 사람이 바로 가이사라의 감독으로 콘스탄틴 황제와도 가깝게 지낸 교회사의 비조(鼻祖)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 c. 260~340)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와전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세비우스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음을 다음의 인용에서 보게 된다.

“우리[교회]는 안식일에 관한 모든 의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의 날[主日]로

옮겼는데, 이는 이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보다 더 권위가 있고, 높이 존경을 받고, 순서에서도 첫 번이고 더 영예롭기 때문이다.”¹⁶⁴

이 토록 참람되고 모독적인 뒷받침들을 통하여 촉진되어 온 교회 내에서의 일요일 준수가 마침내 364년경에 열린 라오디게아 종교회의(Council of Laodicea)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되기에 이른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이 날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만일 그들이 유대화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¹⁶⁵

이상과 같은 사실은 1910년 1월 25일 교황 피우스 10세(Pius X)로부터 “사도적인 축복”(Apostolic Blessing)을 받은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문 :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 가톨릭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¹⁶⁶

진상이 분명해졌다. 로마 황제[콘스탄틴]는 제국 내의 이교와 그리스도교를 정치적으로 연합시키는 일을 위해 일요일을 활용하였고, 로마 교회는 정치적인 권익을 제공하는 일요일을 발판으로 회심하지 아니한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교에 입문(入門)시켜 마침내 중세기를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입지(立地)를 확보한 것이다.

이리하여 일요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제안한 최초의 교부인 터툴리안(Tertullian · d. 225)의 말고,¹⁶⁷ 안식일에는 일하고 일요일에는 쉬라고 결의한 최초의 회의인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의 결의와,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에는 일하지 말라는 최초의 법인 콘스탄틴의 칙령을¹⁶⁸ 따르기 위해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니라”(출 20:11)고 이유까지 밝혀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유린해도 되는가? 그것이야 말로, “너희 유전[傳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마 15:3)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에 관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직설적인 증언을 아래에 인용한다.

증언 가톨릭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안식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지키므로써 비가톨릭신자들은 1800년간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처럼 토요일[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틀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¹⁶⁹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 보증이 없다. 이 점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일관성이 있는 개신교이다.”¹⁷⁰

9. 사도시대 이후의 안식일 준수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창조와 동시에 제정된 안식일은 기나긴 구약 시대를 통하여 단절(斷絶) 없이 기억되고 준수되어 왔음을 보았다.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의 포로 등 안식일 준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극한 상황은 구속(救贖)을 통하여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主)가 되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극복되어 회복을 거듭하면서 신약 시대로 접어든다.

신약 시대 이후 현금(現今)까지의 안식일 준수 역사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 본 일요일 준수의 역사적 기원이 불분명한 데 반하여 안식일의 기원과 준수의 역사는 이미 신, 구약 성경에서 확인되고도 남았다. 이제는 아주 간단히 신약 성경을 벗어난 이후의 역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1세기 예루살렘 멸망 전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인 감람산 설교에서 서기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마 24:20)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이후까지 계속될 철저한 안식일 준수를 확증하셨다. 마태가 서기 60년을 전후하여 마태복음을 쓸 당시까지 안식일이 지켜졌음이 논리적으로 분명하다.¹⁷¹ 십자가 직후에 안식일이 지켜진 기록과(눅 23:54, 55), 사도행전이 쓰여진 서기 61~63년경까지 안식일이 철저히 지켜졌음은 사도바울의 행적에서 뚜렷해진다(행 13:14, 42, 44; 15:21; 16:13; 17:2; 18:4).

예루살렘 멸망 이후인 1세기 말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셰모네 에스레”(Shemoneh Esreh)라는 유대인 회당의 기도문 가운데, 회당에 참석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 저주가 들어있음을 보아 확실하다.¹⁷² 또한 4세기의 팔레스틴 출신의 감독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 315~403)는 예루살렘 멸망시 도망쳐 나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때까지 계속하여 안식일을 준수했음을 증언하고 있다.¹⁷³

제 2세기 바르—코케바 반란 이후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135년의 바르—코케바 반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간간히 다하던 때 쓰여진 교부들의 문서들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요일에도 모이는 습관이 있었음이 바나바의 서신(The Epistles of Barnabas), 저스틴 마르(Justin Martyr)의 글, 도마의 복음서(The Gospel of Thomas), 폴리카르프의 순교(Martyrdom of Polycarp) 등에 예시되어 있다.¹⁷⁴

제 3세기 이후 제 10세기 까지

서기 321년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된 후에도 안식일 준수가 계속 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동방의 많은 교회들은 일요일처럼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서방 교회들은 유대인의 제도를 반대하는 방법으로 그 날에 금식을 실시했다.”¹⁷⁵

364년경에 개최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비록 안식일에는 일하고 일요일에는 휴식하라는 반성서적인 결의는 했어도[29항], “안식일에는 복음서와 다른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라”[16항]고 규정하고, “사순절(Lent) 동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빵을 드리지 말라”[49항]고 한 것을 보아 안

식일을 지키는 당시의 분위기를 신중히 고려했음을 알게 된다.¹⁷⁶

서기 386년과 387년에 동방의 교부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이 행한 설교 내용과,¹⁷⁷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다나시우스(Athanasius · d. 373)와 키릴(Cyril · d. 444) 등¹⁷⁸ 여러 교부들이 계속하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신자들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5세기의 교회사가인 소크라테스(Socrates Scholasticus · d. 450)와 소조멘(S. H. Sozomen)도¹⁷⁹ 안식일을 준수하는 습관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안식일에 그 거룩한 신비를 축하하고 있는데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대의 관습 때문에 그런 일 하던 것을 그쳤다.”¹⁸⁰

8세기의 마지막 동방 교부 다마스쿠스(John Damascus · d. 749)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해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경고하는 글을 남기고 있으며¹⁸¹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안식일을 준수한 고백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¹⁸²

단속이 심했던 서방에서도 안식일 준수를 금하는 규제가 종교회이나 교황들에 의하여 계속 강화되었음을 볼 때, 안식일을 준수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교황 그레고리 1세(Gregory the Great · 540~604)는 그의 교서(敎書)에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왜곡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가르침, 곧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중지해야 한다는 그런 하찮은 교리를 여러분들 가운데 유포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내게 접수되었다. 나로서는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설교자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¹⁸³

서기 796년 [혹은 797년]에 북이태리에서 개최된 종교회의 [The Council of Friuli]의 결의 제 13항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농부들을 정죄하고 있다.¹⁸⁴ 10세기에는 방금 개종한 불가리아인들이 교황 니콜라스 1세(Nicholas I)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어, 안식일 준수의 관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¹⁸⁵

제 11세기 이후 제 15세기까지

서기 1054년 로마 가톨릭교회와 회랍정교가 갈라질 때 논쟁이 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 금식을 강요하는 로마 교회의 태도였다.¹⁸⁶ 교황 피우스 9세(Pius IX)의 사절이었던 추기경 험버트(Humbert)는, “[안식일에 금식을 반대하는] 동방교회 신자들은 유대인과 더불어 안식일을 준수하기로 선택했다”¹⁸⁷고 비난했다. 직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케루랄리우스(Michael Cerularius)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일요일]과 꼭 같이 안식일을 영화롭게 하고 지켜 그날에 일하지 말도록 명령받았다”¹⁸⁸고 썼다.

12세기쯤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을 거의 완전히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교황 알렉산더 3세(Alexander III)때 쯤에는 일요일은 일몰부터 일몰까지 엄격히 준수될 것과 범할 경우 벌칙까지도 부과되었다.¹⁸⁹ 그러나 이 깊은 중세기의 암흑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이 아주 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12세기를 전후하여 북이태리와 남프랑스 일대를 중심으로 알프스를 요람으로 삼고 열렬한 성서 위주의 개혁운동을 전개한 왈덴스인들(The Waldenses)은 로마 교황권이 주도한 십자군과 종교재판의 표적이었다.¹⁹⁰ 그런데 이들이 활동한 지역들에서는 놀랍게도 안식일 준수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

다.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북이태리 지방에는 파사기니(Passagini)로 알려진 신앙 집단이 형성되어 안식일 준수를 계속했으며¹⁹¹ 북부 프랑스 일대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된 역사적 기록들이 보존돼 있다.¹⁹² 이 때쯤 저 멀리 스칸디나비아 일대에도 안식일 준수 운동이 일어나자 놀웨이 감독 볼트(Aslak Bolt)는 1435년 종교회의를 열어 이를 저지하기에 이르렀다.¹⁹³

제 16세기 종교개혁과 안식일 회복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의 선임교수요, 그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칼스타트(Andreas Carlstadt)는 안식일에 관한 논제를 발표하고 루터에게도 안식일 준수를 강조했으나 종교개혁의 다른 주제에 여념이 없었던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¹⁹⁴ 곳곳에서 로마 가톨릭의 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 때에 일요일과 안식일 준수의 정당성이 거론되었다.¹⁹⁵



그림 14 왈덴스인들은 12세기 프랑스 남부 리옹 사람 피터 발데스(Peter Valdes 혹은 Waldo)에 의하여 조직된 평신도 개혁자들이다. 남부 프랑스와 북 이탈리아 지역, 특별히 알프스 산맥의 피드몬트 계곡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은 로마교회의 전통을 거부하고,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았다. 연옥과 성자승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부인하였다. 이들이 활동한 지역에서는 안식일 준수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사진은 그들의 거처였던 왈덴스 계곡.

1534년 칼빈의 동료인 파렐(William Farel)은 솔본느 대학의 로마 가톨릭 학자인 퍼르비티(Guy Furbity)와 토론하는 자리에서 로마 가톨릭교회가 인간적인 제도들을 교회에 끌어들었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로마 가톨릭교회 대표는, “[가톨릭]교회는 그에게 주어진 권세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명령과 법규에 따라 일요일을 지킨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거든 “토요일에 안식하여야 한다”¹⁹⁶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파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한 날 일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휴식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 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아무 날이나 휴식한다면 큰 혼란이 생기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시했으며, 일요일 준수는 오직 가톨릭교회의 권위에 근거했음을 강조했다.¹⁹⁷ 인간의 모든 전통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만을 신앙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한 종교개혁의 원칙은 이렇듯 일요일 준수에 부딪혀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재세례파 운동과 안식일 진리를 위한 최초의 순교

이와 같이 모순 되고 일관성이 없는 종교개혁은 마침내 칼빈에 앞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열렬한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재세례파(Anabaptists) 개혁자들에 의하여 진로를 찾게 된다. 재세례파의 여러 분파 가운데 16세기 후기부터 안식일을 준수하는 독특한 그룹이 나타났다.¹⁹⁸

이들 가운데 본래 가톨릭 사제들이었다가 후에 루터교로 개종했던 글레이트(Oswald Glait)와 피쉬(Andreas Fischer)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후에 재세례파로 개종했다. 그리고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한 끝에 안식일은 변경할 수 없는 십계명에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간이 교회의 권위로 바꾸어버린 것은 다니엘서(7:25)에 예언된 대로,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한 작은 뿔인 교황권의 역사(役事)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¹⁹⁹

그들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콘스탄틴 황제와 교황 빅토르(Victor · d. 198)라고 선언했다.²⁰⁰ 피쉬는, “성경은 안식일에 대하여 그토록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 일요일에 관하여 그만큼 말한 구절들이 있다면 나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겠다.”²⁰¹고 선언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증을 폈다.

“십계명은 안식일을 포함한 열 가지 조항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은 십계명의 준수를 명령하고 있으므로 안식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야고보나 바울에 의하여 율법이 언급되었을 때, 그 율법은 안식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믿음은 율법을 세우기[롬 3:31] 때문에 안식일도 세우는 것이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안식일에 모임을 가졌으며, 그리스도와 사도들,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모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로마 교회 감독]교황 빅토르(Victor)와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을 지키도록 명한 첫 번째 사람들이다. 십계명은 영원한 것이다.”²⁰²

피쉬(Fisher)의 동료인 글레이트(Glait)의 논증도 반박할 수 없도록 조리정연(條理整然)했음을 당대의 기록에서 찾게 된다.

“글레이트의 가장 강력한 논증은 십계명의 수(數)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덟이나 아홉 계명이 아니라 열 가지 계명을 주셨으며[신 4:13; 10:4],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모두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도록 고수했다. [그는] 안식일도 함께 지켜지든지 아니면 다른 아홉 계명도 모두 거절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했다.”²⁰³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교회나 일반 개신교 모두에 대한 일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피쉬 부부는 1529년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부인은 그 당시 재세례파를 처형하던 방법대로 산 채로 물에 빠뜨려 죽었고, 남편은 피신했다가 잡혀서 1539년 그의 집 성곽에서 떨어뜨려 죽게 했다.²⁰⁴ 글레이트는 1545년에 잡혀서 1년 이상 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끌어내어 손발이 묶인 채 다뉴브강에 던져졌다. 목숨과 바꾼 안식일의 진리였다.²⁰⁵

이토록 국가와 교회의 가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비롯하여 지금의 루마니아 서북부인 트랜실바니아(Transylvania)를 비롯하여 보헤미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스위스, 모라비아, 놀웨이, 스웨덴, 핀란드,²⁰⁶ 스페인 등²⁰⁷ 각처에 안식일 준수가 끈질기게 대두되었음이 역사에서 확인되고 있어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 17세기 청교도 운동과 제칠일 침례교의 탄생

종교개혁이 성숙해 가던 16세기 말 영국에 뿌리를 내린 개혁교회 신자들 가운데 보다 철저한 성서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청교도(Puritans)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모든 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일요일도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처럼 거룩히 구별하여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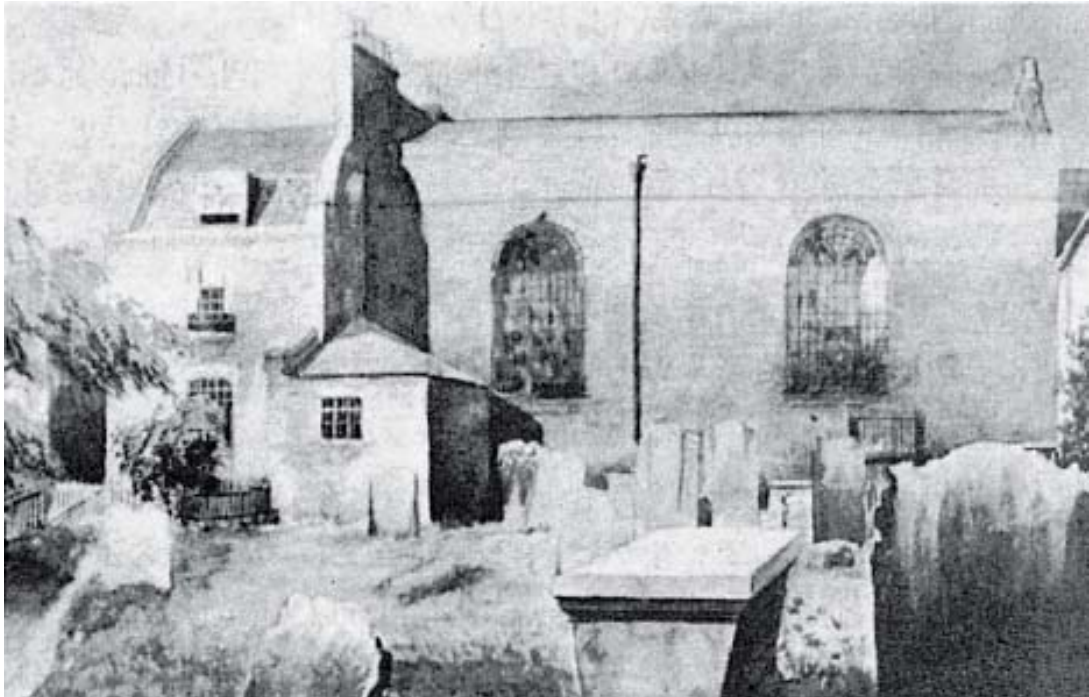


그림 15 1617년 청교도였던 트래스크(John Traske) 목사 부부가 회중과 함께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인 침례를 베푸는 최초의 제칠일 침례교회인 런던의 밀 야드(Mill Yard · 방앗간 마당)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초기 목사 제임스(John James)는 안식일을 가르친 죄목으로 1661년 11월 26일 교수형에 처해진 뒤, 다시 잘린 목은 장대에 꽂혀 그가 시무하던 밀 야드 교회 입구 맞은편에 전시되었다.

17세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된 가운데 이들 청교도 가운데 실제로 일요일 대신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무리들이 나왔다. 1616년 런던의 밀 야드(Mill Yard)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개최하던 청교도 목사 트래스크(John Traske · c. 1583~1636)와 교사였던 아니[Dorothy Traske]는 잭슨(Hamlet Jackson)의 도움으로 회중과 함께 성경적인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다음 해인 1617년에는 최초로 제칠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물에 잠기는 성인(成人) 침례를 베푸는 제칠일 침례교(Seventh-day Baptist)가 같은 곳에 세워졌다.²⁰⁸

그들은 직전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트래스크는 해상 감옥에 갇혀 모진 고생을 겪다가 신념을 굽혔으나 그의 아내는 신앙을 굽히지 않고 16년간 옥에 갇혀 온갖 수난을 겪다가 끝내 옥사하고 말았다.²⁰⁹ 그녀의 너무나 아름다웠던 옥중생활은 같은 때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던 시인 러브레이스(Richard Lovelace)로 하여금 불후(不朽)의 시를 쓰게 했다.²¹⁰

이렇게 세워진 제칠일 침례교 밀 야드교회의 초기 목사 제임스(John James)는 1661년 10월 19일 안식일 설교하던 중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26일 두 번이나 찰스 2세에게 애절한 그의 아내의 탄원

도 목살된 채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국은 그의 목을 잘라 장대에 꽂아서 그가 시무하던 교회 뜰에 전시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는 결과가 무엇임을 신자들에게 경고했다.²¹¹

같은 해인 1662년 국교의 목사였던 뱀필드(Francis Bampfield)는 신앙 문제로 투옥되었는데 옥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연구를 하던 끝에 안식일을 깨닫고 9년 형기(刑期) 동안 부단히 안식일을 가르쳐 옥중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제칠일 침례교 도르체스터 가옥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다.²¹² 출감 후 또 다른 제칠일 침례교[Pinner's Hall Seventh-day Baptist Church]를 세웠으나 안식일을 가르친 죄목으로 세 차례에 걸친 투옥 후에 70세 때인 1684년 2월 18일 좁고 습한 뉴게이트(Newgate) 감옥에서 안식일 진리의 고상한 댓가를 목숨으로 치렀다.²¹³ 진리를 위해 바쳐진 순교자의 생명은 씨앗이 되어 다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뱀필드 목사가 목숨을 바쳐 세운 “그의 교회로부터 지칠 줄 모르는 신자였던 뎀포드[Stephen Mumford]가 안식일 진리를 심기 위하여 미국으로 갔다.”²¹⁴ 그리고 뎀포드에 의하여 미국에 전해진 안식일 진리는 초기의 재림신자들에게 전달되어 마침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회인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²¹⁵ 뱀필드 목사는 생전에 안식일 준수를 옹호하는 두 편의 글을 남겼는데, 아래와 같은 대목도 있다.

“제칠일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시내산에서 율법[십계명]이 선포되기 전, 창조 당시 아담에게 주신 것이요, 아담 안에서… 온 세상에게 주신 것이다.… 주 그리스도께서 매주일 제칠일을 안식일로 평생 동안 준수하심으로써 넷째 계명에 순종하신 것은… 온전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완전한 의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신자들은 십계명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에 있어 그 분과 일치해야 한다.”²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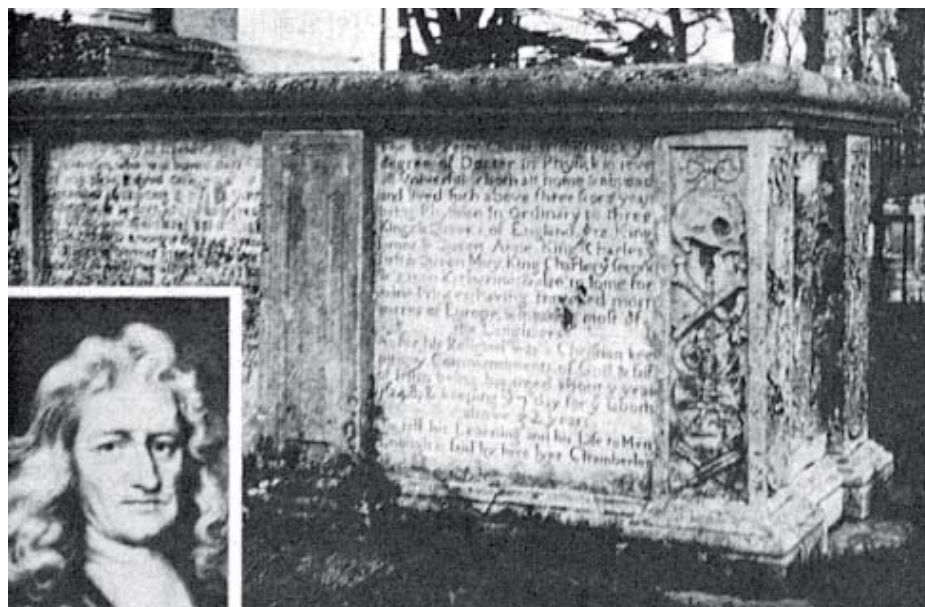


그림 16 영국왕 제임스 1세, 찰스 1, 2세와 왕후들의 궁중의사로 수치료와 산부인과 분야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피터 챔벌린(Peter Chamberlen)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32년간 안식일을 준수했으며, 4년간은 제칠일 침례교 목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형제 토마스 뱀필드(Thomas Bampffield)는 크롬웰 의회의 대변인으로 안식일을 옹호하는 글까지 썼다. 그러나 후에 그러한 그의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²¹⁷

옛새 동안 일하고 다시 맞은 안식일

이토록 생명까지 요구하는 희생과 수난 속에서 시작된 제칠일 침례교는 중세기 동안 무참히 짓밟혔던 안식일의 회복을 위해 피와 고난의 비싼 값을 치르며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해 나갔다. 영국의 세 국왕, 제임스 1세, 찰스 1세와 2세와 왕후들의 궁중의사요, 수치료(水治療) 개발 등 의학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챔벌린(Peter Chamverlin · d. 1683)은,²¹⁸ 주이트의 인용대로, “1651년부터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여” 죽기까지 32년간 안식일을 준수했다. “후에는 안식일에 예배하는 교회[밀야드 제칠일 침례교]²¹⁹에서 [두 번째] 목회하였던 챔블린은 다니엘 7장 25절이…참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해석을 지지하였다.…”

챔블린은 이 본문이 넷째 계명[안식일]을 뒤엎은…교황권에 대한²²⁰ 것 이라고 믿었다. 그는 안식일과 물에 잠기는 성인침례를 옹호하는 논문들을 썼다.²²¹ 당시의 상황에서 그의 공공연한 안식일 준수와 독립적인 신앙은 투옥 등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행위였으나 왕실 주치의사로서의 그의 독특한 지위와 러시아 황제까지도 그를 주치의로 초청한 대단한 명성은 그의 생명을 가까스로 보존시켰다.²²²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안식일을 제창한 또 다른 명사는 죠셉 스테네트(Joseph Stennett · d. 1713)로 신학 박사였던 그는 뱀필드 목사가 목숨을 바쳐 세운 제칠일 침례교 피너스 홀(Pinner's Hall)교회에서 목회하며 신학논문과 찬송과 작사로 신앙을 복돋았다. 그의 손자인 사무엘 스테네트의 이름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아래의 안식일 찬송은 그가 작사한 것으로²²³ 그의 마음에 사무친 안식일의 거룩함과 기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 옛새 동안 일하고

1. 나 옛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 다시 맞으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2.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은 안식을 못 받는 자는 모르네.
3. 내 맘을 주관하시니 겁날 것 아주 없도다.
구주께 속한 사람은 다 안식복락 얻겠네.
4.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주일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의 손자인 사무엘 스테네트(Samuel Stennett · d. 1795)도 신학 박사였는데 3대를 거쳐 제칠일 침례교의 목사로 봉직하며 물에 잠기는 성인침례를 옹호하는 책들을 저술하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 같이 빛나네” 등 여러 편의 찬송가를 써서 개혁을 밀고 나갔다.²²⁴

신대륙 미국에 옮겨진 안식일 진리

1664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한 제칠일 침례교인 뎀포드(Stephen Mumford)는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열심히 전파한 결과로 1671년에는 로드아일랜드에 최초의 제칠일 침례교가

세워졌다.²²⁵ 그리고 1802년에는 9명의 목사와 1,130명의 신자로 구성된 총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렀으며, 후에는 80교회와 8천명의 신자로 늘어났다.²²⁶

1700년대 초반 펜실바니아주에 정착한 모라비아 형제회 신자들 가운데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곳을 방문했던 모라비아 형제회 창시자인 진젠돌프(Zinzendorf) 백작도 그들의 영향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²²⁷ 이리하여 신대륙 미국에 안식일의 진리가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1843년 제칠일 침례교 총회에서는 11월 1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위하여 역사하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재림운동과 연결된 안식일 진리

제칠일 침례교의 신실한 신자인 라헬 오우크스(Rachel Oakes)부인은 뉴욕에서 뉴햄프셔 주의 와싱턴으로 이사했다.²²⁸ 때마침 침례교 신자인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가 주도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미주 전역에 고조되던 때여서 오우크스 부인은 쉽사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기가 깨달은 안식일 진리를 자신이 출석하던 재림교회의 감리교 출신 휠러(Frederick Wheeler) 목사에게 전하였으며,²²⁹ 1844년에는 이 교회의 몇 신자가 별도로 안식일에 예배함으로써 최초로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가 형성되기에 이른다.²³⁰ 이렇게 제칠일 침례교를 떠나 안식일을 지키는 최초의 재림교회가 신대륙에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안식일의 진리는 같은 해 재림교회의 뉴햄프셔 침례교 출신의 프레블(T. M. Preble) 목사에게 전달되었다. 감격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인 프레블 목사는 다음 해인 1845년 2월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그리스도나 사도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단 7:25) 교황권의 배도(背道)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소책자를 써서 보급하기 시작했다.²³¹

결과는 즉각적이어서 안식일의 진리는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침례교 신학자요 목사인 쿡(J. B. Cook)과 경건한 퇴역 선장 베이츠(Joseph Bates)에게 전달되었다.²³² 1846년 베이츠 선장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성소 봉사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됨과 동시에(히 4:14~16; 8: ~10:), 성소의 정결에 관한 진리를(단 8:14) 아울러 이해하게 됨으로써 1844년에 있었던 대실망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깊은 연구로 확신에 도달한 그는 “제칠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란 소책자를 써서 보급하기 시작하여 주 많은 회심자를 얻었다. 이 소책자는 재림운동의 유능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화이트(James White)목사 부부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같은 해 그들 역시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했다.²³³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형성과 안식일의 완전한 회복

침례교 지도자 윌리엄 밀러가 주도했던 예수 재림의 대각성 운동은 1844년 실망으로 막을 고한 듯했으나,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된 성소와 안식일의 진리는 마침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는 대단원(大團圓)에 이른다.

1848년 4월, 성소제도에 관한 심오한 진리와 안식일과 재림 신앙의 확신에 도달한 일단의 신자들이 코네티컷 주의 록키 힐(Rocky Hill)에 모여 최초의 총회를 개최하였다.²³⁴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대언의 영”(the Spirit of prophecy · 계 19:10; 12:17; 엡 4:7~13)이 감리교 출신의 엘렌 G. 화이트(Ellen G. White) 여사를 통하여 주신 바 되었음을 모든 증거에 기초하여 확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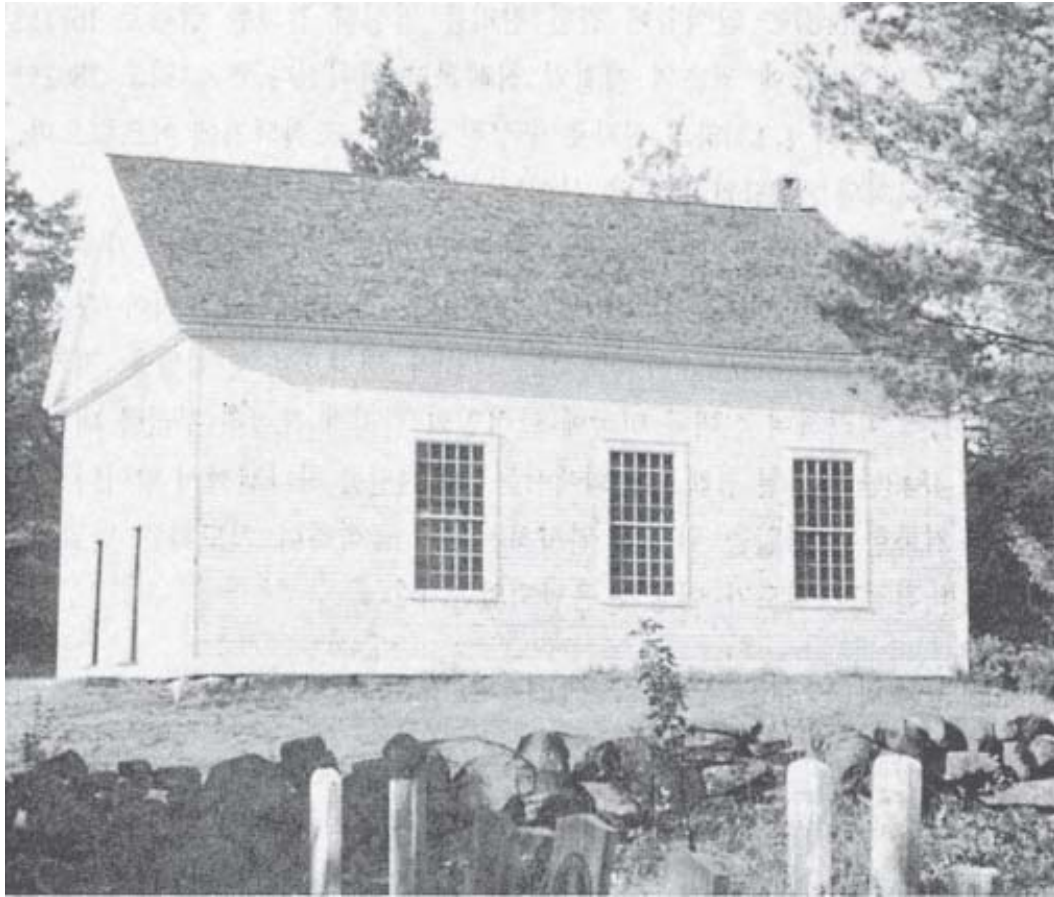


그림 17 1844년 말 제칠일 침례교인 이었던 라헬 오우크스(Rachel Oakes) 부인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최초의 재림교회가 와싱턴 주 뉴 햄프셔에 형성되었다. 화강암 언덕들 가운데 위치한 오래된 목조 예배당으로 안식일 회복의 기념물이다.

이처럼 성경상의 제칠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며,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가진 무리가 1860년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Seventh-day Adventist)의 공식 명칭을 채택함으로써,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계 12:17)로 마지막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의 주류를 타고 정통적인 성서적 신앙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청교도적인 회중교회, 거기서 다시 진취(進取)한 침례교, 거기서 또 다시 진취한 제칠일 침례교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출 31:13, 17)이 중세기의 암흑을 벗어나 마침내 옛 자리, 본래의 영광을 회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언된 재림운동을 통하여(계 10장) 소개된 구원의 완결이요 성경의 결론이며 예언적 신앙의 궁극인 예수 재림의 진리와 극적으로 만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종결시킬 “성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의 역사적 출현을 실현시킨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사 56:1, 2).

회복된 즐겁고 존귀한 날

창조의 기념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속(救贖)을 약속하는 참으로 복된 안식일의 복음이 아닌가? 이토록 축복된 안식일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범(犯)함으로써 축복을 상실했고(겔 20:10~14; 느 13:17, 18; 렘 17:20~27). 신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마 12:8; 막 2:28)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형식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에 빠짐으로써 축복은 저주로 바뀌었다(마 23:23, 12:1~13).

그리고 사도들이 모두 떠나간 2세기 이후의 교회는 핍박을 모면하고 현실에 맞추어 살아남으려는 궁색한 방편으로 성경의 안식일을 이교적인 일요일로 대치함으로써 중세기를 암흑으로 채운 배교(背敎)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 일에 앞장선 것이 신앙의 원칙보다는 정치에 몰두 했던 로마제국의 수도 로마의 교회였으며, 그것은 교회들의 머리가 되기 위한 중세기 교황권(敎皇權)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전술한 대로,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의 일요일 휴업령(Sunday Law)을 반포하던 당시의 로마 교회 감독[교황]은 실베스터(Sylvester · A. D. 314~335)였는데, “일요일”의 명칭을 “주의 날”로 공식화하려는 집요한 노력과 함께,²³⁵ 어떻게 콘스탄틴의 정책을 내조(內助)했는지 다음과 같은 그의 선언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매주 일요일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기쁨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면, 매주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장사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저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들[사도들]과 함께 기뻐하려면, [안식일에는] 주님의 장사 때문에 슬퍼해야 한다. 사실,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안식일에] 음식을 소모하고 유대인의 의식을 치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²³⁶

이교의 축제일인 일요일에 “감사를 드리며 빵을 먹기 위하여”²³⁷ 하나님의 안식일을 배교품에 시달리는 우울하고 슬픈 날로 만드는데 성공한 로마교회의 상반(相反)된 시도에 맞서 안식일을 끝내 기쁘고 존귀한 날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임이 다음의 말씀에서 얼마나 분명해 지는가?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歷代)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修補)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業)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이니라”(사 58:12~14).

10. 일요일 준수와 진정한 예배

뿌리칠 수 없는 의문들

이상과 같이 안식일과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를 확인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어찌하여 이교에 근원을 둔 배도(背道)의 상징인 이러한 일요일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거리낌 없는 예배일이 될 수 있을까?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날이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하실까?

예배는 드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사와 예배에 대하여 참으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창 4:3~5; 레 10:1~3; 삼상 13:8~14).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행 17:30) 모든 것을 밝혀 주신 때에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살펴본 대로 오늘날처럼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할 무렵, 태양을 숭배하던 이교도들과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기도드린 이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 것처럼 합리화한 당시의 교부들이나²³⁸ 현대 주일(主日) 성수론자들의 견해는²³⁹ 합당한 것인가? 아무 날이나 하루 예배하면 된다는 통념(通念)으로 이 모든 역사적 현실을 간과(看過)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러한 혼합적인 예배의 개념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예배]하라”(계 14:7)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이자 경고인 세천사의 기별과(계 14:6~12) 상관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과 심판과 연결된 예배의 시의성(時宜性)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에스겔서에 소개된 다음의 기별을,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심사숙고하고자 한다.

에스겔에게 공개된 진상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을 네가 보았느냐…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복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겔 8:12~17)

본래 태양신을 높이던 날인 일요일(Sunday)이 안식일을 제치고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소개되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취했던 태도와 얼마나 흡사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위하여 눈물을 흘리던 담무스는 누구이며, 그들은 왜 울고 있었는가? 그리고 장로[제사장]들은 왜 낮을 동으로 향하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가?

전설에 의하면 최초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반역했던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창 10:8, 9)의 부인 세미라미스(Semiramis)는 죽은 남편의 영이 태양으로 들어가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후에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의 영이 재탄생한 것으로 믿게 된 사생아 담무스(Tammuz)를 낳았는데 그가 멧돼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후 그의 영은 지하세계로 들어갔다는 신화가 생겨났다.²⁴⁰ 이런 유의 담무스 신화가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존재했음이 역사적으로 확인 되었다.²⁴¹

농축신(農畜神)이 된 담무스는 바벨론 달력의 넷째 달에 해당하는 오늘 날의 6월경 풀이 마르는 여름이 되면 매년 반복하여 죽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넷째 달을 “두무지”(Dumuzi)로 불렀으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들도 이 관심을 배워서 그들 종교력의 넷째 달을 “담무스”(Tammuz)로 불렀다.²⁴² 담무스가 죽는 넷째 달이면, 고대 앗시리아나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슈타(Ishtar)로 알려진, 담무스의 어머니도 되고 연인도 되는 사랑의 여신(女神)은 지하로 쫓아 내려가 슬피 우는데 이 때 여인들도 함께 우는 가증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봄이 되어 태양이 따뜻이 비칠 때 담무스는 이슈타의 애도와 애정으로 다시 부활하여 농작물과 초장을 푸르게 한다는 것이다.²⁴³ 이 때 그 해의 다산(多産)을 위하여 담무스와 이슈타를 위한 음락하고 난잡한 봄의 축제를 벌인 것이다.²⁴⁴

고대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룻(Astarte),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Aphrodite), 로마에서는 비너스(Venus)로 불렸던²⁴⁵ 이슈타 숭배가 예레미야 당시의 배도한 유대인 여자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었으며(렘 44:15~19),²⁴⁶ 에스겔에게 보여진 바, 유대 여자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겔 8:13~15)도²⁴⁷ 여신 이슈타의 연인인 담무스의 부활을 위해 슬피 우는 이교의 의식인 것이다.²⁴⁸

이토록 농경에 관계된 고대의 태양을 비롯한 천체숭배가 얼마나 엄중히 경고되었는지 깨닫게 될 때(신 4:19; 17:3; 왕하 23:5, 11; 욥 31:26),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에 걸맞게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겔 8:16(한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처신은 더 큰 “가증한 일”(8:15) 아닐 수 없다.

되풀이된 배도의 역사

신, 구약 성경에 걸쳐 일관되게 준수되어 온 예배일인 “여호와와 안식일”을 제쳐놓고, “無敵의 태양신”을 숭상하던 이교도의 날인 일요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代置한 3, 4세기 교회 지도자들의 처신은 에스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背敎와 무엇이 다른가? 미국의 사학자 하이드(Walter W. Hyde)와 「가톨릭 세계」(The Catholic World)에 게재된 이상의 역사를 확증해 보자.

증언 하이드

“제 4세기의 그리스도교가 그의 적대 세력이었던 [로마의 태양 신교]에서 채용한 두 가지 제도에서 투쟁의 잔재물을 발견하게 된다. 즉 [페르샤의 태양신인] 미드라(Mithras)의 두 성일(聖日)인데, 12월 25일은 ‘디에스 나탈리스 솔리스’(dies natalis solis)로 부르는 ‘태양의 생일’이었던 것을 예수의 생일로 삼는 것과, 서기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것을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부른 ‘일요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삼을 것이다.”²⁴⁹

증언 가톨릭

“교회는 이교(異敎)의 ‘이스터’(Easter)를 취하여 그 기간을 우리의 축제인 [부활절을] 만들었다. 일요일과 부활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것들은 서로 같은 것이다. 사실 모든 일요일들은 단지 부활절을 매 주일마다 부분적으로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요일들(Sundays)인 것이다.…태양은 이교도들의 세계에 서는 최고의 신이었다.”²⁵⁰

“[그리스도교에 끼친] 이교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한 가지 예를 찾자면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태양이 떠오르는 곳인 동쪽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을 조사해 보면 된다.”²⁵¹

간과할 수 없는 배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지키는 일요일이나 서구의 민속(民俗) 명절이 된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뜻 깊게 보내는 것을 결코 우상숭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까닭이 있는 역사를 깨닫게 될 때, 적어도 십계명에 명시된 성일(聖日)인 “여호와와 안식일”을 제쳐놓고 이교의 성일이었음이 분명한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려는 신앙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간과(看過) 할 수 없는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를 가지시고 에스겔에게 진상을 공개하신 바,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와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겔 8:16)한 사실을 참으로 “적다하겠느냐”(8:17)고 반문하셨다. 성전 안뜰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있던 이들 25명의 신분은 레위지파의 제사장 전체를 대표하는 24 반렬(班列)의 제사장들과(대상 24:1~19) 대제사장을 포함한 숫자로 생각된다.²⁵² 여하튼 이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으며, 그들이 행한 의식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섬기던 페르샤의 태양 숭배와 같은 것이다.²⁵³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소의 정문(正門)은, 범죄로 닫혀진 “에덴동산 동편…생명나무의 길”(창 3:24)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다시 열리게 되었음을 표상하여 언제나 동편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출 27:13; 민 3:38; 겔 47:1).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정면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동편의 해를 등지게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25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동편의 태양을 향하기 위하여 “여호와와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한 것이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던 유대 여자들이나 동방의 태양을 경배하던 25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교의 의식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개념으로 행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태여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 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러나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태양을 비롯한 “일월성신(日月星辰) 하늘 위의 군상…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신 4:15, 19) 염려하신 하나님께 그것은,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겔 8:3)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신앙에 관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가게 마련이다. 신자들은 목사를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겔 22:26)음을 모든 종교지도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겔 8:17).

정직한 부정 거래—짧아진 자

여러 대를 이어 포목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한 부인이 그 상점에서 십 야드의 천을 사가지고 가서 선택한 패턴에 맞춰 옷감을 재단했는데 예상 외로 천이 약간 모자랐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얼마 전에 새로 사온 자로 재어 보니 한 치가 모자랐다. 부인은 즉시 옷감을 말아 쥐고서 다시 포목점 주인에게 가서 치수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 대째 정직한 상거래로 신용을 쌓아 왔는데요. 틀림없이 치수대로 드렸습니다.” 주인은 의아한 듯 언제나 사용해온 대자를 집어 들고 천을 펼친 후 자질을 했다. “보십시오. 정확한 십 야드입니다.” 어리둥절해진 부인은 급히 가서 집에 있는 새 자를 가져왔다. 다시 재어 보아도 틀림없이 한 치가 모자랐다. 이번에는 부인이 가져온 새 자와 포목점의 대자를 맞추어 재어 보았다. “보십시오. 쓰시는 자가 한 치가 짧습니다.” 참으로 한 치가 짧았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가? 규격(規格) 미달의 불량(不良) 자를 써 왔으니 얼마나 잘못된 상도덕

(謫道德)인가?

그러나 사연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할아버지 등을 거슬러 대를 물린 이 포목점에서 써온 자가 오랜 세월을 경과하는 동안 조금씩 닳아서 결국 한 치나 짧아진 것이다. 포목점 주인은 물론 선대의 어른들도 모두 정직하고 신용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그동안 규격보다 조금씩 짧은 옷감을 재어 준 것이다. 잘못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 하등의 책임을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직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행 17:39)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그동안 모르고 짧은 자를 써온 주인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한 치나 짧은 옛 자를 계속하여 쓴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것은 명백한 도량형(度量衡) 번조(燔造)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될 것이다.

심판의 기별과 합당한 예배

위폐(僞幣)가 아닌 진짜 돈을 진폐(眞幣)라고 하듯이, 위경(僞經)이나 외경(外經)이 섞이지 않은 참된 성경을 정경(正經)이라고 부른다. 정경을 영어로 “캐논”(canon)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카논”(kanōn)에서 나온 말로 모두 매듭이 있는 “갈대”와 같은 “자막대기”를 뜻하는 “규준”(規準), “규례”(갈 6:16)로 통용되고 있다.²⁵⁴

그렇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요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척도(尺度)이다.²⁵⁵ 더더구나 십계명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표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판단하는 척도로 선언되었다(약 2:8~12; 마 19:16~19; 롬 13:8~10). 열 마디[節]로 된 신앙의 척도인 십계명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분인 예배를 명시한 척도 중의 척도인 안식일 계명이, 예언에 나타난 영적인 배후를 가진 세력에 의하여 변조된 채(단 7:25; 살후 2:3~12), 중세기를 거쳐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일요일은 결단코 안식일을 대신할 수 없다. 어두움의 세력과 인간의 오랜 전통에 시달려, 닳아서 거의 눈금마저 없어져 버릴 뻔한 넷째 계명이 지닌 영적 의미는 심각하다. 그것은 인간 역사가 마쳐지게 될 마지막 날의 심판에 결부되어 인간의 본분에 관한 순종의 시금석으로, 심판의 불가결한 척도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오랜 역사 동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도와 불순종으로 일관해온 땅 위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복음이요, 경고인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이다.

다음에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기별을 주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본분인 예배에 결부되어 안식일 계명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안식일 진리와 마지막 기별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복음	이 기별에 포함된 인간의 본분과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A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B 그에게 영광^C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D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E 만드신 이^F를 경배[예배]하라^G 하더라...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H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요한 계시록 14:6, 7, 12)	“내가 복음^A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A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C을 위하여 창조한 자^F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이사야 43: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G...이는 옛 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E을 만들고^F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애굽기 20:8~11) “하나님을 경외하고^B 그 명령[계명]^H을 지키지 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D”(전도서 12:13, 14; 히브리서 9:27)

* 위에서 좌, 우편 말쑤에 표시된 「같은 기호」는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냄.

요약과 결론

이제까지 안식일 제도와 일요일 준수의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래에 이 두 날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51개 사항을 대비(對比)하면서 이해와 판단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삼고자 한다.

성경이 말하는 제칠일 안식일과 첫째 날 일요일에 관한 51개 사항 대비(對比)

제칠일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
1.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므로 시작된 창조의 기념일이다(창 2:1~3; 출 20:11).	1.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일을 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다(창 1:3~5; 겔 46:1; 출 20:9).
2. 하나님께서 다른 여섯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이다(창 2:3; 출 20:11).	2. 첫째 날이 다른 여섯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이라는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3. 하나님께서 다른 여섯 날과 달리 특별히 축복하신 날이다(창 2:3; 출 20:11).	3. 첫째 날에 축복이 약속된 기록이나 암시가 일체 없다.
4. 죄짓기 전 하나님에 의하여 에덴동산에서 제정된 날이므로 인간의 범죄 이전부터 존재한 날이다(창 2:1; 히 4:4)	4. 하나님의 의도나 구속의 역사에 관계없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제정한 순수한 인간적 전통에 불과하다.
5. 여섯째날에 창조된 아담이 뒤늦게 창조된 하와와 가정을 이룬 뒤 맞이한 첫날로 인간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창 1:26~31, 2:1).	5.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물질의 창조가 시작된 날에 불과하다.
6. 범죄 전의 인류를 위하여 제정된 날로,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지, 한낱 유대인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다(막 2:27).	6. 인류나 유대인을 위하여 제정된 아무 제도도 포함되지 않은 평범한 하루이다.

제칠일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
7. “여호와와 안식일”로 불리워, 그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임을 명시하고 있다(출 20:10). 8. 범죄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범죄 이후 마련된 의식제도에 속한 그림자가 아니다(히 10:1). 9. 창조의 범위와 고통당하는 계급과 심지어 동물의 복지까지도 고려한 범세계적, 범인류적, 범동물계적인 특별한 의의를 가진 날이다(출 20:10, 11) 10.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발해진 것이다(출 20:1; 신 4:12, 13). 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이다(출 31:18). 12.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새 언약에 포함되어 마음에 기록하신 내용이다(렘 31:33; 히 8:10). 13.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불변의 도덕 법칙인 십계명에 포함되어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법궤 속에 보관함으로써 신성성이 극도로 강조되었다(신 10: 1~5).	7. “여호와와 첫째 날”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다. 8. 인간의 구속에 관련된 하등의 상징이나 의의가 일체 주어진바 없는 날이다 9. 안식일이 지닌 범세계적, 범인류적, 범동물계적인 의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인 하루에 불과하다. 10. 기억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주어진바 없는 날이다. 11.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주어진 바 없는 날이다. 12. 옛 언약이나 새 언약에 아무 관계가 없는 날이다. 13. 도덕률인 십계명에 부여된 신성성이나 영속성에 아무 관련이 없다.

제칠일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
14. 안식일 계명의 위치나 내용은 그것이 언약 체결 형식인 종주(宗主) 조약에서 종주이신 하나님의 인(印)의 역할임이 분명하다(출 31:13, 17)	14. 하나님의 신분이나 권위나 영광에 일체 상관이 없는 날이다
15. 농사철 등 바쁜 때에도 지키도록 명하신 절대적인 명령이다(출 34:21)	15. 구태여 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16.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모독한 것이다(겔 20:12, 13).	16. 범한데 대한 아무 정책이 언급된 바 없는 날이다.
17.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느 13:15~21).	17.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날이다.
18. 안식일이 바르게 지켜졌더라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증이 포함되어 있다(느 17:21~27)	18. 첫째 날의 준수를 근거로 어떤 보증도 주어진 바가 없다.
19. 유대인이 바벨론에 포로되 간 이유 가운데 안식일을 모독한 것이 포함 되었다(겔 20:20~24; 22:26, 30,31).	19. 첫째 날(이요일)을 범한 결과로 징벌이 실시된 사례가 일체 없다.
20.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하는 기준이다(겔 20:20).	20. 일요일 준수된 역사적 기원에는 분명히 태양신 숭배의 전통이 포함되어 있다.
21. 하나님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속주(救贖主)로 인정하는 날이다(신 5:15; 출 20:1)	21. 창조의 기념이 아닌 것처럼 구속의 의의도 포함된 바 없는 날이다.
22.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날이다(출 31:13; 겔 20:12).	22. 성화(聖化)의 아무런 의의가 주어진 바 없는 날이다.

제칠일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
23.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방인들도 준수의 의무와 축복이 약속된 날이다(사 56:).	23.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포함시켜야 할 명령이나 약속이 주어진 바 없다.
24.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이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보증하신 날이다(사 58:13, 14).	24. 하나님께서 친히 첫째 날에 대해 언급하시거나 관심을 표명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25. 육신적으로 희망 없는 불구자까지도 준수 함으로 축복이 약속된 날이다(사 56:3~5).	25. 인류에게 어떤 미래의 축복을 가져다 줄 날로 언급된 바가 없는 날이다.
26.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과 안식을 약속받은 날이다(사 56:6, 58:14, 66:22, 23).	26.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기록된 바가 없다.
27. 오래 동안 짓밟힌 후에라도 다시 회복될 것이 약속된 날이다(사 58:12, 13).	27. 짓밟히거나 회복되어야 할 의의가 주어진 바가 없는 날이다.
28. 안식일을 속되게 가르친 종교지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부과된 날이다(겔 20:26).	28. 첫째 날을 속되게 가르쳤다고 죄책을 지게 될 종교지도자는 아무도 없는 날이다.
29.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신 진정한 의미의 “주의 날”(主日)이다(막 2:28; 마 12:8).	29. “인자는 첫째 날의 주인”이란 의미의 주일(主日)을 예수님께서 전혀 의중에 두신 여지가 없는 날이다.
30.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을 체험하는 날이다(마 11:28; 히 4:10).	30. 첫째 날에 연관된 안식의 개념은 일체 없다.
31.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지상생애 동안 습관적으로 준수하신 날이다(눅 4:16).	31. 예수님 자신은 한번도 첫째 날에 대하여 언급하시거나 관심을 표명하신 바가 일체 없다.
32.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친히 올바른 준수의 방법을 보여주신 날이다(마 12:1~15; 요 5:10~18).	32. 첫째 날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언급도, 모본도 주신 바가 없다.

제칠일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
33. 적어도 일곱 번 불치의 병을 고치신 날로,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메시아의 사명과 연결시키신 날이다(눅 4:16~19; 마 12:10~13).	33. 첫째 날에 관련하여 아무런 영적 교훈을 주시거나 행적을 남기신 바가 없다.
34.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와 부활이후에도 계속 준수되어야 할 날임을 천명하셨다(마 24:20).	34. 첫째 날이 부활의 기념이 되어야 한다는 일체의 언급을 예수님 자신이나 사도들이 하신 바가 없다.
35. 십자가 때문에 단절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눅 23:56).	35. 신약성경에 여덟 번 기록된 첫째 날의 기사 가운데 성만찬 등 성례를 이 날에 행해야 할 아무런 지시도 주어진 바 없다.
36. 부활 후 30여년 지난 후에 쓰려진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안식일로 불리웠다(행 13:44).	36.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째 날”로 기록된 것밖에 다른 명칭이 없다.
37.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별을 전파한 날이다(행 13:14, 30, 42, 43).	37. 첫째 날에 연관시켜 부활의 기별이 전파된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38.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평생을 습관적으로 지킨 날이다(행 17:2).	38. 첫째 날을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준수한 확고한 사례가 성경 어디에도 없다(유사 성구에 관해서는 비평 내용 참조).
39. 서기 49년에 열린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준수 자체를 기정사실로 한 날로 언급하고 있다(행 15:21).	39. 첫째 날 준수 여부에 대해 논란하거나 결의한 일체의 기록조차도 없다.
40.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는 이방 지역에서도 이방인과 함께 예배한 날이다(행 16:13, 14).	40.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일요일에 관하여 친히 언급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인 사례가 없다.

제칠일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
41. 사도행전에만 적어도 84회의 준수 기록이 있는 초대 교회의 예배일이었다(행 13:14, 44; 16:13; 17:2; 18:4, 11).	41. 첫째 날이 사도행전에 언급된 것은 한 번 (20:7) 뿐인데 여행 중에 밤늦게 송별을 겸한 애찬의 자리에 불과했다.
42. “사도 바울이 할례 등 유대인의 의식을 폐했다는 이유로 일일이 고소당했으나 안식일 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이다(행 25:8).	42. 첫째 날이 안식일을 대신해야 할 하등의 근거나 이유가 성경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43.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행 20:27)다고 말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음에 대해 일체 언급한 바가 없다.	43. 첫째 날이 이방인과 관계된 특별한 의의를 지녔다는 일체의 암시나 가르침이나 행적이 기록된 바가 없다.
44. 신약 성경에만 59회 언급된 안식일은 항상 존중되어야 할 날의 의의를 지닌 구약의 명칭(안식일 · the Sabbath day)을 그대로 쓰고 있다(막 2:28 등).	44. 신구약 전체에서 “첫째 날”이란 명칭 이외의 어떤 명칭도 부여된 바가 없다(계 1:10은 비평 본문 참조).
45.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는 허용이 누구에게도 주어진 바가 없다.	45. 성경은 오히려 첫째 날을 “힘써 일해”야 할 날들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어 휴식은 비성서적인 개념이다.
46. 부활 이전은 물론 부활 이후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평일처럼 일했다는 기록이 없다.	46. 부활을 매 주일 기념한다는 것은 기념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부활의 기념은 침례이다.
47.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 안식일 준수 여부로 논란을 일으킨 예가 없다.	47. 첫째날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제칠일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
48.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 시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심으로 구속의 기념이 되게 하신 날이다(요 19:30).	48. 첫째 날인 일요일 준수는 창조와도 무관하고 구속과도 무관한 날로, 인위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일반 축제일에 불과하다.
49. 가정을 안식일에 포함시킴으로써(출 20:10), 범죄 이전 에덴의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 복락원(福樂園)의 표상이다.	49. 첫째 날에는 과거에 뿌리를 둔 역사적 의의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간직한 소망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평범한 하루이다.
50. 안식일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척도와 시금석으로 제시되었다(출 16:28).	50. 첫째 날의 준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명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준수 여부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시금석이 되지 아니한다.
51. 무엇보다도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과(사 43:7) 인간의 본분인 예배를 합리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날에 드리는 지성적인 예배는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표현이 된다(계 14:7).	51. 창조와 무관한 첫째 날의 자의적(自意的)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구성하는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교적(異敎的)이요 비성서적인 예배일이다.

잡초 밭을 지키는 근위병

이상에 열거한 51개 사항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제칠일 안식일과 첫째 날인 일요일을 대비(對比)하여 그 준수의 의의와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화(史話)를 상기하게 된다. 제정 러시아 시대의 한 젊은 황제가 어느 날 왕궁 밖의 정원을 거닐다가 불품없는 들판에서 외롭게 보초를 서고 있는 근위병을 목도했다. 보잘것없는 가시덩굴로 덮인 이 들판을 지키는 이유를 묻자 초병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젊은 황제는 궁중 사관(史官)에게 그 이유를 찾으려 지시했다. 사유인즉 한 때 캐터린 황후가 이 곳에 널따란 장미 정원을 가꾸게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도 공개했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장미 넝쿨이 있는 한 지점에 근위병을 세워 지키게 한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황후도 타계하고 장미 정원도 무관심속에서 폐허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라온 왕실 근위대에서는 보초를 세워 이 장미 없는 잡초 밭을 뜻도 모르고 지키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날로 친히 지저하시고 친수(親手)로 쓰신 불변의 도덕률인 십계명에 포함시키신 특유한 안식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해(利害)관계에 얽매인 종교지도자들의 고의적인 무관심과 냉대에 의하여 짓밟히고 쇠퇴된 십계명의 장미인 안식일을 대신하여 한낱 인간의 전통인 일요일을 뜻도 모르고 고수하는 것은 장미를 대신한 잡초가 무성한 빈 들을 뜻 없이 지키고 있는 러시아의 근위병과 무엇이 다른가? 계발된 신앙 양심과 냉철한 지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일이다.

양심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

판단

지금까지 진행된 안식일제도와 일요일 준수에 관한 비평과 변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독자는 어떤 판단에 이르렀는가? 안식일 준수를 이단의 조건으로 삼아 비평한 분들을 비롯하여, 신분이 성직자이든, 장로, 집사 등 제직이든, 일반 신자이든 상관없이 지금은 “믿어 순종케”(롬 1:5, 15:26) 되어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마 15:3), 안타깝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할 시간이다. 어느 교파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보증이 성경에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는 사도들의 담대한 신앙이 한층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며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방법에 의하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레 10:1~3). 그러므로 예배에서 인간적인 모든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요 4:23)고 계신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예배]하라”(계 14:7)는 기별은 진정한 예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탄원이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배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까닭도 더욱 분명해진 것이며,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사 56:1, 2)는 보증은 확실한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 앞에서 괴로워하는 신앙 양심은 진리에 의해서만 영원히 자유롭게 될 수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레 동안 우리를

(찬미가 256장)

1. 이레 동안 우리를 예수 인도했으니
예배당에 모여서 주실 복 받으시다.
오늘 맞은 안식인 이후 안식포로다.
오늘 맞은 안식인 이후 안식포로다.
2. 구주 공로 입어서 은혜 주심 빌 때에
화친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줍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함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함소서
3.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냄소서
영영 먹을 양식을 미리 맛보옵소서
영영 먹을 양식을 미리 맛보옵소서
4.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위로하여 줍소서
주와 쉬일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와 쉬일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그림 18 십자가는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폐하거나 변경시키지 않았다. 또한 성경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계 14:12) 성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인간의 전통에 의하여 짓밟혀온 넷째 계명인 제칠일 안식일이 회복될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영관, 이단종파 비판(I), 253.
2. Ministerial Association, General Conference of SDA, Seventh-day Adventists Believes... (Hagerstown, Maryland: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88), 248.
3. 전경연(공저), 신약성서 신학(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76), 51.
4. 폴 주이트, 主日の 참 뜻, 옥한흠 역(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7), 36.
5. Ibid., 37.
6. Ibid., 35.
7. Josephus, The Wars of the Jews, Book V, ch. II~Book VI. ch. X.
8. Alonzo J. Wearner, Fundamentals of Bible Doctrine(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 1945), 113. god 13:14, 42~44(2회), 16:12, 13(1회), 17:1, 2(3회), 18:1~4, 11(78회).
9. 박영관, 253.
10. 탁명환, 251.
11. 박영관, 249.
12.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 XXI, sec. VII.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4th ed., III, 648-49.
13. 기독교문사, 기독교대백과 사전, 제 10권, 292.
14. 주이트, 125.
15. Helvetic Confession, ch. 24, sec. 2.
16. Philip Schaff, 298.
17. R. W. Dale, The Commandments, 104~106. Quoted by A. E. Lickey, God Speaks to Modern Man(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52), 397.
18.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bk. II, ch. VIII, XXXIV.
19. 주이트, 111, 나하주.
20. 주이트, 109, 110.
21. 박영관 250.
22. Walter Bau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2nd ed., 1958, 601.
23. 박영관, 250.
24. Ibid.
25.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III(Nashville: Broadman Press, 1930), 25.
26. William Barday, The Letters to the Corinthian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100, 101.
27. Augustus Neander,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urch, 1831, vol. 1. 337.
28. 박영관, 252.
29. M. L. Andreason, The Sabbath, Which Day and Why(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42), 172-74.
30. J. J. Lias(e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The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 Colle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4.
31. Hartford Weekly Call, Feb. 22, 1884, Kansas, Missouri. Quoted in Wearner, 121.
 32. Neander, 186.
 33. James Gibbons, The Faith of Our Fathers, 92nd ed.(Baltimore: John Murphy Company), 89.
 34. Wearner, 134.
 35. 박영관, 252.
 36. The Gospel According to Peter, 9. 12. Ante-Nine Fathers, vol. 1, 47. Samuele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Rome: The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 Press, 1977), 2.
 37. Ante-Nicene Fathers, vol. 2, 545.
 38.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8th ed., 1903, vol. 2, 44.
 39. R.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76.
 40. F. D. Nichol, Answers to Objections(Wash.,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52), 224.
 41. William Milligan, the Expositor's Bible, The Book of Revelation, 13.
 42. 박영관, 252.
 43. Bacchiocchi, 214.
 44. C. C. Richardson(ed.), Early Christian Fathers(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8), 81.
 45. Ignatius, Epistle to the Magnesians, VIII. Apostolic Fathers, I, 204~207.
 46. Ignatius, X.
 47. Fritz Guy, "Lord's Day in the Letter of Ignatius to the Magnesians,"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II(1964), 16.
 48. Bacchiocchi, 215.
 49. Richard B. Lewis, Ignatius and the Lord's Day,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VI(1968), 46~59.
 50. Ante-Nicene Fathers, I, 62, 63.
 51. Kenneth A. Strand, Three Essays on Early Church History(Ann Arbor: Braun-Brumfield, 1967, 45.
 52. Jho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bk. 2, ch. VIII, XXXI.
 53. Samuele Bacchiocchi, The Sabbath in the New Testament(Berrien Springs: Biblical Perspectives, 1985), 123, 124.
 54. William Barday, The Letters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97~99.
 55. Ibid., 94~98.
 56. F. Rienecker and C. Rogers, Linguistic Key to the Greek New Testament(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574, 575.
 57. Ibid. 574.
 58. The New American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n, Revised Berkeley Version 등.

59. Edward Lohse,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Philadelphia, 1971), 116.
60. Paul Gien, Sabbaton in Col. 2:16,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vol. 19, No. 3(1981), 195.
61. Bacchiochi, The Sabbath in the New Testament, 181.
62. Ibid., 128.
63. Ibid., 180, 181.
64. S. N. Haskell, The Cross and Its Shadow.(South Lancaster: The Bible Training School, 1914), 139, 140.
65. Ibid., 136.
66. 대상 23:30, 31; 대하 2:4, 8:12, 13; 31:3; 느 10:33; 겔 45:17, 46:4~15.
67. Kenneth A. Strand(ed.),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82), 340, 341.
68. Ibid.
69. 66의 참고질들.
70. Jewett, 44.
71. Nichol, 166, 167.
72. Ibid., 167.
73. Ibid.
74. Nichol, 190.
75. 주이트, 46.
76. F. E. Gaebel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0(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238.
77. Raoul Dederen, "On Esteeming One Day as Better Than Another-Romans 14:5, 6."
78. The Didache 8:1.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503.
79. Bacchiocchi, 336.
80.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vol. 6, 635.
81. Bacchiocchi, 135.
82. Jamieson, Fausset, Brown's Commentary on Rom. 14:5, cited in Nichol, 194.
83. 주이트, 56.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
84. Bacchiocchi, 202~205.
85. Ibid., 203.
86. Samuele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Rome: The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 Press, 1977), 80~84.
87. Epistle of Barnabas. 15, 8.
88. Justin Martyr, 1 Apology 67.
89. Samuele Bacchiocchi, "the Rise of Sunday Observance in Early Christianity", K. A. Strand(ed.),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82), 135.
90. Epiphanius, Adversus Haereses 29. 7(PG 41:401).

91.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171.
92. 랍비들이 서기 80~90년 사이에 매일의 기도예 포함시킨 그리스도인에 관한 저주 (Birkath-ha-Minim). G. Kittel(ed.), Theologiae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7, 848, 849.
93. Dio Cassius, Historia Romana, 69, 13. 로마 군인들의 인명 피해도 막심하여 원로원에 보내는 하드리아 황제의 서한에도, “나와 그 군대들도 강건”이라는 공식적인 문구가 생략될 정도였다.
94.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160, in footnote 80.
95. Rosh Hashanah 19a in Babylonian Talmud, trans. I. Epstein, 1938, XIII; 78, in Bacchiocchi, 160..
96. Ernest L. Abel, The Roots of Anti-Semitism, 1943, 97, in Bacchiocchi, 172.
97. Bacchiocchi, 173~176.
98. Persius, Saturae 5, 176~184, in Bacchiocchi, 174.
99. Ibid., 178~181.
100. Justin Martyr, Dialogue 17, 1; 16, 4; 1 Apology 36, in Bacchiocchi, 182.
101. 롬 11:13, 16: Ibid., 166.
102. Epiphanius, Adversus Haereses 42, 3, 4; Tertullian, Against Marcion 4, 12.
103. Bacchiocchi, 188, 189.
104. Nathan A. Barack, A History of the Sabbath(New York:1965), 100, 101, 182. Jerusalem Talmud, Shabbat 15:3; Jubilees 50:10, 13.
105. Kenneth A. Strand, The Early Christian Sabbath(Ann Arbor, Mich.:1979), 9~15, 25~42.
106. Eusebius(of Caesarea), Historia Ecclesiastica, Kirsopp Lake(trans.), The Ecclesiastical History, Loeb Classical Library(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26~49), 5, 22; 7, 19.
107. Bacchiocchi, "The Rise of Sunday Observance in Early Christianity", 138.
108. Augustus Neander, General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urch, Joseph Torrey (trans.)(London: Henry G. Bohn, 1851), 422.
109. Ibid.
110. 주이트, 123.
111. Justin Martyr, I Apologia 67, 3~7, T. B. Falls(trans.), Writings of Justin Martyr(New York: Christian Heritage, 1948), 106, 107.
112. 주이트, 123,
113.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223~233.
114. 주이트, 124.
115. Clement of Alexandria, Stromateis 7, 43, in Bacchiocchi, 255.
116. Cyprian, De Oracione 35, in Ibid., 254.
117. Irenaeus, Letter to Victor in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v. 24. 2~17.
118. Ibid., v. 24. 16, 17.
119. Bacchiocchi, 200:.
120. Ibid., 198.
121. Socrates, Historia Ecclesiastica 1, 9. Eusebius, Life of Constantine 3, 19. in Bacchiocchi, 203, 204.

122. C. S. Mosna, *Storia della domenica*, 17, 119, 333, in *Ibid.*, 201, 202.
123. *The Encyclopedia Britannica*, 11th ed.(1910), vol. VIII, 828.
124. Francis X. Weiser, *Handbook of Christian Feasts and Customs*(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8), 211, Weiser, 211.
125. M. F. Unger,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174.
126. *The World Book Encyclopedia*(Chicago: World Book Inc., 1986), 787, 788.
127.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437.
128. Joseph A. Jungmann, *The Early Liturgy: To the Time of Gregory the Great*(South Be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2), 147.
129. Franz Cumont, *Astrology and Religion Among Greeks and Romans*, 1960, 89, in Bacchiocchi, 257.
130. Jungmann, 147.
131. *Ibid.*
132. "Chronography of 354"로 불리는 달력, T. Mommsen, *Chronography of Philocalus of the Year 354*, 1850, 631, in Bacchiocchi, 260.
133. Mario Righetti, *Storia Liturgica*, II(Milano: Editrice Ancora, 1955), 67.
134.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1978), 924.
Gaston H. Halsverghe, *The Cult of Sol Invictus*(Leiden: E. J. Brill, 1972), 35.
135. *Ibid.*, 35.
136. Bacchiocchi, 242~244.
137. 고대에는 태양도 혹성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주이트, 123, 난하주 72.
138. Bacchiocchi, "The Rise of Sunday Observance in Early Christianity" in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140.
139. *Ibid.*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247.
140. Tertullian, *Ad Nationes* 1. 13, *Ante-Nicene Fathers*, III, 123.
141. Vettius Valens, *Anthologiarum* 5, 10, ed. G. Kroll, 26, in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250, 251.
142. Justin Martyr, 1 *Apology* 67, 3~7. Bacchiocchi, 251.
143. S. R. E. Humbert, *Adversus Graccorum Calumnias*. 6, in Bacchiocchi, 194.
144. 주이트, 122.
145. Tertullian, *Ad Nationes* 1, 13, *Ante-Nicene Fathers*, III, 123.
146. Bacchiocchi, 254.
147. *Ibid.*, footnote.
148. Bacchiocchi, 247.
149. *Codex of Justinian*, lib. 3, tit. 12, leg. 3, in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3(New York: Scribner, 1902), 380.
150. F. F. Bruce, *The Spreading Flame*(Devon: The Paternoster Press, 1970), 299.
151.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 14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84), 116.
152. *Encyclopedia Britannica*, 9th ed., art., "Sunday."

153. Arthur E. R. Boak, A History of Rome to 565 A.D.(New York: the Macmillan Co., 1955), 433.
154. Ellen G. White, The Great Controversy(Mountain View, Calif.:Pacific Press Publishing Assn., 1950), 53.
155. H. G. Heggtveit, Illustreret Kirkehistorie, 202, in the SDA Bible Students' Source Book, 1000.
156.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Harper & Brothers, 1953), 92, 93.
157. J. L. Hurlbut, The Story of the Christian Church(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60.
158. Bruce, 295, 296.
159. 주이트, 137.
160.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967.
161. Eusebius, Life of Constantine 3, 19, Chronicon Pachale, PG 92, 83, in Bacchiocchi, 204.
162. Heggtveit, 202.
163. 주이트, 143.
164. Eusebius, Commentary on the Psalms, on Ps. 91(92):2, 3, in the SDA Bible Students' Bible Source Book, 877.
165. Synod of Laodicea, Canon 29, as translated in Nicene and Ante-Nicene Fathers(Grand Rapids:1971), Second Series, vol. 14, 148.
166. Peter Geieman, C. SS. R. The Convert's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 1957 de.(St. Louis: B. Herder Book Co., 1930), 50.
167. Vincent J. Kelly, Forbidden Sunday and Feast-Day Occupations(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43), 203.
168. Ibid., in the SDA Bible Students' Source Book, 1437.
169. F. G. Lentz, The Question Box(New York: Christian Press Assn., 1900), 98, 99, in the SDA Bible Students' Source Book, 994.
170. "The Question Box", The Catholic unicerse Bulletin, 69(Aug. 14, 1942), in Ibid.
171. A. W. Argyl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Grand Rapids, 1963), 183. "마 24:20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실례를 제공하고 있다." E. Lohse, "Sabbato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VII, 29.
172. 이러한 저주가 소개된 연대가 A.D. 80~90임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W. Schrage, 'αποσυναγῶνος,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VII, 848, in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158.
173. Epiphanius, adversus Haereses 29, 7, Patrologia Graeca 42, 402, in Bacchiocchi, 156, 157.
174. Bacchiocchi, 216, 217.
175. G. P. Fisher,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Scribner, 1900), 118.
176. C. J. Hefele, A History of the Christian Councils, vol. 2(Edinburgh: T. and T. Clark, 1896) 310, 316, 320.
177. John Chrysostom, Commentary on Galatians 1:7,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Grand

- Rapids, 1973), vol. 13, 8.
178. Denneth A. Strand, ed.,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154~156.
 179. Sozomen, *Ecclesiastical History*, bk. 7, ch. 19, trans. in NPNF 2d series, vol. 2, 390, in the SDA Bible Students' Source Book, 882.
 180. Socrates Scholasticus, *Ecclesiastical History*, bk. 5, ch. 22, trans. in NPNF, 2d series, vol. 2, 132, in *Ibid.*, 881.
 181. John of Damascus, *De Fide Orthodoxa*, *Patrologia Graeca* 94, 1201~1206, in Bacchiocchi, *The Sabbath in the New Testament*, 219.
 182. Bacchiocchi, 219.
 183. Gregory the Great, *Epistola* 13, 1,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13, 92.
 184. J. P. Mansi, ed., *Sacrorum Conciliorum Nove et Amplissima Collection*, vol. 13, 852, Bacchiocchi, 219.
 185. Nicolas I, *Epistola* 97, 10, *Patrologia Latina* 119; 984, in Bacchiocchi, 219.
 186. R. L. Odom, "The Sabbath in the Great Schism of 1054",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1(1963):74~80.
 187.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197.
 188. *Ibid.*
 189. *Ibid.*, 204.
 190. A. M. Renwick, *The Story of the Church* (London: Inter-Varsity Fellowship, 1966P, 124.
 191. Mosheim, *Ecclesiastical History*, cent. 12, part 2, ch. 5, sec 14, in J. N. Andrews, *History of Sabbath*(Battle Creek: Review and Herald Publ. Assn., 1887), 419.
 192.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209.
 193. *Ibid.*
 194. A. C. Bang, *Luthe's Katekismus Historia*, 2 vols.(Christiana, 1893~1899), 2:87, in *Ibid.*, 209, 210.
 195. J. N. Andrews, 459~462.
 196. Kenneth A. Strand, "Sabbath and Sunday in the Reformation Era", in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218, 219.
 197. *Ibid.*
 198. Gerhard F. Hasel, "Sabbatarian Anabaptists of the Sixteenth Century",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5(1967): 101~121, and 6(1968):19~28.
 199. C. M. Maxwell, *Tell it to the World*(Mountain View, Calif.: Pacific Press Publ. Assn., 1977), 71.
 200. *Ibid.*
 201. Hasel, 26.
 202. Strand, 221, 222.
 203. Hasel, 118.
 204. Maxwell, 71.
 205. *ibid.*
 206. Andrews, 463~473. Maxwell, 71, 72. Strand, 223~226.
 207. Strand. 222, 223.

208. Maxwell, 72. J. L. Gamble and C. H. Greene, "The Sabbath in the British Isles", in Seventh Day Baptists in Europe nad America(Plainfield, N. J., 1910), 1:107~109.
209. R. J. Thomasen, Seventh Day Baptists-Their Legacy to Adventists(Mountain View, Calif.: Pacific Press Publ. Asson., 1971), 13, 14.
210. Ibid., 15.
211. Maxwell, 72, 73.
212. Thomsen, 16.
213. Ibid. Andrews, 492~494.
214. W. M. Jones, "Interesting Letter from London", Review and Herald, December 22, 1874.
215. Thomsen, 16.
216. Andrews, 494.
217. Ibid.
218. L. E.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IV(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54), 908~915.
219. Thomsen, 18.
220. 주이트, 116. Froom, 911.
221. Thomsen, 18.
222. Maxwell, 73.
223. Thomsen, 34, 35.
224. Ibid.
225. Maxwell, 73.
226. Andrews, 502.
227. Maxwell, 73.
228. Andrews, 505. Maxwell, 74.
229. Andrews, 506.
230. Ibid.
231. Ibid.
232. Maxwell, 74, 75.
233. Ibid., 81.
234. Ibid., 95, 96.
235. Andrews, 351(footnote).
236. S. R. E. Humbert, Adversus Graecorum Calumnias 6, PL 143, 937, in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194, 195.
237. Victorinus, On the Creation of the World, 5, Ante-Nicene Fathers VII, 342.
238. Cyprian, Origen, Clement of Alexandria, Cyril, in Bacchiocchi, 254(footnites:63, 65~68.
239. 주이트 124.
240. Alexader Hislop, The Two Babylons(New York: Loizeaux Brothers Publishers, 1943), 21~40.
241. 3500여년전 Summerian god으로 Dumuzi였고, 아카드 이름으로 Tammuz였으며 여인들의 경배 대상이었다. Mircea Eliade(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4(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7), 512.

242. Seventh-day Adventist Bible Dictionary, vol. 8, 1064.
243. C. F. Keil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IX(Grand Rapids: W. B. Erdmanns Publ., 1978), 122.
244. Encyclopedia Judaica, vol. 15(1971), 787.
245.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7, 146.
246. The Universal Jewish Encyclopedia, vol. 5, 610.
247. Adam Clarke's Commentary, Job-Malachi(Nashivlle: Abingdon), 443, 444.
248. Keil and Delitzsch, 121, 122.
249. Walter W. Hyde, Paganism to Christianity in the Roman Empire(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vania, 1946), 60.
250. William L. Gildea, "Paschale Gaudium", The Catholic World, 58(March, 1894), 809, in SDA Bible Students' Source Book, 970.
251. F. A. Regan, "Dies Dominica and Dies Solis The Beginning of the Lord's Day in Christian Antiquity"(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1), 196, quoted in Bacchiocchi, 256.
252. Clarke, 444.
253. Ibid.
254. F. F. Bruce, The Books and the Parchment(London:Pickering and Inglis Ltd., 1963), 95.
255. Ibid.